









# 도서관

통권 제 **388** 호  
2014

ISSUE

근대잡지에서 찾아보는 인문학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차례

### I ISSUE 근대잡지에서 찾아보는 인문학

---

총론 : 잡지의 근대, 지식문화의 대중적 혁신 | 006

한기형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문학 : 『개벽』, 새로운 문학을 ‘꿈’꾸다 | 019

최수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역사 : 『소년』과 청년 : 청년은 어떻게 근대의 총아가 되었나 | 044

소영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사회 : ‘취미’와 ‘계몽’, 여성 대중을 불러낸다 | 062

김수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미술 : 잡지의 표지, 안면성의 정치학 | 082

서유리 충남대학교 강사

### II 2014년 도서관 기획대담

---

주제 : 잡지가 만든 근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02

사회 : 한기형 성균관대학교 교수

패널 : 오영식 근대서지학자,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진영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 III 근대 잡지

---

### IV 2014년도 연구현황

---

도서관정책기획단 | 148

국립중앙도서관 | 14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150

국립장애인도서관 | 150

국립세종도서관 | 151

## ISSUE “근대잡지에서 찾아보는 인문학”

I

01 _ 총론 : 잡지의 근대, 지식문화의 대중적 혁신	· 006
02 _ 문학 : 『개벽』, 새로운 문학을 꿈꾸다	· 019
03 _ 역사 : 『소년』과 청년 : 청년은 어떻게 근대의 총아가 되었나	· 044
04 _ 사회 : ‘취미’와 ‘계몽’, 여성 대중을 불러내다	· 062
05 _ 미술 : 잡지의 표지, 안면성의 정치학	· 082

# 잡지의 근대, 지식문화의 대중적 혁신

## - 20세기 역사 현실과 잡지의 관계

한기형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 01

### 1. 머리말

이 글에서 필자는 근대 형성기 한국에서 잡지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국민국가의 형성이 가능했던 일본의 경우 19세기 후반 이후 종합잡지와 전문잡지가 활발하게 간행되면서 근대적 국민지식과 국민교양의 보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들 잡지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출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근대 문화제도의 한 형태였지만, 국가 차원의 지식체계 개편과 이를 통해 양성된 새로운 지식층의 존재와 깊이 연계되어 있었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에 영향을 주며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선도했던 와세다 대학교 정치학 교수 우키타 카즈타미(浮田和民)가 당대의 대잡지 『태양(太陽)』 편집주간으로 취임한 것은 근대국가의 운영체제와 연계된 제도적 아카데미즘과 종합잡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sup>(1)</sup>

일본과는 그 맥락과 정황이 다르지만, 중국의 근대 잡지제도 아카데미즘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성장했다. 중국 신문화운동을 주도하며 중국 근대 지식문화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천두슈(陳獨秀), 후쓰(胡適), 루쉰(魯迅) 등 『신청년』의 주역들은 북경대학의 교수이거나 강사였다.<sup>(2)</sup> 『신청년』은 근대 대학의 지식계

※ 한기형 Han Kee-hyung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1) 大和田茂, 「編輯主幹浮田和民の位置」, 『雑誌『太陽』と國民文化の形成』, 思文閣出版, 2001.

(2) 김영구, 『신문화운동에 있어서 『신청년』의 역할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 4장.

증과 결합함으로써 지식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푸사넨(傅斯年) 등 북경대학 학생들에 의해 간행된 『신조(新潮)』는 북경대학관 『신청년』으로 불렸다. 『신조』는 당시 젊은이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남부 중국에 까지 유통되었다.<sup>(3)</sup> 『신청년』에서 『신조』로 이어지는 대중적인 잡지의 사상적 영향력은 대학의 태내에서 그 성장의 계기를 얻었던 것이다.<sup>(4)</sup>

그러나 한국의 근대잡지들은 식민지라는 정치 환경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지식 근대화정책 혹은 대학의 아카데미즘과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환경은 식민지 잡지의 고유한 사회적 성격과 맥락을 만들어냈다.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국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학술사회의 부재는 식민지의 잡지들이 한국적 근대지식의 창출 주체로 스스로를 자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식민지 사회에서 근대적 지식체계가 이원화 되는 것을 의미했다.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책학으로서의 ‘관학적 지식’과 식민지인이 스스로 만들고 유통시킨 ‘민간학적 지식’의 암묵적인 경쟁과 대립은 1920년대에 들어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뚜렷한 면모를 드러냈다.<sup>(5)</sup>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사회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배하는 국가’와 ‘상상하는 국가’의 분열은 식민지인의 인식체계를 규정한 본질적인 조건이었다. 그 중첩성은 식민지와 문화구조와 인식체계의 특징을 만들어냈다.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국가’의 존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식민지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정체성과 전통,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근대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갔다. 식민지인의 매체 속에는 근대 한국인이 그러한 욕망이 깊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1920년대 통용된 ‘신문정부론’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한

(3) 백영서, 『중국현대대학문화연구』, 일조각, 1994, 222면.

(4) 「신청년」의 성격과 그 사상적 특질에 대해서는 野村浩一의 『近代中國の思想世界：「新青年」の群像』(岩波書店, 1990).

(5) ‘관학’과 ‘민간학’을 학술적인 용어로 개념화한 사람은 일본 연구자 가노 마사나오(鹿野政直)이다. 그는 『近代日本の民間學』(岩波書店, 1983; 서정완 역, 『근대 일본의 학문』, 소화, 2008)에서 일본 근대 학술사를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주의에 봉사하는 관학 아카데미즘과 인간적 가치와 학문적 다원성을 추구하는 민간학의 대립으로 파악했다. 필자는 가노의 입장과 개념 설정에 동의하며 그 용어를 이 글의 핵심 개념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식민지 한국에서 관학과 민간학의 성격은 일본의 동일할 수 없었다. 식민지에서의 관학은 식민지 지배 정책학을 의미했다. 그것은 제국의 관학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성격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반면 식민지의 민간학은 주권 국가의 관학 아카데미즘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대국가 운영체제로서의 학문적 내용과 역할을 ‘상상’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상실된 국가와 주권의 회복 가능성을 환기하는 정치성의 지속이야말로 식민지 민간학이 추구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관학과 민간학의 관계에서 제국 내부와 식민지의 본질적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민간학이 관학의 구심력을 해체하고 원심력화 했다면, 후자는 민간학이 스스로를 새로운 구심력으로 중심화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어 매체들은 식민지 사회를 ‘함께 다스리는[공치(共治)]’ 또 하나의 주역으로 스스로를 정의했다. 이것이 식민지의 한국어 매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헤게모니의 한 양태였다.<sup>(6)</sup> 그것은 한국어를 통한 지식문화의 생산 주체라는 식민지 매체의 특별한 자의식에 의해 생겨난 현상이었다. ‘공치’ 감각의 내부에는 식민지 매체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이 제국의 관학이 제공하는 학지(學知)의 대체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숨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 신문과 잡지에 광범하게 드러나는 공통의 자질이다.

식민지 민간학과 잡지의 밀접한 관계는 1920년대 최대의 잡지였던 『개벽(開闢)』(1920.6-1926.8, 통권 72호)을 통해 그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개벽』은 국민지식의 창출과 보급이라는 근대 종합잡지의 일반적 성격에 충실했지만, 그 속에 반식민성과 자립적 근대화의 의도를 강하게 내장하여 식민권력과 지속적으로 대립했다. 제국 일본의 국민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재국민화’하려는 『개벽』의 노력은 총독부에 의한 강제 폐간으로 종결되었지만, 『개벽』의 사례는 식민지인의 지식문화가 제국의 그것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조건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sup>(7)</sup>

## 2. 지식과 국가의 분열

한국에서 근대 잡지는 ‘근대지식의 국가화 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출현했다. 최초의 국문 잡지로 평가되는 『친목회회보』(1896년 2월 창간)는 초기 일본유학생들에 의해 결성된 ‘대조선일본유학생친목회’의 기관지였다.<sup>(8)</sup> 학부대신 박정양은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그들이 조선 정부가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신진 엘리트가 되기를 기대하는 훈시를 했다.<sup>(9)</sup> 이에 대해 유학생들은 ‘국은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sup>(10)</sup> 이러한 유학생들의 응답 속에는 국가 개량을 수행할 주체로서의 각오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친목회회보』는 정치, 경제, 군사, 법률 등 국가 근대화를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김홍집 내각의 국가근대화 프로젝트에 호응했다.<sup>(11)</sup>

(6) 박헌호,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대동문화연구』 50, 2005

(7) 『개벽』의 매체 성격에 대해서는 최수일의 『개벽연구』(소명출판, 2008) 참조.

(8) 차배근,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I), 서울대출판부, 2000, 221면.

(9) 박찬승, 「1890년대 후반 도일 유학생의 현실인식」, 『역사와 현실』 31, 130면.

(10) 『친목회회보』 창간호, 1896.2, 15-17면.

(11) 차배근,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 서울대출판부, 2000, 제6장, 「내용분석을 통해 본 『친목회회보』의 목적과 성격」

지식을 통한 국가의 근대적 재편이라는 『친목회회보』의 성격은 1905년이 넘어서면서 한국 잡지의 표준양식으로 보편화되었다. 민간의 계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치결사체가 ‘학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과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다투어 기관지를 발행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학회지들이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선전하는 일보다 국가의 근대적 재구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점이다.

계몽단체의 잡지들이 정치투쟁보다 근대지식의 개발과 보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실력양성론에 기울어졌던 구한말 계몽운동단체의 개량적 성격에 근본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의 근대적 재편과 그 보편화를 수행할 사회적 주체의 부재라는 현상도 잡지의 그러한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깊은 영향을 미쳤다. 대한제국이 수행한 지식근대화정책의 성과는 미미했다. 국가의 교육제도는 정비되지 못했고 학부 주관의 서적편찬 사업도 부진했다.<sup>(12)</sup> 이 공백을 대신한 것이 민간의 매체와 출판사들이었다.

근대국가의 성격과 그 운영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근대 초기의 계몽운동가들은 그들의 정치적 주장과 그 정치적 주장을 담아낼 지적 체계의 재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13)</sup> 『기호홍학회월보』의 필자 이종호는 ‘학회지’의 성격을 “신선한 학문으로 지식을 개발하여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지득(知得)케 함”<sup>(14)</sup>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정의 속에는 근대 초기 잡지의 역할과 사명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잡지의 이러한 국가지향성은 한국의 근대 지식문화가 당초부터 민간, 혹은 주변에서 중심 혹은 상층부로 나아가는 상향적 체계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국 일본의 지식문화가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라는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반면 한국은 그 반대의 성격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식민지화는 민간사회가 주도하는 대중지식의 강조와 그 중심화라는 특질을 장기적인 현상으로 고착시켰다.

1905년 이후 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지식문화는 심각한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검열법인 신문지법(1907)과 출판법(1909)의 반포로 한국인의 자립적 근대화에 관련된 출판물의 간행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통감부의 검열정책에 대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사(政事)와 종족을 멸하게 하는 사육을 은폐함이 없이 천하에 발표하는 것이 치안을

(12) 김봉희, 『한국개화기 서적문화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99, 108-114면.

(13) 근대 초기 학회의 사상 지향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김도형의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지식산업사, 1994) 2장 「문명개화론자들의 문화계몽운동과 사상」을 참고.

(14) 李鍾浩, 「각 학회의 필요 급 분 회의 특별 책임」, 『기호홍학회월보』 1호, 1908.8, 20-22면.

방해하고 풍속을 괴란(壞亂)하는 것인가?”라는<sup>(15)</sup>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미 그러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1909년 5월, 경시청은 전국의 서점에서 『동국사략(東國史略)』, 『유년필독(幼年必讀)』, 『이십세기조선론』, 『월남망국사』, 『금수회의록』 등을 압수했다. 이 때 출판법에 의해 압수된 책자의 수는 3,800여권을 상회했다. 다수의 교과용 도서가 사용금지 되었고, 출판법에 의해 압수된 책자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각 학교에 하달되었다.<sup>(16)</sup> 1910년에도 『미국독립사』, 『이태리독립사』, 『화성돈전』,<sup>(17)</sup> 『서사건국지』, 『애국부인전』, 『국가확강령』, 『국민자유진보론』, 『이십세기시대참극제국주의』, 『국가사상학』, 『국정신담』, 『민족경쟁론』, 『독립정신정치원론』 등 많은 수의 서적이 발매금지되었다. 한일합방에 임박해 압수되거나 발매금지된 서적의 대부분은 근대국가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한 서적들이었다.<sup>(18)</sup>

1909년 학부가 발표한 ‘교과서 검정조사’의 내용 가운데는 ‘과격한 문자를 쓰고 독립을 말하여 나라의 시세형편을 파괴하려하는 정서를 고동(鼓動)하는 자’, ‘국가의 의론과 의무를 게재하여 불온한 언사를 쓰는 자’, ‘편협한 애국심을 말하는 자’, ‘은연중에 일본과 다른 외국에 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고동하는 자’, ‘외국을 배척하는 사상을 고동하는 자’ 등의 항목이 들어 있었다.<sup>(19)</sup>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지식과 국가의 인위적 단절과 식민지 지식체계로의 재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한국의 식민지화가 완성된 1910년 이후 일본은 한국의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조선교육령’을 통해 실업 중심의 중등교육기관을 식민지 교육의 완성태로 정립하고 대학에 대한 규정은 설치하지 않았다.<sup>(20)</sup> 이것은 식민지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사회의 성립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일본과 한국의 위계성이 구조적으로 정착되었다. 대한제국의 고등교육기관 수준도 열악했지만<sup>(21)</sup> 식민지화로 인해 그 개선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 사회적 유통의 책임이 대중 매체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15) 정근식, 「식민지 검열의 역사적 기원, 1904-1910년」, 『사회와 역사』 64, 2003, 23면.

(16) 『황성신문』 1909.5.7, 25, 29.

(17) 미국의 독립영웅 조지 워싱턴 전기.

(18) 하동호, 『근대서지고습집』, 탑출판사 1986, 8-10면.

(19) 『대한매일신보』 1909.3.14.

(20) 박철희,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2장, 「식민지 초기 고등보통학교 교육」.

(21) 유방란, 「한국근대교육의 등장과 발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3장, 104-112면.

그러한 매체 위상의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잡지가 최남선이 주관했던 『소년』이었다. 『소년』은 1908년 11월에 창간되어 1911년 5월 22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식민화가 막바지에 이른 시기에 간행되어 식민화가 완성된 1년 후에 중단된 이 잡지의 궤적을 살펴보면 국가성의 표현을 둘러싼 식민지 매체의 절실한 고민이 드러난다. 최남선이 사용한 ‘소년’은 1920년대 ‘청년담론’이 그러했던 것처럼<sup>(22)</sup> 일정한 역사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불완전한 혹은 유아적 계몽주체를 지시하는 ‘소년’의 의미표상은 미성숙한 단계의 근대국가로 당대를 암시했다. 그것은 근대국가로의 경로는 분명하되 아직 그 주권을 행사하기에는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시대정황을 이해하도록 유도했다.

국가학이 금지된 시대 속에서 최남선은 ‘국가’ 대신 ‘민족’ 개념의 확산에 주력했다. 『소년』이 창안한 ‘시문체(時文體)’는 근대 민족어의 실질적 효시가 되었고,<sup>(23)</sup>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된 민족지식이 이 잡지를 통해 선전되었다. 그러한 타협적 선택을 통해 『소년』은 조선의 식민화 과정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소년』은 국가론이 거세된 민족지식의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무단통치’라는 억압적 상황에서 잡지의 합법적 간행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학을 제외한 것이 제국의 지배에 대한 최남선의 자발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식민지 전 기간을 통해 제국을 주어로 하지 않는 국가학은 대부분 합법의 영역에서 문자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총독부가 작성한 검열기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기사’ 그리고 ‘국헌(國憲)을 교란코자 하는 기사’였다.<sup>(24)</sup> 이것은 식민지인이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국의 국가질서에 도전하거나 간섭하는 어떠한 문자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잡지 『소년』에서 국가학이 배제된 민족지식의 표현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첫째는 유예된 국가건설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매개체인 ‘조선학’의 구상이다. 대표적 사례가 최남선의 「해상대한사」와 신채호의 「국사사론」 같은 문장이었다. 이들은 국가의 부재를 지식과 관념으로 대치하려는 목적에서 씌어졌다. 근대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문화유산의 정리를 통해 증명하려는 ‘조선광문화’ 활동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다.<sup>(25)</sup> 둘째는 중세지배이념의 해체와 독자적인 근대이념의 창출이었다. 『소

(22) 1920년대 ‘청년담론’에 대해서는 이기훈의 『일제하 청년담론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5) 참조.

(23)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역사비평』 71, 역사비평사, 2005.

(24) 「朝鮮文刊行物行政處分例」,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課, 1930.

(25) 조선광문화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는 오영섭의 「조선광문화연구」(『한국사학사학보』 3, 2001) 참조.



년』의 중간호에 「왕양명선생실기」(박은식)를 게재하여 조선사회에서 좌도(左道)로 규정되었던 양명학의 복권을 시도한 것은 그 출발점이었다. 중세와의 이념투쟁은 1910년대 이광수와 최남선 문필활동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셋째는 근대지식의 하나로 문학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고 문학이 지닌 심미적 정치성의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던 일이다. 프랑스 근대혁명의 결정적 장면을 다룬 번역소설 「ABC계(契)」(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의 부분 번역)가 식민지화 직전(1910.7) 『소년』에 게재된 것, 톨스토이를 ‘국가와 교회에 반항하는 정신적 무정부주의자’로, 그의 소설 『부활』을 ‘19세기의 양심의 위에 더한 일대 통봉(痛棒)’이라 규정한 것 등은 문학을 민족지식의 중심으로 삼으려했던 의도의 산물이었다.<sup>(26)</sup>

### 3. ‘식민지 민간학’의 형성과 잡지

식민지화의 결과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의 부재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공식적인 학술사회의 구성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 때문에 식민체제에 포섭되지 않은 한국인의 학술활동은 일본의 제도적 학문과 분리된 ‘민간학’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민간학’은 식민지 관학과 일본 근대 학술제도의 영역 밖에서 존립한 식민지 지식인의 자립적 학술활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식민체제가 요구하는 방향과는 결합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것이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식민지의 내부에서 독자적인 생존환경을 창출할 수 있었다.

식민지 민간학은 다양한 방면의 민족지식, 현실의 이해와 분석을 위한 사회과학, 근대인의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한 문학예술 등을 포괄했다. 이들 민간학은 국가의 교육과 학술체계를 경유하지 않고 수요자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그 확산의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중요성 또한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식민지 민간학은 지식의 신분화라는 식민지 관학의 사회적 성격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오로지 수요자의 지적 욕구와 가치 지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식민지의 국가체제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과 의식적으로 분리된 지식의 생산과 유통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직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민간학은 근대 아카데미즘의 일반적 내용과는 구별되는 지식내용과 기술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매체와 민간학의 조우를

(26)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형성의 제도적 연관」, 『근대어 「근대매체」 근대문학』, 성균관대출판부, 2006, 389면.

통해 수평적인 지식문화의 대중적 교류라는 식민지 한국의 문화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식민지 민간학은 자립적 국민국가와 근대적 주권에 대한 동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관학에 대한 대항지식으로서의 정체성과 반식민지 정치의식을 내장하고 있었다. 저명한 문예비평가 임화는 1920년대를 대표했던 잡지 『개벽』과 『조선지광』에 대해 “이 두 조선 문화사상 특기할 잡지가 최근 연간까지 조선의 사상계와 문화계를 좌우하고 공헌한 것은 실로 신문보다 크다”<sup>(27)</sup>라고 지적했는데, 그의 의도는 이 두 잡지가 생산한 지적 언어의 정치성과 그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학술적 맥락과 정치적 맥락의 교섭, 비평정신과 전문지식의 결합, 지식인과 대중의 직접 연계라는 특질이 식민지 잡지를 통해 형성된 민간학의 주요한 특질이였다. 식민지 민간학은 식민지 내부에서 지식과 학술을 통한 또 다른 국가성의 창출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민간학과 잡지의 관계는 3.1운동 이후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맞았다. 한국어 매체의 간행이 허용되면서 다수의 잡지들이 발행되기 시작했다.<sup>(28)</sup> 특히 중요한 변화는 식민지의 정치현실을 다룰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된 ‘신문지법’에 근거한 잡지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개벽』, 『신생활』, 『신천지』, 『조선지광』, 『동명』, 『현대평론』 등이 그러한 잡지들이었다. 물론 그 자유의 한계는 명확했지만 간행 환경의 변화가 식민지 민간학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1920년대 잡지를 통해 드러난 민간학의 양상은 전 시기에 비해 구체화되고 다양해졌으며 전문성의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것은 식민지 지식문화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잡지들은 민족, 사회개조와 인간평등, 근대문학이라는 세 범주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초점화했다.

안확(安廓)의 「조선문학사」(『我聲』 1호, 1921.3)는 1920년대 민간학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성』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연합으로 창설된 청년단체 ‘조선청년연합회’의 기관지였고 민족주의 입장을 대표했던 안확은 이 잡지의 ‘편집자이자 발행자’였다. 『아성』 창간호에는 저명한 사회주의자 김사국, 윤자영, 원우관의 글이 안확의 문장과 함께 실렸다. 한 잡지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상과 운동의 미분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독자적인 근대국가에 대한 열망이 이념의 차이를 무색하게 만든 탓이다.<sup>(29)</sup>

(27) 임화, 「잡지문화론」, 『비판』, 1938.5, 115면.

(28)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김근수의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한국학연구소, 1973) 참조.

(29) 한기형, 「‘이념의 구심화’에서 ‘실용적 확장’의 증식구조로-『조선문학사』, 『신문학사』, 『한국문학통사』의 비교 검토」, 『고전문학연구』 28, 2005.

안확은 “문학은 가장 민활, 영묘하게 심적 현상의 전부를 표명함으로 국민의 진정한 변천, 발달을 알고자 하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sup>(30)</sup>고 말했다. 1914년 니혼대학 정치학과에 유학했던 안확의 이력을<sup>(31)</sup> 고려할 때, 그가 자신의 문학사 기술에서 1890년 간행된 우에다가즈토시(上田萬年)의 『국문학』, 하가 아이치(芳賀矢一)·다치바나 센자부로(立花銑三郎)의 『국문학독본』, 미카미 산지(三上參次)·다카츠 구와사부로(高津鍬三郎)의 『일본문학사』 등의 내용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sup>(32)</sup>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확의 저술이 일본 국문학사에 투영되어 있는 일본의 관학 이데올로기와 그 문제의식이 달랐다는 점이었다.

안확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적 정신의 물질화인 ‘조선문학’의 독자성과 특수성의 문제였다. ‘국민의 심적 현상의 역사’로 의미가 규정되면서 문학사는 강력한 구심력을 가진 ‘근대 세계관의 기술방법’으로 그 사회적 역할이 천명되었다. 안확은 『조선문학사』를 통해 전근대 문학의 역사를 근대 국민정신의 내용으로 치환하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근대국가의 부재와 이민족 침략, 그리고 국민의식의 미성숙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안확의 문제의식은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적 전통을 창안하는데 모아졌다. 그가 주목한 ‘역사’와 ‘전통’은 1920년대 식민지 민간학의 핵심적인 용어였다.<sup>(33)</sup> 안확의 저술은 ‘탈국가’와 ‘재국가화’라는 지적 모험이 식민지 민간학의 과제와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전자는 제국으로부터의 이념적 제도적 자립을, 후자는 민족이라는 관념의 대중화와 독자적인 국가건설에 대한 여망을 의미했다.

#### 4. 『개벽』의 매체전략과 식민지 민간학

식민지 민간학의 형성에 관여한 잡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준 『개벽』은 두 가지 지점에서 흥미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매체였다. 천도교라는 한국의 근대 신흥종교가 이 잡지의 간행주체였다는 것, 그럼에도 종교잡지의 길을 가지 않고 정치적 종합잡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이다. 자생적 신흥종교가 식민지에서 근대 민간학의 후원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sup>(34)</sup> 이 잡지의 주동자들은 대부

(30) 안확, 「조선문학사」, 『아성』 창간호, 44면.

(31) 최원식·정해립 편역, 「자산안확선생연보」, 『안자산 국학논설집』, 현대실학사, 1996.

(32) 유준필, 「일본 자국문학사 발생의 원천과 맥락」, 『한국학보』 104, 2001.

(33) 김현주,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34) 한기형의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7.

분 천도교의 핵심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잡지정책은 식민지에서 독자적인 지식의 모더니티를 창출하는데 집중되었다. 『개벽』이 민족지식, 사회개조와 인간 평등의 사상, 근대문학이라는 식민지 민간학의 후원자가 됨으로써 그 간행주체인 천도교는 이들 민간학 각 영역의 사회적 배후세력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식민지 한국에서 지식과 학술의 반관학적 주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도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잡지가 민족지식과 사회개조의 사상, 그리고 근대문학이라는 식민지 민간학의 주류적 양식을 하나의 잡지 안에서 동시에 종합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김정인은 『개벽』의 담론 지평을 ‘민족담론’, ‘계급담론’, ‘문화담론’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했다.<sup>(35)</sup> 이것은 위에서 제시한 민간학의 세 범주와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개벽』의 민간학은 식민지 사회에서 특별한 지적 아우라를 창출하면서 이 잡지의 영향력을 만들어 나갔다. 『개벽』의 모색은 아카데미한 근대 학지(學知)의 틀과는 구별되는 식민지 대중지식의 모형을 제시했으며 식민지 관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소통의 방법을 창안했다. 『개벽』의 상업적 성공과 광범한 독자의 확보는 식민지 민간학의 주역이라는 이 잡지의 성격에 기초하여 얻어진 것이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개벽』이 포괄했던 민간학의 세 범주가 『개벽』이라는 매체 공간 안에서 유기적인 상호 결합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지식과 계급해방의 사상, 근대문학은 그 기원과 계통의 차이에 의해 상호 이질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개벽』은 ‘종교적 인민주의’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통합하는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창간호의 논문 「세계를 알라」는 『개벽』의 목표가 ‘세계적 지식’의 창안에 있음을 천명했다. 이 글이 주창한 ‘세계적 지식’의 의미는 승자의 이데올로기인 사회진화론의 폐기와 상호부조론에 근거한 종교적 인민주의의 보편화를 의미했다. 『개벽』의 민간학은 제국주의의 주류사상을 거부하고 식민지인의 현실을 옹호하는 가치의 재구성을 추구하여 독자 대중의 사회인식을 변화시켰다.

『개벽』 영향력은 90%에 달했던 1920년대 초반의 문맹률 속에서 평균 8,000부 이상의 잡지를 매달 판매하고 475명의 인물들과 연계된 20개 이상의 전국적 유통망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중요한 점이 『개벽』의 유통과 연계된 인물들의 성격인데, 신원이 확인된 170명은 대부분 지방의 사회운동가이거나 독립운동에 종사했던 인물들이었다. 『개벽』의 유통과 사회운동 조직의 결합이야말로 이 잡지의 지위를 만들어낸 결

(35) 김정인, 『『개벽』이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 사람들, 2007.

정적인 조건이었다.<sup>(36)</sup> 그것은 『개벽』의 민간학이 식민지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독자적인 국가건설을 향한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심히 모순되는 말이나 조선서는 정치가 쇠퇴하면서 문화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요컨대 정치적 방향이 두색(杜塞-막히다, 금지되다)됨에 따라 문화를 정치적 정열의 방수로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당연히 강한 공리성으로 일관됨은 또한 당연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조선의 신문화를 이해하는데 이점은 지극히 중요한 점이다.<sup>(37)</sup> (임화,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11.3)

임화는 이 글에서 ‘정치’가 금지되어 ‘문화’가 ‘정치’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사회의 특수한 성격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식민지의 문화는 비식민지의 문화와 그 성격이 같을 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가 표현한 ‘문화의 공리성’이란 표현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국가건설과 관련된 문화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벽』 민간학의 양상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일어난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잡지 『개벽』은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확산시키려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위한 공론장이 되었고, 이 공론장 속에서 민족지식과 사회주의지식, 근대문학이 상호 결합하며 식민지의 독자적인 문화구조가 구성되어 나간 것이다. 아래 제시한 『개벽』의 목차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국토순례기와 지방문화 소개, 일본 사회주의 정당과 러시아 혁명에 대한 소감, 나도향의 소설과 프로문학운동의 관점에서 작성된 문학비평과 소설작품 등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질성의 공존과 다원화가 『개벽』이 추구한 ‘민간학’의 방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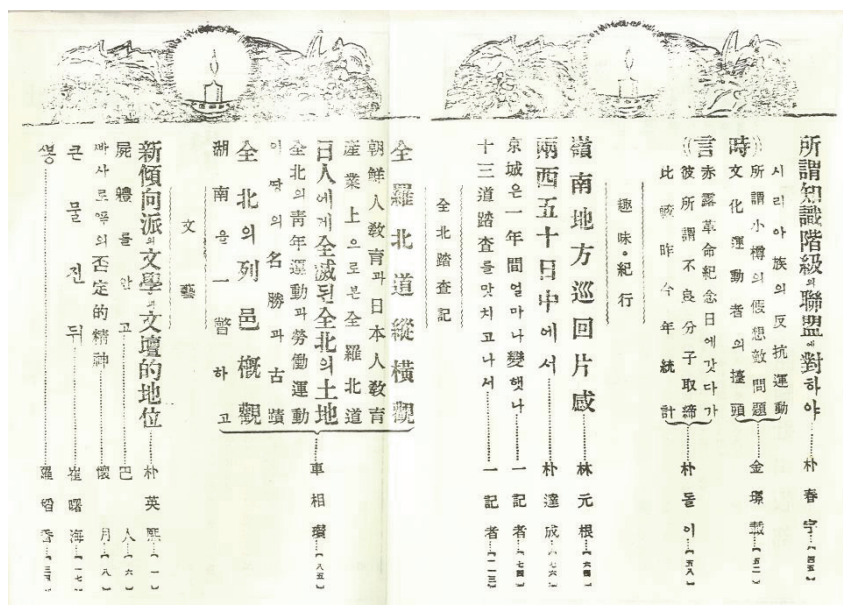
신흥종교와 사회주의, 민족지식과 근대문학의 유기적 연계가 만들어낸 『개벽』의 민간학이 갖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또 그것은 이후 한국사회의 지식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의 문제가 앞으로 깊이 있게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이 분석되지 않는다면 근대 한국의 지식문화는 오직 선진 제국의 모방과정으로만 설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6)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267-360면.

(37) 임화,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11.3



<사진> 『개벽』 64호(1925. 12) 목차



## 5. 맺는말

이 글에서 필자는 식민지 시기의 잡지가 당시 한국사회가 필요로 했고 요구했던 대중지식의 중요한 생산자이자 발신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아울러 당시의 잡지가 능동적으로 한국인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지식문화의 다양한 주체들을 지원했다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신문과 잡지 같은 대중매체는 근대 국가의 표상체계를 구성하는 제도의 일부였다. 그러나 식민지 한국의 대중매체는 제국 일본이라는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존재였다. 식민지의 매체는 ‘조선어’라는 방언으로 기록된 ‘지방의 텍스트’였다. 그것은 ‘대일본제국’이란 근대국가와는 애초부터 무관한 것이었다.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선의 매체는 제국의 국가영역에서 소통될 수 없는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식민지 매체가 겪었던 국가와의 인위적 단절(그것이 식민성의 본질이었겠지만)은 역설적으로 식민지 매체의 고유한 특질을 만들어냈다. 식민지에서 매체는 일종의 의사(擬似) 국가화 과정의 주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구현된 매체와 국가의식의 독특한 혼효(混淆), 그것은 ‘부정된 자율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자율적 세계의 한 현상

이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지식인 사회의 독특한 심리가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국가와 무관하면서도 자신이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모순된 이중감각이 식민지인의 정신적 자질 가운데 하나로 굳어진 것이다.

한국의 근대문학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민지 지식인이 처한 특수성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잡지『개벽』은 이 잡지의 간행 목적을 위해 문학의 특성을 날카롭게 활용했다. 『개벽』에서 문학은 ‘근대국가의 부재’를 벗어나기 위한 우회적 발언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지에서 문학의 위상은 정치학, 철학 등의 여타의 근대지식이 지닌 사회적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벽』의 문학은 모호성과 통합성이란 문학적 글쓰기의 방식을 통해 민족지식, 사회주의 지식과 같은 반체제적 저항담론을 은닉하거나 전파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포함해 『개벽』에 게재된 다수의 작품이 상징하는 민족적 위기의 표상, KAPF(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작가들의 작품 속에 해체되어 분산된 사회주의의 흔적들은 『개벽』의 문학이 고도의 정치언어로 이해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벽』의 문학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성격은 식민지의 개인이 문학을 매개로 미적 주체로서의 독자성과 집단적 주체로서의 사회성을 통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한 입장은 해방 이후 『사상계』, 『창작과 비평』 등으로 계승되었다. 특히 『창작과 비평』은 현재에도 1920년대 『개벽』이 취한 잡지 편집 체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잡지가 창간된 1960년대 이래 이 잡지에서 문학과 정치, 문학과 사상, 문학과 국가는 하나의 매체 공간에서 늘 공존해왔다. 문학을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의 결과인 『창작과 비평』의 편집정책은 민주주의의 미성숙과 같은 근대사회의 자율조정 기능이 부족했던 현대 한국사회의 환경에 의해 조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기부터 진행된 개인과 국가의 관계설정 방식의 관성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창작과 비평』의 사례는 한국에서 잡지의 양식 특질을 분석하는 것이 사상사와 지성사의 성격을 해명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최수 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 『개벽』, 새로운 문학을 ‘꿈’꾸다

02

## 1. 새로워진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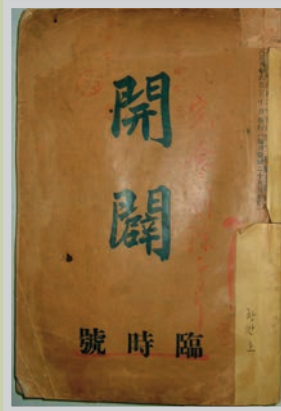


그림 『개벽』 창간호의 본호(출처 미상), 호외(국립중앙도서관), 임시호(아단문고) 표지(왼쪽부터)

‘매체 연구’<sup>(1)</sup>를 하는 입장에서 한국 근대문학사를 되새김할 때, 『개벽』<sup>(2)</sup>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개벽』은 전체기사 대비 37.9%(788개)의 지면을 문학에 할애하여 시 552편, 소설 115편, 희곡 17편, 수필 153편 그리고 69편의 문학론<sup>(3)</sup>을 대중 속에 전파했으니,<sup>(4)</sup> 1920년대 이런 문학적 규모와 역량을 보여 준 잡지가 또 있을까 싶다. 더구나 『개벽』은 1920년 6월 창간되어 1926년 8월(통권 72호) 강제 폐간되기까지 ‘압수(발매금지) 40회 이상, 벌금 1회, 정간 1회’<sup>(5)</sup>가 상징하듯 일제의 탄압과 검열을 감내해야 했다. ‘본호’가 압수되면 ‘임시호’나 ‘호외(號外)’



혹은 ‘호외의 호외’를 거듭 냈던<sup>(6)</sup> 『개벽』 편집진의 분투와 기상을 염두에 두면 위에 언급한 숫자가 한층 무게 있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일제의 탄압을 뚫고 동시대 어떤 문예지도 따라오지 못할 문학적 역량을 육화(肉化)했다는 것이 『개벽』이 특별해지는 까닭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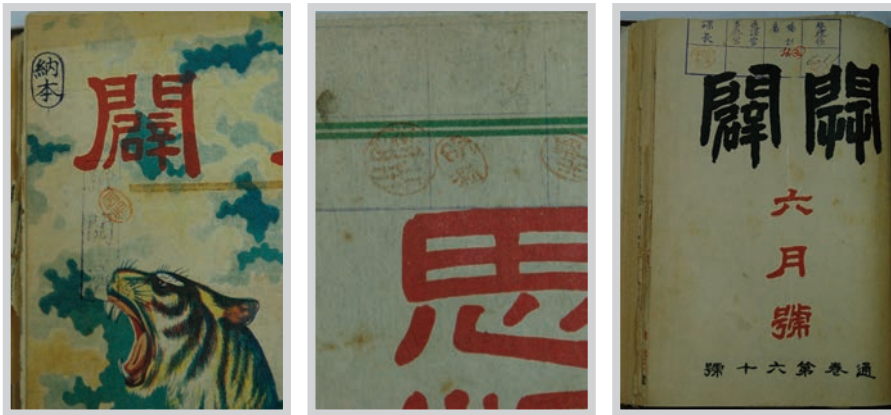


그림 납본·검열된 흔적이 선명한 『개벽』 13호·45호·60호(국립중앙도서관 소장)<sup>(7)</sup>

- (1) 매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를 가리킨다. 주로 신문과 잡지 같은 미디어를 하나의 유기적 총체 혹은 거대한 텍스트로 바라보거나 문학(문화) 제도로서 조명하는 연구들이 그 중심에 있다. 하나하나의 텍스트가 배치되고 짜이는 방식, 또 매체가 제도로서 작동하는 방식과 양상을 모두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텍스트 연구이되 기존 텍스트 연구를 넘어서는 바가 있다.
- (2) 『개벽』은 1920년 6월 25일 창간되어 1926년 8월 1일 강제 폐간될 때까지 통권 72호가 발행되었다. 이후 『개벽』은 차상찬의 주도로 1934년 11월부터 1935년 3월 1일까지(통권 4호) ‘신간’되었고, 광복 후 김기전의 주도로 1946년 1월에 ‘속간[복간]’되었다. 73호부터 호수를 이어, 1949년 3월 25일 통권 81호까지 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1920년대에 발행된 『개벽』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 (3) 『개벽』의 문학적 총량에 대해서는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 2008, 405쪽.
- (4) 1920년대 『개벽』은 전국적으로 52개 지사-62개 분사로 이루어진 유통망을 갖추었으니, 이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유통망에 필적할 만한 규모였다.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 2008, 3장 44쪽.
- (5)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 2008, 3장 44쪽.
- (6) 『개벽』은 창간호를 비롯한 33개의 제호가 40차례 이상 압수(발매금지)를 당했는데, 거의 대부분 임시호나 호외를 발행하였다. 그 결과 같은 호수에 판본이 여러 개인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창간호와 70호는 각각 남아 있는 판본이 3개나 된다. 그 자체가 한국미디어사에서 드문 일이고,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검열의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개벽』의 소장처와 판본 문제에 관해서는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 2008, 부록 1-2.
- (7)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개벽』은 대부분 납본 되었던 검열본으로 일제의 검열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일제의 검열 정책과 미디어와 문학의 대응 양상을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문학사적으로 『개벽』이 특별한 진짜 이유는 그 문학이 새로웠기 때문이다. 무엇이 새로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문학사에서 앞선 시기 혹은 동시대의 작품들과 다른 예술적 성취를 이룬 작가나 작품을 새롭다고 평가할 때, 평가자나 그것을 읽는 사람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그 성취를 ‘완성’ 혹은 ‘결과론’의 차원에서만 보려 한다는 것이다. 성과물을 내는 데 급급한 우리 삶의 습성 때문인지, 결과에만 심취하고 그 과정에 잠복했을 난관이나 어려움을 공감(共感)하는 데는 무관심하거나 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찬사되기 전에 먼저 ‘복기(復基)’되고, 실감(實感)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도정을 찬찬히 되새김하면 주체가 겪었을 고뇌가 깊고 다채롭게 오버랩 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작가나 작품은 진공관 속의 존재가 아니다. 이전 시대의 문학 전통을 자양분 삼아 당대의 문학 환경, 즉 문학 관련 제도(법)와 시스템 그리고 문학 시장을 통해서 재배된 결과물이다. 문제는 문학 전통이나 문학 관련 제도들이 하나같이 끈적끈적한 자성(磁性)을 띠는 데 있다. 스승(전통)에게서 자유로운 제자가 어디 있으며, 작가적 자질을 심사하고 검증하는 집단 체제(문단)나 작품의 상품성을 저울질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시장)에 정면대결하는 작가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일제의 검열은<sup>(8)</sup> 작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었고, 독서지도와 문학교육은 작가(독자)의 문학 세계를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주조 해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문학’을 꿈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을 둘러싼 전통과 환경을 ‘적’으로 돌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벽』의 문학을 새롭게 한 작가들, 김기진·박영희·김영팔 같은 ‘신경향파’ 작가나 박달성·방정환 같은 ‘기록서사’ 작가들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위험 속에 분투한 존재들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그 ‘새로운 문학’의 산실이 된 잡지 『개벽』 또한 매체사와 문학사에 깊이 각인되어야 한다.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종교 잡지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언론잡지’<sup>(9)</sup>로서 ‘민족운동을 재래하는 유일한 기관’<sup>(10)</sup>을 꿈꾸었고, 일제의 끊임없는 탄압을 뚫고 매호 8,000부를 발행하여 고정 독자 수만을 거느린 매체로 거듭났으며,<sup>(11)</sup> 마침내 ‘신경향파문학’과 ‘기록서

(8) 일제의 검열은 1907년 이완용 내각에 의해 제정된 ‘신문지법’과 1909년 공포된 ‘출판법’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은 『개벽』, 『신생활』 등의 잡지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의 신문들은 사전 원고 검열을 받지 않고 인쇄된 간행물을 관할 관청에 ‘납본’만 하면 됐으나, 대다수 잡지들은 단행본처럼 출판법의 적용을 받았다. 사전 원고 검열과 납본 검열, 즉 이중의 검열을 통과해야 했다.

(9) 「개벽사의 삼대잡지와 사대사업」, 『개벽』 37호, 1923.7.1, 목차 뒷면 광고.

(10) 「개벽사 사우제의 실행에 관한 취지와 규정」, 『개벽』 29호, 1922.11.1, 114-115쪽.

(11)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 2008, 316-317쪽.

사양식'의 탄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대 최대의 잡지로 탈바꿈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종교의 벽을 넘어서야 했다. 교단의 지원을 받는 매체로서 종교의 테두리를 스스로 해체하는 『개벽』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고, 이는 여타의 종교계 발행 잡지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당연히 『개벽』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교단 안팎에서 잡음과 분란<sup>(12)</sup>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회주의사상으로의 경도와 '문학의 사상화' 과정은<sup>(13)</sup> 급격하고 치열한 이념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개벽』이 선보인 이 자기 혁신적 역동성과 치열함은 한국 매체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니, 『개벽』은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매체였던 셈이다.

잡지 『개벽』은 그 시기 사회 조건 속에서 여론을 선도하고 지성사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우리나라 매체의 역사에서 『개벽』의 역할을 되풀이한 게 또 있을까 의문이다. 뒷날 『사상계』나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이 비슷한 지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벽』은 잡지들이 시사, 문학, 학술 등의 방면으로 전문화하기 이전에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지성사, 정치사, 문학사적 방면에서 전방위적 여론을 형성한 최초의 잡지였다. 그런 점에서는 뒷 시기 잡지들이 흉내 내지 못하는 바가 있다.<sup>(14)</sup>

## 2. 전사(前史) 혹은 토대로서의 미디어, 문학들 - 『청춘』, 『창조』, 『폐허』, 『백조』

『개벽』은 새로운 존재였지만, 단박에 그리워진 것은 아니다. 범박하게 말해 『개벽』은 『소년』(1908)·『청춘』(1914)으로 이어지는 월간종합지의 계보를 잇는 존재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모토 아래 백과전서적 지식을 망라한 『소년』, "아모라도 배워야 합니다"를 외친 『청춘』의 계몽적 열정이 『개벽』에 이르러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현실을 변혁하려는 꿈

(12) 『개벽』의 탄생과 변모 과정은 천도교 교단의 분규 과정, 그리고 신구파의 복잡한 역학 관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그리고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천도교청년회팔십년사』, 글나무, 2000 참조.

(13)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17, 깊은샘, 2006.

(14)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 사람들, 2007, 7쪽.

으로 자라났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소년』·『청춘』·『개벽』으로 이어지는 ‘계몽+문학’의 전통이다. 이것이야말로 『개벽』 문학의 새로움을 추동한 원천이자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림 『소년』과 『청춘』 표지

주지하다시피 『개벽』의 편집원리(계몽성·현실성·대중성)는 논설이 무게중심을 잡고, 잡문과 문학이 논설의 실감과 이해도를 보강하는 것이었다.<sup>(15)</sup> 이때, 상대적 자율성을 띤 문학이 현실(리얼리티의 문제)을 응시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개벽』의 편집원리가 문학의 생성 원리로 전환되면서 그 무게중심이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민족적 현실에 착목하라’는 『개벽』의 모토이자, 그 문학의 지향이기도 했던 것이다. 문제는 민족적 현실에 무게중심을 둔 ‘계몽+문학’이라는 지향이 당대 문예지들의 문학적 지향과 사뭇 달랐다는 사실이다. 『창조』·『폐허』·『백조』로 대표되는 동인지들은 ‘속악한 현실에 대한 부정의식’에서 출발한 예술지상주의를 그 문학적 지향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폐허』·『백조』로 대표되는 1920년대 초반 동인지문학이 정신과 물질의 대립적 이분법에 기초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소설에서 영적 연애와 육체적 연애가 대립한다든지 예술이 금전 혹은 법률·제도·종교 등과 갈등하는 것이나, 시에서 물질세계를 초월하여 ‘꿈·죽음·세상 저편’을 강렬하게 노래하는 것은<sup>(16)</sup> 이것의 문학적 변

(15) 『개벽』의 편집원리와 문학의 생성원리의 상관성,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 2008, 411-414쪽.

(16) 특히 『폐허』와 『백조』에 실린 황석우, 박종화, 박영희 등의 시는 퇴폐의 기분을 아울러 가졌다.

주라 할 수 있다. 이때 정신에 대립하는 물질이란 육체·금전·일상생활, 나아가 일체의 사회제도와 관습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작가가 살고 있는 물질세계 내지 일상세계 전체를 함축하는 것이고, 정신이란 예술로서 승화되어야 하는 초월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흥미로운 것은 이 대결에서 정신은 항상 물질세계에 유린당하거나 패배하면서도 가치우위를 점하며,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다. 정신적 연애는 일방적으로 육체적 욕망의 희생물이 되거나(「젊은이의 시절」)<sup>(18)</sup>, 육체적 욕망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도(「마음이 여튼 자여」)<sup>(19)</sup> 가치의 빛을 발하고, 「신비의 막」<sup>(20)</sup>이나 「음악공부」<sup>(21)</sup>에서 예술적 이상은 현실의 장벽 앞에 좌절하지만 그것이 문제적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기제라는 인식은 되레 선포해지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 그려진 것은 정신의 패배이지만 작품을 통해 말해지는 것은 정신의 승리인 셈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패했지만 담론차원에서 승리한다는 것, 혹은 이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싸우기 전에 이미 둘 사이의 가치우열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신이 무조건 옹호된다는 것은 그에 대타적인 물질세계 내지 일상세계가 무차별적으로 거부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좌절하지만 언제나 승리한다는 동인들의 정신세계의 밑바닥에는 세계(일상)에 대한 강력한 부정의 정신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인지문학에 그려진 세계상이 그러하다. 조혼으로 대표되는 낡은 결혼제도가 꿈 많은 젊은이들을 손쉽게 죽음으로 몰아넣으며(「황혼」, 「혜선의 사」)<sup>(22)</sup>, 남성중심의 사회 통념과 여성사회의 연약한 지반은 재주있는 여학생들을 성적노리개나 부자들의 첩으로 전락시키고(「약한자의 슬픔」, 「피아노의 울림」)<sup>(23)</sup>, 우정과 사랑조차도 알고 보면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별을 안거든 우지나 말걸」)<sup>(24)</sup>, 아이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거나(「무지개나라로」)<sup>(25)</sup>, 보기에 섬뜩할 정도로 인간성이 파괴되며

(17) 따라서 물질과 정신의 대립적 이분법은 동인지문학에 나타난 개별현상이 아니다. 동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틀이자 문학의 기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18) 나도향, 『백조』 1호, 1922. 1. 1.

(19) 김동인, 『창조』 3-6호, 1919. 12-1920. 5.

(20) 김환, 『창조』 1호, 1919. 2. 1.

(21) 김동인, 『창조』 8호, 1921. 1. 27.(1924년 창조사 간행 단편집 『목숨』에서는 '유성기'로 게재됨)

(22) 최승만, 「황혼」(희곡), 『창조』 1호, 1919. 2. 1./ 전영택, 「혜선의 사」(소설), 『창조』 1호.

(23) 김동인, 「약한자의 슬픔」(소설), 『창조』 1호, 1919. 2. 1./ 이일, 「피아노의 울림」(소설), 『창조』 5호, 1920. 3. 21.

(24) 나도향, 「별을 안거든 우지나 말걸」(소설), 『백조』 2호, 1922. 5. 25.

(25) 오천석 역, 에로시엔코작, 「무지개나라로」(동화), 『백조』 1호, 1922. 1. 1.



(「어느 소녀」)<sup>(26)</sup>, 천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지 못하고 시든다는 사실(「천치? 천재?」)<sup>(27)</sup>, 젊은이들이 아편쟁이로 범법자로 내몰리며(「살기 위하여」)<sup>(28)</sup>, 가족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파멸된다는(「기적 불 때」)<sup>(29)</sup> 설정은 이 부정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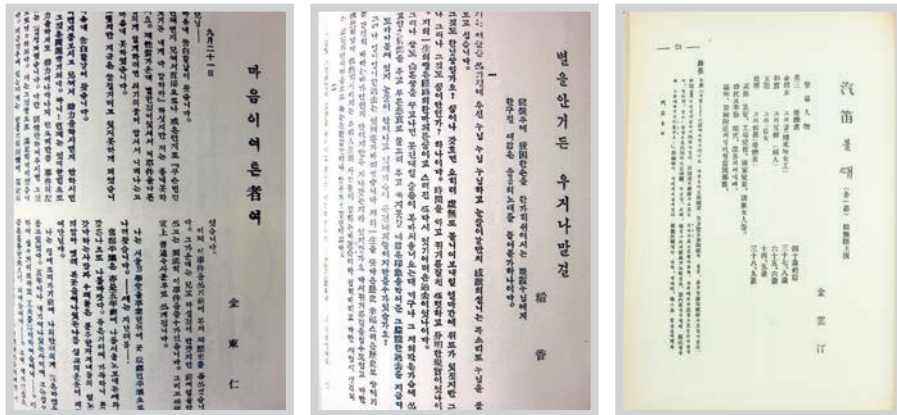


그림 소설 『마음이 여든 자여』와 『별을 안거든 우지나 말걸』, 희곡 『기적 불 때』의 첫장

따라서 새로운 문학을 꿈꾸었던 『개벽』으로서 동인지문학의 부정의식과 문학주의(예술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했다. 요컨대 『개벽』은 동시대 품미했던 문학주의를 ‘적’으로 삼아, 현실에 착목한 새로운 ‘계몽+문학’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소년』과 『청춘』으로 이어지는 계몽문학의 전통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청춘』의 〈현상문예〉가 중요했다. 『청춘』의 〈현상문예〉는 신(구)소설이라는 낡은 문학에 맞서 ‘근대문학을 새롭게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동력이자 기제’였고,<sup>(30)</sup> 『개벽』 또한 훗날 〈현상문예〉를 통해 ‘신경향과문학’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sup>(31)</sup>

(26) 민태원, 「어느 소녀」(소설), 『폐허』 1호, 1920. 7. 25.

(27) 전영택, 「천치? 천재?」(소설), 『창조』 2호, 1919. 3. 20.

(28) 松堂生, 「살기 위하여」(희곡), 『창조』 5호, 1920. 3. 21.

(29) 김정진, 「기적 불 때」(희곡), 『폐허이후』, 1924. 1. 1.

(30)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소년』, 『청춘』의 문학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화연구』 45, 2004, 243쪽.

(31) 「『개벽』이 박영희를 문예부장으로서 영입하고, 〈현상문예〉를 통해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천명하고 구체화한 과정에 대해서는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 2008, 5장 4절 참조.

먼저 『청춘』의 현상문예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살펴보면, ‘유종석 이상춘 김윤경 김형원 방정환 이익상 최학송’<sup>(32)</sup> 등이었으니, 문학사에 주요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방정환은 손병희의 사위로 『개벽』을 이끌게 되는 인물이자 아동문학의 선구자로 등극하는 인물이고, 최학송(최서해)과 이익상은 훗날 ‘신경향과문학’의 주역이 된다. 특히 최서해는 「탈출기」의 저자로서 박영희와 함께 ‘신경향과문학’의 한 경향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유종석과 이상춘은 현상문 등과 함께 『청춘』 문학의 정수를 길어 올린 존재로서 ‘신지식층 소설’의 주요 작가이다. 『청춘』의 〈현상문예〉가 새로운 문학과 ‘문학주체’를 길어 올리는 기제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작품의 양상 또한 새로운 바가 있다. 방정환의 소설 「우유배달부」(13호)는 ‘고학생의 참상을 개인 내면의 심리적 갈등과 함께 절실히 표현하여, 가난의 문제를 부각했으며’<sup>(33)</sup> 이상춘의 소설 「두뱃」(10호), 「기로」(11호), 「백운」(15호)<sup>(34)</sup>은 착실한 학생과 방탕한 학생의 대비를 통해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현실에 발을 내디딘 청년상을 구현했고,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11호)는 가정 과탄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녀의 불행한 삶을 형상화하였다. 아울러 유종석의 「냉면한그릇」(10호)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청년이 냉면 한 그릇을 시켜 놓고 세상의 빈부 차이에 의문을 표한다는 인식의 발전을 형상화하였고, 주요한의 「마을집」(11호)은 인습적 삶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과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동시에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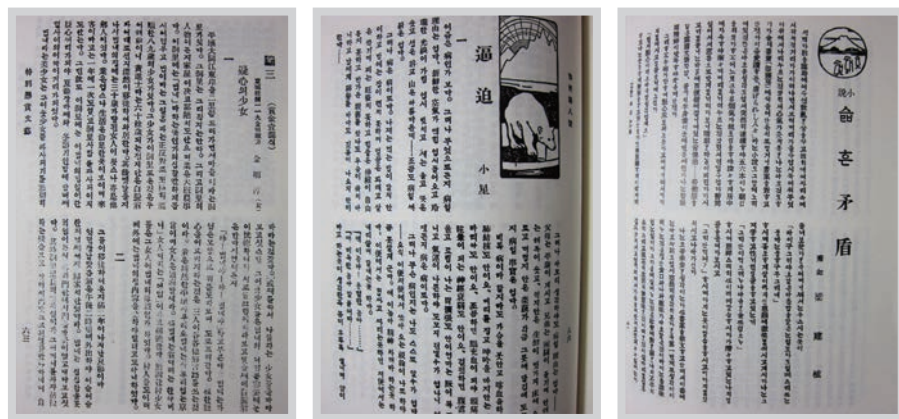


그림 김명순의 소설 「의심의 소녀」, 小星 현상윤의 「逼박」, 菊如 양건식의 「슬픈 모순」의 첫 장<sup>(35)</sup>

(3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280쪽.

(33)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신지식층의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0, 270쪽.

(34) 「백운」은 현상문예가 아니라 15호 목차에 정식 등재된 작품이다.

(35) 「슬픈 모순」, 『반도시론』, 1918, 2(성균관대 학술정보관 소장) ; 한기형,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부록(367).

여기에 양건식과 함께 ‘비판적 신지식층’을 대표하는 작가 현상윤의 소설들을 빼놓을 수 없다. 『한의 일생』(2호)·『박명』(3호)·『재봉춘』(4호)·『뽕박』(8호)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현실을 낭만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으며 환경과의 갈등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고 팽팽하게 대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인물”<sup>(36)</sup>로 현실에 발붙여 도달한 새로운 인식지평을 보여준다. 특히 ‘현실과의 팽팽한 대결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이 느끼는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묘화한’<sup>(37)</sup> 소설 『뽕박』은 비판적 리얼리즘의 전형으로 꼽히는 양건식의 『슬픈모순』에 다가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개벽』 문학의 새로움은 『소년』, 『청춘』으로 이어지는 계몽+문학의 전통을 자양으로 하여, 당대 동인지의 문학 경향을 극복하면서 그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소년』과 『청춘』, 『창조』·『폐허』·『백조』는 모두 『개벽』 문학의 토대 내지 전사로 자리매김 될 만하다.

### 3. 「무산자의 문예」와 신경향파문학

『개벽』은 552편의 시와 115편의 소설, 17편의 희곡과 153편의 수필, 그리고 138편의 문학론(비평)을 품고 있었으니 “종합지면서 문학지”<sup>(38)</sup>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다. 『개벽』의 문예지적 면모에 기여한 작가는 고한승, 김기진, 김동인, 김석송, 김소월, 김억, 김유방, 김정진, 나도향, 노자영, 박영희, 방정환, 백기만, 변영로, 양건식, 양명, 양주동, 염상섭, 오상순, 유완희, 이광수, 이기영, 이상화, 이익상, 임장화, 조명희, 주요섭, 주요한, 최남선, 최승일, 한용운, 현상윤, 현진건, 현철, 황석우, 홍명희 등으로 우리 귀에 익은 좌우파의 문인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김동인의 지적대로 “조선의 전문인이 『개벽』을 무대로 놀았다”라고 할 수 있다.

상섭과 빙허 - 이 두 소설작가가 <개벽>을 무대로 하여 출세하였다는 점만으로 <개벽>이 조선 문예사상에 공헌한 바는 크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그때엔 온갖 잡지가 모두 폐간되고

(36)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신지식층의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0, 104쪽.

(37)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신지식층의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0, 87쪽.

(38) 김근수, 「개벽지에 대하여-『개벽』의 영인본에 붙어-」, 『개벽』 1호(영인본), 8쪽.



<개벽> 혼자가 든든한 기초 위에서 발행을 계속하던 때인지라 한때는 조선의 전문인이 <개벽>을 무대로 놀았다. 소월도 <개벽>을 요람으로 삼고 출세한 시인이었다. 폐허파의 석송, 백조파의 도향 모두 <개벽>을 무대로 이름을 높였다. 지금 프로 문단의 선두로 꼽는 팔봉 씨며 박영희씨도 <개벽>에서 그 문단적 첫걸음을 내어 놓았다. (중략) 하여튼 문예품의 발표 기관이라고는 <개벽> 하나밖에는 없는 시절인지라 유명 무명 간에 글을 발표하려면 <개벽>의 힘을 빌었다. 따라서 <개벽> 그 첫걸음으로 삼아서 문단에 출세한 문인들이 꽤 많다. 이러한 의미로 <개벽>이 조선 문예계에 바친 그 공로를 결코 몰각할 수 없다. <sup>(39)</sup>

상반기(1-30호)에는 김석송(18회, 총 30회), 김소월(8회, 총 13회), 김억(32회, 총 46회), 염상섭(13회, 총 21회), 현철(55회, 총 56회), 황석우(6회, 총 8회)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하반기에는 김기진(34회), 나도향(8회), 박영희(47회), 이기영(8회), 이상화(19회), 이익상(11회, 총 12회), 조명희(12회), 주요섭(10회, 총 11회), 현진건(18회, 총 30회) 등 주로 카프작가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sup>(40)</sup>

우리 문학사에서 『개벽』 문학의 새로움은 하반기, 주로 ‘신경향과문학’에 방점을 두고 설명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상반기 『개벽』이 동인지문학의 자장권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문학을 예견하는 징후가 이미 움트고 있었다. 현진건의 소설이나 김소월과 김석송의 시, 그리고 다음장에서 언급될 ‘기록서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난한 문인 부부의 일상과 내면을 잔잔하게 기록한 「빈처」(7호), ‘양심적 지식인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묘사’한 <sup>(41)</sup> 「술권하는 사회」(17호)는 『개벽』 문학의 새로움이란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 그 바탕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즉 ‘체험을 통한 일상과 가정의 재발견’이 「빈처」라면, <sup>(42)</sup> 신변적 체험세계를 넘어서서 ‘사회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묘사의 세계’ <sup>(43)</sup>로 나간 것이 「술권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실주의적 기법과 표현’과 이를 통한 문학적 실감(리얼리티)의 획득을 현진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때, 이것은 동인지문학의 자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빈처」의 서두는 이를 선명히 한다.

(39) 김동인, 「문단회고」, 『매일신보』, 1931.8.23~9.2·1931.11.11~22; 『김동인 전집』 6, 삼중당, 1976, 283쪽 재인용.

(40) 작가·장르별 작품 목록은 불완전하지만 이요섭, 「천도교 잡지간행에 관한 연구」(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4, 69-75쪽) 부록.

(41)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304쪽.

(42)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 2008, 574-583쪽.

(43) 임규찬, 『한국근대소설의 이념과 체계』, 태학사, 1998, 239쪽.

「그것이 어째 업슬까?」

안해가 장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서?」(중략)

「모변단 저구리가 하나 남았는데.....」

「.....」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안해가 그것을 차저 무엇하라는 것을 알미라. 오늘밤에 엽집 한뼘을 시켜 잡히려 하는 것이다. 이년 동안에 돈 한푼 나는 대는 업고 그래도 줄이면 시장할 줄을 알아 기구와 의복을 전당포창고에 들이밀거나 고물상 한 구석에 세워두고 돈을 어더오는 수밖게 업섯다. 지금 안해가 하나 남은 모변단 저구리를 찾는 것도 아침스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다.(중략-인용자) 인적조차 쓴허지고 윈 천지가 비인 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비소리가 한 업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빌어먹을 것 되는 대로 되어라」

나는 점점 견딜 수 업시 두 손으로 허터진 머리칼악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리려 보았다. 이 말이 더욱 처량한 생각을 일으킨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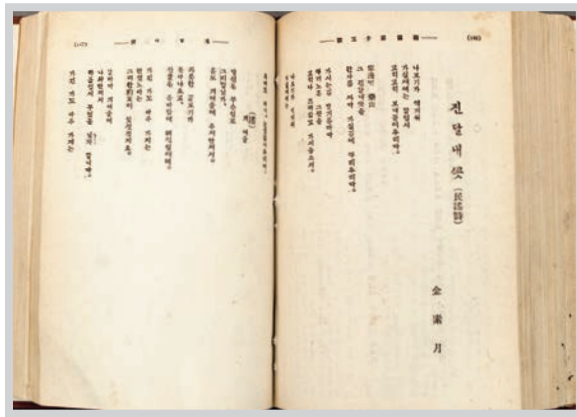
‘내면의 발견’은 정신(예술)에 주목한 동인지문학이 성취한 근대성의 본질에 해당한다. 『개벽』에 실린 염상섭의 초기 3부작(「표본실의 청개구리」·「암야」·「제야」)은 모두 ‘내면 고백체’ 소설로 김동인의 「마음이 여튼 자여」 등과 함께 동인지문학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내면(심리)묘사가 “다소 과장되고 감상적인 주관의식의 표백”<sup>(45)</sup> 이어서 문학적 실감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인공들의 방황과 고뇌에 개연성 있는 심리적 계기와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빈처」의 내면묘사는 심리 하나하나에 그에 걸맞은 ‘상황’과 ‘환경’을 제시하였다. ‘아내가 아침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 맡길 저고리를 찾는다. 이런 일이 이년 동안 계속되었다. 고요한 가운데 구슬픈 비가 내린다’는 상황 설정이 ‘나의 처량한 생각’에 구체적 실감(實感)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김소월과 김석송이 동인지 시단과 구별되는 경향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창

(44) 현진건, 「빈처」, 『개벽』 7호, 1921.1.1, 161쪽.

(45) 임규찬, 『한국 근대소설의 이념과 체계』, 태학사, 1998, 235쪽.

조』·『폐허』·『백조』로 대표되는 동인지의 시들은 꿈과 사랑, 도피와 절망, 몽환과 상징 등을 통해 속악한 현실 밖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밀실로 돌아가다」·「사의예찬」(월탄), 「꿈의 나라로」·「월광으로 짠 병실」(회월), 「꿈이면은」·「나는 왕이로소이다」(홍사용), 「석양은 꺼지다」(황석우), 「나의 침실로」(이상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22년부터 『개벽』에 열정적으로 작품을 실은 김소월은<sup>(46)</sup> 「금잔디」·「엄마야 누나야」·(19호)·「진달래꽃」·「제비」·「개여울」(25호)·「먼후일」·「님과 벗」(26호) 등을 통해 민족 고유의 리듬과 정서를 시세계에 안착시켰다. 특히 「한국 서정시의 기념비적 작품」<sup>(47)</sup>으로 평가받는 「진달래꽃」은 김소월을 한국의 ‘국민시인’으로 사랑받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sup>(48)</sup>



김소월의 「진달래꽃 전문」

석송 김형원은 1923년 좌파적 문예운동 조직인 ‘파스쿨라’의 회원이 되지만, 그 이전부터 『개벽』에 사회성이 짙은 시들을 실었다. 「죽음의 미」(8호), 「묘지」(11호), 「무산자의 절규」(12호), 「햇빛 못 보는 사람들」(20호), 「마음의 무산자」(30호) 등에서 보듯이 그의 시세계는 걱정적으로 ‘절대반향’과 ‘절대포옹’의 세계를 오갔다.<sup>(49)</sup> 그 세계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인식과 동인지문학의 자장 안에서 만들어진 감상적이고 걱정적인 정조가

(46) 김소월은 『창조』(5호, 1920.3)를 통해 작품 활동을 개시했으나 사실상의 등단은 『개벽』을 통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대표적 시론인 「시론」(59호, 1925. 5)과 작품들이 대부분 『개벽』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47) 네이버 「두산백과」.

(48) 김소월의 시는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노랫말(가사)로 바뀌어 불렸으니, 그의 시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이 각별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9) 주근욱, 『석송 김형원 연구』, 월인, 2001, 4장.

사뭇 엇갈리는 형국으로 요약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류 시단의 경향에 비추어 새로운 바가 적지 않았다.

‘신경향파문학’은 『개벽』 문학, 그 새로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계몽+문학’의 전통이 『개벽』에서 계급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학적 지평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경향파문학’이 구체화되고 또 『개벽』의 지면을 장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새로운 경향의 작가들이 성장해야 했고, 그런 작가들을 길러낼 시스템과 환경이 『개벽』 안팎에 갖추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 ◇無産者の文藝

이제야말로 모든 文藝上의 運動도 從來의 奴隸의 傳統으로부터 脫出하여 眞正한 意味에서 自己를 表現하는 文藝가 되려 한다. 이 運動은 主로 無産者の 氣分에 사는 作家에 依하여 勃發된다. 無産者の 文藝는 먼저 自己肯定으로부터 出發한다. 살고저하는 意志의 肯定으로부터 出發한다. 卽 살고저 하는 自己를 完全히 奴隸의 根性으로부터 떼어노코저 하는 衝動은 스스로 環境에 對한 否定이 되며 또는 爭鬭되어 表現되는 것이다.

無産者の 文藝에는 무슨 強烈한 官能의 生活도 업스며 愛慾의 遊戲의 享樂도 없다. 다못 잇는 것은 率直히 表現하려는 感情 뿐이다, 爭鬭의 氣分에 充滿된 意志 뿐이다, 全生命의 飛躍을 感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現實에 잇서는 全生命의 飛躍이 언제던지 沮止된다, 이에서 무서운 反抗은 排發된다. 要컨대 無産者の 文藝는 反抗의 精神으로 一貫되는 文藝이다. (50)

(50) 「무산자의 문예」, 『개벽』 28호, 1922.10.1, 문예면 28쪽 참조(인용문은 원문대로 적되, 띄어쓰기는 현대어에 맞게 적용).

「무산자의 문예」는 『개벽』 28호(1922.10.1)에 실린 ‘쪽기사’이다. 목차에도 누락된 이 작은 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개벽』에서 벌어진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기 때문이다. ‘문예운동-무산자의 문예-노예적 전통에서 탈출-살고자 하는 의지의 긍정-쟁투의 기분-반항적 정신’ 등 ‘신경향파’의 기운이 물씬한 이 소개 혹은 선언이 어떻게 천도교의 잡지 『개벽』에 실리게 된 것인가. 이는 『개벽』이 어떻게 ‘신경향파문학’의 산실(産室)이 되었는가 하는 본원적 질문과도 맥이 닿아 있다.

문학사에서 ‘신경향파문학’을 파악하는 주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문예운동 내지 조직운동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기획이나 역량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염군사’(1922)와 ‘파스쿨라’(1923) 그리고 ‘카프’(1925) 결성으로 이어지는 조직 운동의 흐름 속에 신경향파문학을 녹여내는 것이 전자라면, 김기진·박영희 등의 기획 역량에 초점을 두는 것이 후자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공을 들여 산출한 이 성과를 통틀어 논하기는 어려우나, 매체론적 시각의 부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않다. 거기에는 『개벽』이 어떻게 신경향파문학의 산실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스며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sup>(51)</sup> 당연히 목차에도 없는 쪽기사, 「무산자의 문예」가 의미화 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미디어가 “이미 생산된 담론이나 문학을 담아내는 시험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그것들을 생산하고 창조하기도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재”<sup>(52)</sup>라는 매체론적 시각에서 보면 「무산자의 문예」는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 그 의미심장함이란 『개벽』 28호(1922.10)의 시점과 위치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인데, 『개벽』 28호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과 오버랩 된다. 먼저 『개벽』 28호에 이르러 비로소 정치·시사가 허가되었다는 사실이다. 신문지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음에도 제5조 제한 규정에 따라 ‘정치·시사’가 금지되었던<sup>(53)</sup> 『개벽』의 금제(禁制)가 풀린 것이 1922년 9월 12일이니, 그 직후인 『개벽』 28호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존재였다.

둘째는 창간부터 이어진 『개벽』의 내적 사상·이론 투쟁이 28호에 이르러 ‘민중과의 악수’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개벽』이 이념적으로 좌파적 경향을 선명히 한 것은 37호(1923.7) 이후이지만<sup>(54)</sup> 이미 28호에서 방향타를 손보았다는 것이다. ‘노동적 민중’의 ‘친우’임을 강조하는 권두언 「귀중한 경험과 고결한 희생」이 그 방증이다.

(51) 물론 몇몇 연구가 『공제』(1920)와 『신생활』(1922)에 주목하여 프로문학의 초창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역시 조직이나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근대민족문학사』(1993)는 조직운동의 전사로서 양자에 주목한다.

(52) 『개벽』 연구, 소명, 2008, 8쪽.

(53) 『개벽』의 신문지법 제5조 제한규정 적용과 관련한 필화사건에 대해서는 한기형,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 2005.

貴重한 經驗과 高潔한 犧牲

◇開闢의 新使命과 開闢의 新活動◇

(중략-인용자) 셋째는 民衆과의 握手입니다. 茲에 民衆이라 하는 말은 純粹 平民의 純潔한 勞動의 民衆을 이른 말입니다. 卽 所謂 上層階級이라 하는 貴族과 가튼 그들을 除함은 勿論이오 進하야는 權勢와 名利에 營營하는 그 무리들을 除하야 노흔 쏘는 假飾과 手段으로 民衆을 籠絡하는 그 무리들을 除하야 노흔 그 남아지의 民衆, 그네들과 손을 잡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네들은 實로 우리 人類의 基盤的 土地입니다. 그네들 中에다 植木하고 百穀을 심으며 그네들 中에서 金銀銅錢을 캐며 金剛寶玉을 차저야하리라는 意味입니다. 우리 開闢은 由來-그네들의 親友로써 그네들의 웃음과 그네들의 울음으로 우리의 生涯와 우리의 藝術을 삼고저 하는 것이라이 點에서 開闢을 民衆의 勞動者의 資格으로 民衆 그네들의 無盡藏을 開發하기로 目的하는 것입니다.(중략-인용자)<sup>(55)</sup>

셋째는 문예부장(학예부주임) 현철(현희운)의 사임이다. 28호의 「편집여언」을 통해 공식화된 문화주의자 현철의 사임은 『개벽』의 문학적 방향타가 움직였음을 드러낸다.<sup>(56)</sup>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무산자의 문예」는 “오랫동안 連續하야 讀者의 最後까지의 忍耐에 訴하는 文藝部의 諸繼續品은 來月號 卽 年末號로써 大體로 畚을 막게되겠습니다”라는 29호의 편집후기와 함께 『개벽』 문학의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성장한 ‘신경향과문학’을 선도한 장르는 비평이었다. 『개벽』이 계급사상에 경도되는 37호(1923.7)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기진은 「프로르나드 센티멘탈」(37호)을 시작으로 34편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클라르테운동의 세계화」(39

(54) 애당초 『개벽』의 사상, 즉 ‘개벽사상’ 혹은 ‘개조주의’는 그 내포가 무척이나 다양했다. 문화주의·인도주의·무정부주의·사회주의 등이 뒤섞여 경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운동’의 내포가 복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벽』이나 문화운동 내에서 우이를 잡았던 ‘문화주의’는 ‘문화운동’이 퇴락하면서 세력을 잃었고, 차츰 민족주의 좌파가 사상·운동담론을 주도하게 되었다. 『개벽』의 사상적 분화 과정에 대해서는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 2008, 4장2절.

(55) 권두언 「귀중한 경험과 고결한 희생」, 『개벽』 28호, 1922.10.1, 5쪽 참조(인용문은 원문대로 적되, 띄어쓰기는 현대어에 맞게 적용).

(56) 문예부장 현철은 1922년 7월 31일 공식 사임하였고, 30호까지 55회 기사를 게재하여 문예 부문 최고를 기록하였다.



호)·「싸르뽀스 대 로맨로란의 쟁점」(40호)·「지배계급교화, 피지배계급교화」(43호) 등 모두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글들이었다. 김기진과 함께 파스쿨라 회원이었던 박영희는 시기적으로 조금 뒤인 44호부터 집중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져 모두 47편의 글을 발표하는데, 「조선문단의 최신경향」(44호)·「문학상 공리적 가치여하」(56호)·「신경향과의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64호) 등 “김기진과 비슷한 관점에서 무산계급문학을 논했다.”<sup>(57)</sup> 「신경향과 문학」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개벽』의 문학적 전환의 표지라고 할 만했다. 소설에서는 김기진의 「붉은쥐」(53호)·「젊은 이상주의자의 사」(60-61호)·「TRICK」(63호), 박영희의 「전투」(55호)·「정순이의 설움」(56호)·「사냥개」(58호), 조명희의 「땅속으로」(56-57)·「R군에게」(66호), 이익상의 「광란」(57호)·「흙의 세례」(59호)·「쫓기어 가는 이들」(65호), 송영의 「선동자」(67)·「용광로」(70호), 이기영의 「가난한 사람들」(59호)·「농부정도령」(65-66호) 등 초기 프로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개벽』의 지면을 달구었다. 특히 압수·삭제된 김기진의 소설 「TRICK」<sup>(58)</sup>은 일제의 동화정책, 구체적으로는 그 근간인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식민지 제도권 내 지식인들에게 ‘동화’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작품이다. 신경향과문학의 거두인 김기진이 ‘민족모순’을 심도 있게 다룬 이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은 ‘계급문학과 민족문학’이라는 문학사의 구도가 ‘허상’임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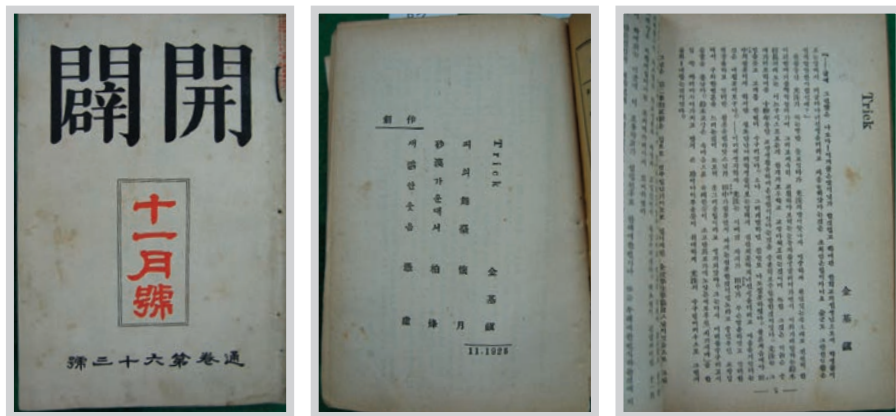


그림 압수된 『개벽』 63호(호외) 표지와 창작란의 목차 그리고 김기진의 소설 「트릭」의 맨 첫 장(아단문고 소장)

(57) 윤병로, 『한국근·현대문학사』, 명문당, 1991, 174쪽.

(58) 영인된 『개벽』에는 이 작품이 누락되었고 목차에도 빠져 있다. 반면 아단문고의 『개벽』 63호(호외1)에는 그림에서와 같이 작품과 목차가 모두 남아 있다. 아단문고에 소장된 호외1이 압수되자 영인본의 저본이 된 호외2를 다시 제작해 배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시에서는 팔봉의 「백수의 탄식」·「화강석」(48호), 유완희의 「여직공」·「희생자」·「향락시장」(68호), 이호의 「북으로 가는 이의 마음」(69)·「행동의 시」(72호), 김창술의 「대도행」(56호)·「긴밤이 새여지다」(61호), 백기만의 「만인의 도전」(58호) 등이 그 경향성으로 눈길을 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작품은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70호)이다.<sup>(59)</sup> ‘조선오백년대관호’로 기획된 『개벽』 70호는 세 차례나 압수를 당했으니, 차상찬의 한일합방조약문과 이상화의 시가 문제가 되었다. 세 차례의 압수를 통해 작품이 사라지고 목차에서 작품 제목이 지워지는 수모를 겪었다는 점만으로도 이 작품이 한국인의 입에 널리 오르내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이 매체사와 문학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소설 「TRICK」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존재 방식, 즉 작가(이상화)와 미디어(『개벽』)의 운명적 만남이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혼용’을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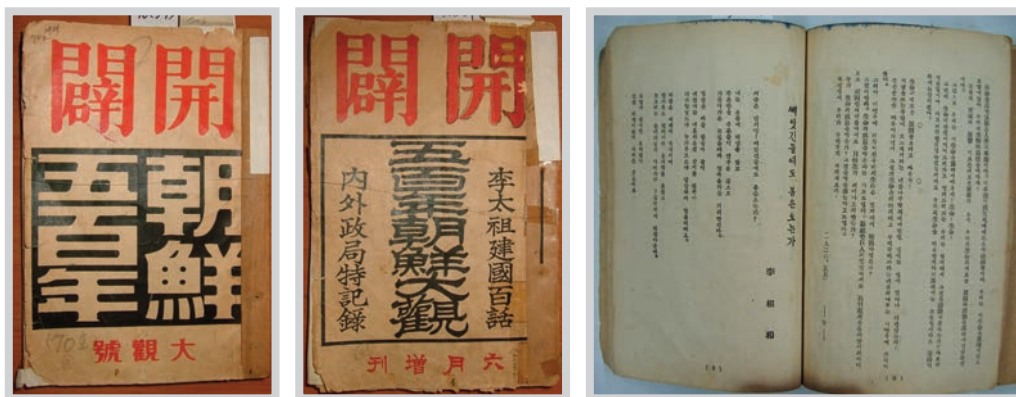


그림 세 차례나 압수된 『개벽』 70호의 이본들(미결 2와 3)과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4. 기록서사, 체험의 기술과 변혁적 열정 사이에서

『개벽』에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단편서사물’이 수십 편 존재하는데, 이를 범칭 ‘기록서사’라고 부른다.<sup>(60)</sup> 이 양식은 형식상 네 가지(보고형·수

(59) 『개벽』 70호는 본호(미결1), 호외(미결2), 호외의 호외(미결3)까지 세 차례나 압수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본문은 물론 목차에서 지워져야 했으니, 목차에는 ‘이상화’라는 저자명만 남아 있다.

(60) 이경돈, 「1920년대 기록서사와 근대소설」, 『상허학보』 8, 깊은샘, 2002.



필형·대화형·우의형)로 갈리지만 그 연원이 논설, 즉 계몽에 있다는 점을 공유한다. 「금일조선의 노자관계」라는 논설의 부록으로 제시된 기록서사 「소작인 만길의 생활」(15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계몽담론의 현실성을 문학과 잡문으로 뒷받침한다는 『개벽』 문학의 생성원리가 직접적으로 관철된 것이 ‘기록서사’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 현실의 재현이었다. ‘체험의 기술’이 장르의 근간이 되는 보고문과 수필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평가되고, 보고형 기록서사와 수필형 기록서사(서사적 수필)로 재창조될 수 있었다.

박달성의 「숙시숙비」(1호)·「겨울의 농촌생활을 들여췌」(7호)·「고학의 로」(18호)·「오호 지방농촌의 쇠퇴」(22호)·「삼군일부를 방하여 다섯번 크게 놀래인 사실담」(26호)·「양호 잡관」(28호)·「다사한 계해 경성의 일월을 들어」(32호)·「우리는 중놈이다」(65호)나 김기전의 「피의 공하신년」(19호), 최중갑의 「소작인 만길의 생활」, ‘강아지’의 「탐낭으로부터」(2호)·「나의 귀와 불평의 소리」 등은 객관 현실에 대한 ‘체험의 기술’이자 생생한 보고라고 할 만하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동시대의 ‘수필’양식, 그것도 『개벽』이 문학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던 동인지문학의 ‘수필’들에 기대어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다.<sup>(61)</sup>

실제로 『창조』·『폐허』·『백조』, 특히 『창조』의 수필들(기행문·서간·일기)은 『개벽』이 꿈꾸었던 새로움으로서의 ‘체험의 기술’을 실현하고 있었다. 동원 이일의 「흑연일총」이나 김환의 「나의 묵은 일기에서」에는 『창조』 동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주요한의 「장강어구에서」는 김동인이 만세사건으로 감옥에 다녀온 일, 주요한이 일본 당국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상해로 떠났으며 그로 인해 『창조』 동인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정치적 상황’까지 기술되어 있다. 특히 김환의 「동도의 길」이나 이일의 「흑연일총」, 김환의 「나의 묵은 일기에서」에는 『창조』 동인들이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 사상가들처럼 항상 형사를 달고 다녔음이 적나라하게 기술되고 있다.

今日は 하나 特筆할 事件이 생겼다. 아침에 ○○에서 ○○三人이 와서 今番 東京行 目的을 分明히 告하라는 命令이다. 다시 말하기도 맘이 압흔것을 十五六分間 當當하게 説明을 했다.(중략-인용자) 올치 一分差違도 업시 東京驛에 P가 부터니 지금 여기는 세번째 같닌 者가 엮혀 안져서 줄고 있다.(중략) P는 네번째 같니었는데 同席이다.(중략) 汽車는 大阪에 머므르고 P는 자는

(61) ‘계몽+문학’의 전통 위에서 1900년대의 ‘논설적 서사’ 혹은 ‘시사토론체·기사체·우의체·풍자’단편들이 창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동시대의 보고문이나 수필만큼 강렬한 ‘환기력’을 지닐 수는 없었을 터였다.

同안에 몇번이나 갈니였는지 알 수 업고 어대 안졌는지도 모르겔다. (중략) 그 중 녹은 旅館을 刑事에게 付託해서 投宿하니(중략) 停車場으로 向하야 가노라니 어대서 한 사람이 나오며 右便에 슬적 달닌다. (62)

이는 『개벽』 기록서사의 강한 현실 환기력이 본원적으로 수필의 장르적 특성에서, 직접적으로는 동인지 ‘수필’들에서 길어올려졌음을 암시하는 장면들로 볼 수 있다. 최서해의 소설 「탈출기」의 원본이 ‘수필’이었다는 문학사적 사실을 염두에 둘 때, (63) 수필 장르와 동인지 수필의 문학사적 위상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대화형 기록서사와 우의형 기록서사는 기록서사의 양식적 연원이 『개벽』의 논설에서 비롯되었음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고형·수필적 기록서사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생생한 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들은 『개벽』의 계몽담론을 추동한 주체들의 변혁적 열정과 낭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정환의 「은파리」 연작(7-18호)과 「낭전으로부터 가견에게」(20호), 박달성의 「이상아의 초보」(12·14호)·「시골쥐-서울쥐」 연작 (64)·「백두산호랑이로부터 동물원호랑이에게」 연작(65~66호)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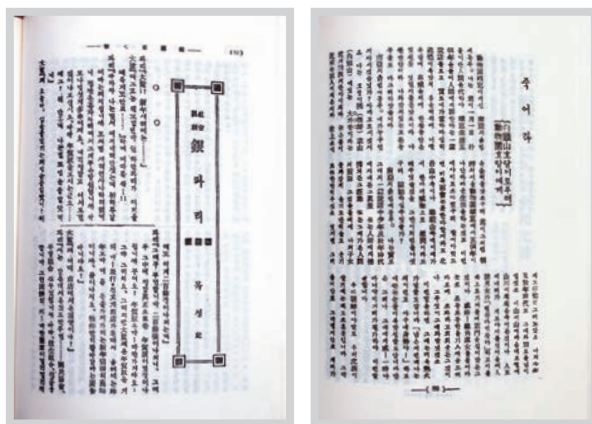


그림 비판적 우의물의 전형을 창출한 방정환의 「은파리」 연작과 변혁적 열정을 담아낸 박달성의 「호랑이」 연작

(62) 이일, 「흑연일총」, 『창조』 7호, 1920.7.25, 39~48쪽. 밑줄 강조는 인용자.

(63) 『조선문단』(창간호, 1924.10, 52쪽)에 따르면 「탈출기」는 ‘감상’(수필)으로 응모하였던 것을 훗날(6호) 소설로 고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경과는 이경돈, 「1920년대 기록서사와 근대소설」, 『상허학보』 8, 2002.

(64) 네논이란 필명을 사용하여 43~54호까지 7회 연재.

그중 방정환의 연작물인 「은파리」는 ‘불령(不逞)파리’인 ‘은파리’가 ‘보호순사’를 대동한 채 사회 곳곳을 날아다니며 식민지 조선사회의 인간군상(부호대감, 부호의 자제, 신여성, 청년 사상가)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고발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은파리」는 「호질」·「금수회의록」 등으로 대표되는 계몽적 우화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 이후 문학사에서 확산·분화되는 각종 ‘정탐물’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점은 이 작품이 뛰어난 현실인식의 지평에서 기획되었다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풍자의 대상들은 은파리의 현란한 말솜씨에 어쩔 줄을 모른다. 그리고 이런 말솜씨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풍자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인식적 도덕적 우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

대감『그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남을 속인다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그런 불법의 짓을 하면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가만두니?』

파리『법률? 당신네 세상에서 지금 쓰는 그 법률! 그것이 무슨 그리 절대엄정한 것입니까 공평치 못한 제도에 있는 사회, 거기서 가진 부정, 가진 허위와 수단을 다하여 성공이니 출세이니 하고 머리를 들고 나온 자들이 저의 동류끼리만 손목을 잡고 나아가는 지금의 사회, 말하면 자본계급만 옹호하는 정치 그런 세상에서 무슨 그리 법률의 절대엄정을 말하며 그 권위의 신성공평을 말할 수 있습니까』<sup>(65)</sup>

---

법과 정치·제도의 편향에 대한 작가(은파리)의 비판은 그대로 자본주의체제의 근본모순을 겨냥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다. 풍자의 정신이 ‘민족현실’과 ‘계급현실’을 아우르는 지평에서 기획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파리」의 놀라운 점이다. 변혁적 열정과 낭만적 상상력의 덧보탬 없이는 개척되기 쉽지 않은 경지이다.

이는 「은파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방정환의 「낭견(狼犬)으로부터 가견(家犬)에게」(20호)와 박달성의 「백두산호랑이로부터 동물원호랑이에게」 연작인 「철창생활오개년을 들어」(65호)와 「죽어라」(66호)는 변혁적 열정과 낭만적 상상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다. 「낭견(狼犬)으로부터 가견(家犬)에게」는 잡혀간 동생 ‘삼사리’에게 그 형인 ‘낭견(들개)’이 각

---

(65) 『개벽』 7호, 54면.

성을 촉구한다는 이야기인데,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일제의 노예·일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조선민족(삼사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촉구하는 선전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방정환의 선전선동이 간접적이라면 박달성의 그것은 훨씬 노골적이다. 박달성의 호랑이 연작은 창경원호랑이와 백두산의 호랑이가 서신을 교환하면서 민족의 자유를 획득할 기회로서 ‘국내의 대혁명’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동무. 구구히 철창생활을 계속할 것 업시 최후의 반항을 한번 해 보고 죽지 안으렴닛가. 내 함경도 호랑이 강원도 호랑이 평안도 호랑이 모다 동원을 식켜가지고 狄踰峴을 넘어 礪石고개로 드리밀터이니 그대는 사자네 아젓씨와 곰네죽하나 豹동생들과 연결을 해 가지고 內應이 되야주겟는가 그럴 수 잇겟는가. 오는 오월쫘하야 쫘피고 새 올썤 인간의 남녀노소가 동물원으로 모아들 썤 그 썤 내 수천호군으로 모라가지고 동물원을 드리칠 터이니 동무 쫘 내용이 되야주겟는가. 그런다면 지금부터 각산 각굴에 발령을 하고 戰備도 작만하고 敎○(해독불가-인용자)도 식키겟소. <sup>(66)</sup>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하고 국내외 무장세력이 동시에 무장봉기를 일으키자는 것이다. 즉 박달성은 1926년 5월을 국외 무장세력의 국내 진입과 국내 독립운동 세력의 무장봉기시기로 상정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 <sup>(67)</sup> 당대 국내의 문학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들만큼 민족독립의 열정을 노골화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들의 남다른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66) 박달성, 「죽어라」, 『개벽』 66호, 1926.2.1, 84면.

(67) 이는 여러 모로 1926년의 6·10만세운동을 연상시킨다.

## 5.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



그림 『신동아』, 『중앙』, 『조광』의 창간호 표지

『개벽』은 현실의 재발견이자 ‘계몽+문학’의 새로운 전형인 ‘기록서사’를 낳았고, 문학과 사상의 버물림인 ‘신경향파문학’의 서식처가 되었으나,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1926년 8월 통권 72호를 마지막으로 『개벽』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던 것이다. 식민지 시대 최고·최대의 미디어였던 『개벽』의 폐간은 ‘역사적 전환기’인 1930년대의 미디어 환경과 문학 환경을 예견케 하는 바가 있었다. 1930년대 일제는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라는 모드에 맞춰 조선의 미디어와 문학을 철저히 통제했고, 조선의 미디어와 문학은 1920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로를 개척해야 했다.

『별건곤』(1926)과 『삼천리』(1929)가 황금만능주의가 범람하고,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대중과 대중문화가 형성된 1930년대의 조선사회를 선지한 존재라면, 신문사 발행 잡지인 『신동아』(1931)·『중앙』(1933)·『조광』(1935)은 1930년대의 미디어 장과 문학 장을 사실상 구획하고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개벽』 시대에 축조된 정치성 중심의 편집 체계 대신에 대중성에 방점을 둔 망라주의(網羅主義)를 천명했고, 정치성 대신에 실용과 상식을 그 목표로 삼았다. 이런 미디어의 선택과 전환은, 조선 문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카프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해산(1935)과 맞물리면서 문학 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개벽』 이후, 구체적으로 1930년대 문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학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늘날과 같은 문학의 ‘현대적 양상’들이 기실 그 뿌리를 1930년대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개벽』 시대까지의 매체와 문학이 자본의 논리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무엇을 가졌다고 한다면, 1930년대의 매체와 문학은 자본의 논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와 의 길을 통해 ‘새로워진다는 것’을 고민하였다. 문학의 현대성은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신동아』의 독자공동제작소설과 코난 도일의 소설, 『조광』의 만문만화 「모던 심청전」

‘다기(多岐)하고 다층적인 분화’는 1930년대의 문학상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신문사 발행 잡지들은 이를 체화하고 육화하는 데 선도적이었다. 예를 들어, 신문사 잡지 시대를 함축하는 존재인 『조광』에는 문학사가 주목하는 본격문예물과 대중 문예물이 뒤섞여 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날개」·「동백꽃」·「메밀꽃 필 무렵」·「복덕방」·「천변풍경」·「태평천하」 등의 소설과 「거문고」(김영랑)·「슬픈구도」(신석정)·「주막」(백석)·「금붕어」(김기림) 등의 시들이 보이는데 하면, 탐정(추리)물·멜로물·모험물·괴기물 등 다양한 대중문예물이 뒤섞여 등장하고, 장르 간 경계도 허물어져 혼성모방(만문만화·만담 등)되거나 양식적 습합(사화·사담 등)이 일어난 문예물도 비일비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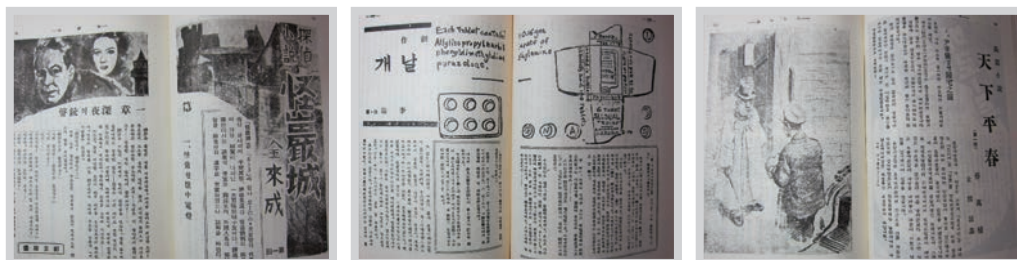


그림 『조광』에 게재된 김내성의 탐정소설과 이상의 소설 「날개」, 그리고 채만식의 「천하평춘」(태평천하)



다기하고 다층적인 분화로 함축되는 문학의 ‘현대성’은 『개벽』 시대의 매체와 문학에서는 예견하기 어려운 변화상이었다. 식민지와 자본의 논리를 내적으로 체화할 수 없었던 『개벽』 시대의 매체들과 문학에게 이런 ‘예견불능’은 숙명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이 존재성의 낙차가 『개벽』 시대의 문학과 『신동아』·『중앙』·『조광』으로 대표되는 신문사 발행 잡지 시대의 문학이 달라지게 된 계기일 것이다. 실제로 1930년대 일제의 탄압과 자본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개별 미디어는 『개벽』 시대의 저항정신을 대부분 상실했고, 문학 또한 『개벽』 시대의 혁명적 열정과 분투를 직접 삼투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로워진다는 것’의 한 측면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민족적이고 변혁적인 열정은 탈각되어 갔지만, 그 이면에서 이기영, 염상섭, 박태원, 이상 등이 새로운 문학적 경지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열을 우회하는 기교와 작법의 고도화, 그리고 대중문학의 분화와 발전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결과들도 생성되었다. 그리고 보면 문학사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양가 성을 함축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

## 참고 문헌

- 김열연구회 편, 『식민지 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 2011
- 김동인, 「문단회고」, 『매일신보』, 1931.8.23~9.2, 1931.11.11~22
-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신지식층의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0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역사문제연구소,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 이경돈, 「1920년대 기록서사와 근대소설」, 『상허학보』 8, 깊은샘, 2002
-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 사람들, 2007
- 임규찬, 『한국근대소설의 이념과 체계』, 태학사, 1998
- 정진석, 『한국 언론사』, 나남, 1990
- 주근옥, 『석송 김형원 연구』, 월인, 2001
-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편, 『천도교청년회팔십년사』, 글나무, 2000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3』, 현암사, 2004
-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 2008
-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대동문화연구』 45, 2004
-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17, 깊은샘, 2006

# 『소년』과 청년: 청년은 어떻게 근대의 총아가 되었나

- 종합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

소영현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 03

### 1. 청년의 출현

청년 세대를 두고 ‘88만원 세대’, ‘3포 세대’라는 말이 낫설지 않은 시대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학자금 대출로 마이너스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이 빈곤한 상태를 탈출하기란 구조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아르바이트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맞이하는 청년들, 스펙을 쌓기 위해 연애와 결혼도 미루고 열심히 살았던 청년들에게 암울한 미래만 펼쳐져 있음을 보고하는 소설들이 일군을 이루고 있음을 환기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암울한 청년의 삶이 호전될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절대 다수의 청년이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

청년은 심지어 기성사회가 전면적으로 보호해야 할 특정 세대 군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사교육, 주택,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정점에 청년 문제가 놓여 있다. 청년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 가운데 하나다. 청년이 새로운 사회를 이끌 주역이 아니라 사회에 진입하지도 못한 채 20대를 막연한 준비의 시간으로 채워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1900년대를 전후로 근대 초기 새로운 사회를 이끌기 위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개혁을 위해 힘쓰던 이들이 대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음을 떠올려보자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에

이른바 청년이 등장한 후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청년은 더 이상 새로운 사회를 이끌 주역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근대 초기에 다양한 근대적 신조어가 발명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 사상의 거점이 되는 것이 ‘말’ 즉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서구문명의 소개로부터 요청된 현상이기는 하지만, 근대 초기에 새로운 말이 범람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근대, 개인, 사회, 미, 권리, 연애 등 우리가 상용하는 한자어 가운데 다수가 근대 이후 서양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말로 재탄생했다.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말도 많았고 이전에 사용되던 말들이 새로운 조합을 통해 다른 말이 되기도 했다. 청년이라는 말은 대표적 신조어 가운데 하나다. 근대 이전에는 사용되었다 해도 그 말의 의미가 ‘푸른 시절’ 정도에 한정되었고, 특정 연령에 속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근대 이전에는 혼인여부에 따라 아이와 어른을 구분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로 구분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하는 특정한 용어가 불필요했던 것이다.

‘청년’이라는 말은 기독교청년회의 소개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다. ‘young/young men’의 번역어 ‘청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80년대 일본에서 기독교인인 코자키 히로미치(小崎弘道)가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s)를 ‘기독교청년회’로 번역하면서부터였다. 본래 『당시선唐詩選』에 실린 한시 「거울에 비친 백발을 보며照鏡見白髮」 가운데 한 구절에 있던 ‘靑年’을 ‘young men’의 번역어로 만들어냈는데, 근대 이후 ‘더 이상 아이는 아닌, 아직 어른도 아닌’ 존재를 지칭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청년’이라는 말이 폭넓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청년’이라는 말은 ‘청년회’라는 명칭 속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근대 초기 청년들이 기독교에 심취한 경우가 많았는데, 근대 초기의 기독교는 종교만을 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실 사회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졌다. ‘청년회’를 통해 종교적 결사체의 성격만이 아니라 근대적 인식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루어졌다.

‘청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각 교회학교’라는 식의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 초기 기독교는 계몽의식의 구현체였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서 주력하고자 했던 것은 선교사에 의한 근대 교육과 의료 사업이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 개인 등 근대적 사상을 접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서구 근대 계몽사상이 전달되는 통로에 가까웠던 것이다. ‘청년회’라는 말과 함께 ‘청년’은 초기에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오배청년, 아청년동포, 동포청년, 우리청년, 청년자제’ 등 다양한 조어를 통해 널리 유포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청년’이라는 말이 국권 침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주체를 호명하는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청년’이라는 말의 등장은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자 민족/국가에 대한 인식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청년’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청년은 대유행어가 되는데, 이는 청년이라는 말이 갖는 참신성 때문이기도 하다. 갑오경장으로 신분 사회의 해체가 선언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 신분적 위계가 잔존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실질적 변모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청년이라는 말로 지칭하고자 한 새로운 존재들의 등장이었다. 근대 초기에 계급과 지역, 성별의 구별을 떠나 근대적 인식을 내면화하고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열망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대거 등장했고, 그와 동시에 그들을 지칭할 용어로서 ‘청년’이 채택되면서 사회 곳곳에 ‘청년’이라는 말의 실질적 영향력이 행사되기 시작했다.

## 2. 『소년』의 등장

그 자신이 근대 초기를 대표하는 청년이기도 했거니와 최남선에 의해 발간된 잡지 『소년』은 이 청년이라는 말의 구체적 함의를 채우고 청년상을 실질적으로 주조해냈다. 『소년』지는 한국사회에 청년을 탄생시킨 정신적 토대였다. 『소년』지가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것은 근대적 독자로서의 청년이다. 『소년』지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통해 서로 다른 계층과 지역, 성별의 젊은이들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고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약방이 가업인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최남선은 중국어로 번역된 서양 서적을 접하면서 근대 문물에 눈을 떴고, 경성학당에 다니면서 일본을 배운 후로는 일본어로 된 교과서, 당시 발간되었던 신문 매체를 통해 근대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선진 문물에 대한 갈급으로 일본유학길에 올랐던 최남선은 도쿄에서 다양한 서적들을 모아서 돌아왔고 이후 잡지를 직접 발간하면서 근대적 문물과 학문을 소개하는 일에 앞장섰다.

최남선이 일본에 유학했던 기간은 사실 길지 않다. 황실 파견 유학생으로 1904년 10월 동경부립 제일중학교에 입학했던 최남선은 3개월 만에 퇴학해 1905년 1월에 귀국했다. 집안이 풍족했던 최남선은 1906년 9월에 다시 유학길에 올라 와세다대 역사지리과에 입학했으나 동맹휴학 사건으로 곧 퇴학했다. 2차 유학 시기에도 정규수업을 들었던 기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최남선이 일본에 머물렀던 시기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탈아

입구'를 외치며 동양의 일원에서 나아가 선진적인 서구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들떠 있던 때였고, 이러한 낙관론과 진보에 대한 기대가 넘치던 시기에 일본에 머무르면서 진보와 발전의 가능성을 몸소 체험한 최남선은 근대의 선진성과 우월성에 압도되었다. 일본의 선진적 인쇄술과 출판문화에 관심이 깊었던 최남선은 한국에 돌아와 1908년 신문관을 설립하고 11월에 『소년』 지 창간호를 발간한다.

1908년 11월에 발간한 이래 1911년 5월까지 통권 4권 2호 총 23호를 발간한 『소년』 지는 22호가 압수되기 전까지 월간지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일본에서 들여왔던 잡지들과 다양한 읽을거리를 토대로, 꽤 많은 서명으로 시를 쓰고, 번역문을 실고 논설문을 지었으며 잡지를 편집하고 만드는 1인 다역을 수행하면서도 최남선은 시기에 맞춰 잡지를 발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 1920년대 창간되었던 수많은 잡지들 다수가 탄탄한 자본 없이 는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정간되거나 폐간되었던 점을 환기하자면, 『소년』 지에 대한 최남선의 남다른 열정을 고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년』 지 이후에도 최남선은 『청춘』 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붉은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와 같은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으며, 『동명』 지와 『시대일보』 등을 창간하면서 다양한 독자층에 근간을 둔 근대적 인쇄 매체를 창간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계몽에의 열정을 이어갔다. 최남선의 열정으로 부터 근대적 인쇄 매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지자면, 『소년』 지가 조선에 등장한 최초의 잡지는 아니었다.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학회의 회보와 동인지 성격의 잡지가 1900년대 전후로 꽤 많이 만들어졌다. 잡지의 구성에서도 『소년』 지가 이전의 잡지와 전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소년』 지를 근대적인 의미로 창간된 최초의 잡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소년』 지가 발간과 유통을 함께 고려한 잡지였다는 점에서이다. 『소년』 지 창간호 속표지 안쪽에 잡지 주문을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 주목해보자.

#### 주문규정(注文規定)

- 본관(本館)에서 발간(發刊)하는 도서(圖書)는 모두 전금(前金)을 요(要)하나니 전금(前金)이 아니면 발송(發送)치 아니하옵.
- 송치(送致)하셨던 전금(前金)이 진(盡)하면 발송(發送)을 정지(停止)하옵.
- 대금(代金)은 아무쪼록 우편환(郵便換)으로 송치(送致)하시되 부득이(不得已)하면 일전(一錢)이나 오리(五厘) 우표(郵票)를 십(十)에 일(一)을 가(加)하여 송치(送致)하시옵. (『소년』 창간호)<sup>(1)</sup>



발행처인 신문관을 명기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창간호 목차 뒤에 제1년 제2권의 ‘예정목차’를 싣고 있는 점은 주문을 받아 잡지를 배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설정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주문규정을 고지함으로써 『소년』 지는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상품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루 살펴보자면 잡지 곳곳에서 폭넓은 유통을 염두에 둔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전국 방방곡곡에 『소년』 지가 유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우편과 교통이 허락하는 한 전국 단위의 유통이 상정되고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역과 계급, 성별을 막론하고 『소년』 지의 독자가 됨으로써 이른바 ‘세대’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속감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소년’의 실체도 현실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 3. 『소년』의 근대정신



< 사진 이미지, 『소년』 창간호 >

『소년』 지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 근대적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형식에 대한 관심을 통해 계몽의식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런 점에서, 『소년』 지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둘 만하다. 『소년』 창간호의 첫 머리를 채우고 있는 이미지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의 황태자 전하와 대사 이등방문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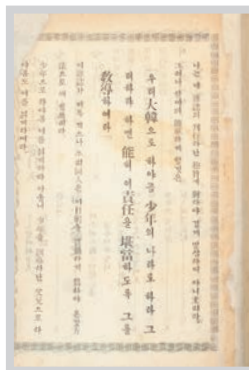
(1) 이하 인용문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한자어를 괄호에 명기하면서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대어법에 맞춰 제시한다.

‘나이가가라폭포’, ‘폐터대제’로 이 이미지들은 자체로 시선을 끌기도 하거니와, 이를 통해 『소년』지가 구현하고자 하는 계몽의식이 왕조와 국가를 전면적으로 전복시키고 재건하고자 하는 혁명적 지향을 갖는 것은 아님을,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 수립에 기여한 영웅의 위대한 풍모나 압도적 대자연의 면모를 통해 청년이 갖추어야 할 성격들 가령 용맹스러움의 고취를 효과적으로 요청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적 형식의 구현은 이미지 활용에 그치지 않고, 삽화 활용이나 본문의 배치, 디자인적 아이디어를 통해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가령, ‘소년’이라는 잡지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소개 글이 양 옆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소년』지의 속표지만 보아도 그렇다. 이를 통해 『소년』지가 계몽의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미와 흥미를 이끄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소년』지의 근대적 매체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금(今)에 아(我) 제국(帝國)은 우리 소년(少年)의 지력(智力)을 자(資)하여 아국역사(我國歷史)에 대광채(大光彩)를 첨(添)하고 세계문화(世界文化)에 대공헌(大貢獻)을 위(爲)코저 하나니 그 임(任)은 중(重)하고 그 책(責)은 대(大)한지라  
少年

본지(本誌)는 차(此) 책임(責任)을 극당(克當)할만한 활동적(活動的) 진취적(進取的) 발명적(發明的) 대국민(大國民)을 양성(養成)하기 위(爲)하여 출래(出來)한 명성(明星)이라 신대한(新大韓)의 소년(少年)은 수경(須更)라도 가난(可難)치 못할지라 (『소년』)



<『소년』 창간호 속표지 및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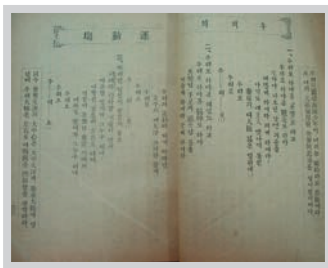
잡지의 첫머리에서부터 발간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취지에 따르며 『소년』 지는 세계문화에 공헌할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발간되는 것으로, 『소년』 지에 의해 그 주체는 ‘신대한의 소년’으로 명명된다. 이후 『소년』 지의 맨 앞쪽에 매번 실리게 되는 『소년』 지의 일종의 간행 취지문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이 잡지(雜誌)의 간행(刊行)하는 취지(趣旨)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한마디 간단(簡單)하게 할 것은

「우리 대한(大韓)으로 하여금 소년(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랴하면 능(能)히 이 책임(責任)을 담당(擔當)하도록 그를 교도(敎導)하여라」

이 잡지(雜誌)가 비록 적으나 우리 동인(同人)은 이 목적(目的)을 관철(貫徹)하기 위(爲)하여 온갖 방법(方法)으로써 힘쓰리라.

소년(少年)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라 아울러 소년을 훈도(訓導)하는 부형(父兄)으로 하여금도 이를 읽게 하여라.(『소년』)



<태백범 | 해에게서 소년에게 | 우리의 운동장> 작품이 전달하는 의미와 함께 시의 시각적 배열도 주목을 요한다. 『소년』 지에 실린 글들은 내용과 함께 배치나 디자인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창간호 본문의 실질적인 첫 글인 「해에게서 소년에게」도 형식에 대한 『소년』 지의 관심의 행방을 시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소년』 지의 창간호는 소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만들기에 대한 들끓는 열망의 표출이었고 국가 만들기의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계몽 정신의 발현이었다. 태극기의 연쇄 그림이 배치된 본문에 실린 작품을 통해 계몽의식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소년』 창간호 첫 장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학창시절 배웠던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말하자면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한국 현대시사의 첫머리에서 논의되기에 앞서 근대적 세계의 등장과 새로운 주체への 열망이라는 층위에서 즉 『소년』 지의 창간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작품인 것이다.

쳐……르씩, 쳐……르씩, 척, 씹……아.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무너뜨려버린다: 인용자]  
 태산같은 높은 뒀,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나, 요게 무어나.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쳐……르씩, 쳐……르씩, 척, 척, 튜르릉, 콧.

(…)

쳐……르씩, 쳐……르씩, 척, 씹……아.  
 나의 짝 될 이는 하나있도다,  
 크고 길고, 넓게 뒤덮은 바, 더 푸른 하늘.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적은 시비(是非) 적은 싹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저 따위 세상(世上)에 저 사람처럼  
 쳐……르씩, 쳐……르씩, 척, 척, 튜르릉, 콧.

쳐……르씩, 쳐……르씩, 척, 씹……아.  
 저 세상(世上)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中)에서 딱 하나 사랑하는 일이었으니,  
 담(膽)크고 순정(純正)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才弄)처럼, 귀(貴)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너라 소년배(少年輩) 입맞추어주마  
 쳐……르씩, 쳐……르씩, 척, 척, 튜르릉, 콧.(「해에게서 소년에게」, 『소년』 창간호, 2·4쪽)

6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도소리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이 시에서 『소년』을 창간했던 최남선의 ‘소년’에 대한 인식의 단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작품에서 ‘소년’은 태산 같은 산이나 집채 같은 바윗돌도 두려움 없이 달려들어 깨뜨리는 힘으로 상징되며, 기존의 모든 것을 의문시하는 새로운 주체의 이름으로 호명된다.

『소년』 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꼭지들은 사실 ‘소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애용한다. 「소년금광」, 「소년논단」, 「소년논어」, 「소년독본」, 「소년사전」, 「소년수자유의」, 「소년시언」, 「소년이과교실」, 「소년한문교실」, 「소년훈」 등의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글은 「신시대 청년의 신호흡」이나 「청년학우회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청년’의 성격을 규정하고 『소년』 지의 지향을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청년’에 대한 언급의 비중은 적지 않다. 더구나 『소년』 지가 강조한 ‘소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소년’보다 ‘청년’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진다. 실제로 『소년』 지가 점차 발간되면서 대성학교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민회의 외곽 조직 가운데 하나였던 ‘청년학우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은 『소년』 지가 호명하고자 한 존재로서의 ‘소년’이 아동이나 연소한 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근대적 문물에 친숙하고 근대적 학문을 깊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에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때로 『소년』 지를 아동문학 계보의 맨 앞자리에 놓인 작업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소년』 지가 만들어낸 청년상을 아동문학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리 타당한 접근법이 아니다. 창간 취지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소년』 지가 독자로 상정하고자 하는 이 즉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체는 ‘소년’에 한정되지 않으며, ‘소년’을 혼도할 위치에 있는 ‘부형’까지를 포함한다. 이들을 하나의 독자 군으로 묶는 용어가 ‘청년’이라고 할 때, 이 ‘청년’은 연령상의 분류에 의한 부류가 아니라 ‘신국가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집결할 수 있는 근대적 인식을 가진 자들인 것이다.

## 4. 새 것이 좋은 것이 된 까닭

청년이 신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새롭게 요청된 주체의 형상을 지시하게 된 것은 역사적 문맥에서 보자면 일본에 의해 조선이 강제 병합된 사건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식민지 쟁탈전이 극심했던 19세기 말엽 서구에 의한 침탈의 대상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서구와 근대적 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에 의한 조선 침략에 국가적 차원에서 무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으로 지식인의 근대에 대한 수용은 되물을 필요가 없는 당위가 되었다. 서구를 알아야 한다는 기조가 조선(대한제국)의 미래를 우려하는 이들 사이에서 불가피한 흐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근대적 교육에 대한 요청이 쇄도했던 것도 이러한 조류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로부터 연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인식이 보편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 인식의 변혁적 특징은 새로운 시간관으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원환적 시간관에서 일직선적 시간관으로의 전환으로, 이는 서구에서 당대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의 움직임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흐른다는 인식이 수용되면서 이로부터 삶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여러분은 뜻을 어떻게 세우시려오 ▷

일일(一日)의 계(計)는 신(晨)에 있고 일년(一年)의 계(計)는 원일(元日)에 있고 일생(一生)의 계(計)는 유소(幼少)에 있나니 제자(諸子)의 일생(一生)에 대(對)하여 지금(只今)같이 중대(重大)한 시절(時節)은 없는 것이오. (『소년시언』, 『소년』 창간호, 5쪽)

오늘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시간관이 보편성을 확보한 것은 근대 이후다. 근대 이전 사람들이 나고 자란 곳을 떠나 낯선 곳에 가는 일은 많지 않았다. ‘유람’이나 여행 자체가 도로와 철도 등의 비약적 발달과 함께 근대 이후에 널리 유행한 문화이다. 무엇보다 나고 자란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은 삶의 기반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하는 일이었으며, 콜럼부스의 항해가 그러했듯이 예측과 계량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의 감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나고 자란 곳을 떠나는 이동이 가능했다 해도 그 이동을 둘러싼 어떤 것도 예측하기 쉽지 않았으며, 어떤 낯선 문화



와 대면하게 될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이동 중에 생사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도 이런 경험이 가능했던 이들은 신분이나 계층적으로 소수였을 뿐이다.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던 대개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되돌아오는 원환적 흐름으로 인식되었다.

『소년』지가 강조하고자 한 시간관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열려 있는 일직선적 시간관이다. 이러한 시간관에 의해 시간은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열린 미래를 향해 흐르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지나간 시간인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 미래에는 가치 개념이 뚜렷하게 드러워지게 되었다. 지나간 것이 낡은 것으로,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새로운 것이자 ‘낡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에 대한 근대적 인식 유포의 결과로 새 것은 지나간 것이나 낡은 것에 비해 좋은 것이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새것 콤플렉스로도 불린 서구/근대 추종주의는 비난의 대상이면서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 경향은 지금 이곳의 노인 경시 풍조나 ‘동안(童顔)’에 대한 집착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상에 착색되어 있다. 근대 초기에 교육 대상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몽되어야 할 지식이었던 근대적 시간관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결합해서 극단적인 발전론과 새것에 대한 열망으로 변형되었고, 지금 이곳에서 자기규율의 논리에 스스로를 밀어 넣게 만드는 출구 없는 체제로 구축되었다. 한 때 식민지의 백성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게 해 줄 유일한 방책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나 근대적 시간관에 의한 세계적 재편은 우리를 종착지 없는 롤러코스터 위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밀려가게 만들었다. 이제 폐해에 더 많이 시달려야 하지만, 『소년』지에서 근대적 시간관은 과학과 지리 관련 지식의 소개와 함께 시간의 활용과 안배의 중요성으로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소년』지가 매월 소개했던 월력 표를 보자.

#### ★ 소년십일월력 ★

금삭(今朔)부터 기물(氣物)이 폐색(閉塞)하여 동(冬)을 성(成)하니, 동(冬)은 일귀(日晷)로 언(言)하면 주단야장(晝短夜長)하니 주간(晝間), 학교(學校)에서 학수(學修)한 것을 야간(夜間), 자가(自家)에서 복습(復習)하기에 적(適)하고, 경물(景物)로 언(言)하면 교외(郊外)에는 홍엽(紅葉)이 금(錦)을 세(灑)한 듯하고 이변(籬邊)에는 황국(黃菊)이 금(金)을 찬(攢)한 듯하여 자연(自然)의 화미(華美)가 승춘(勝春)에 양(讓)치 아니하니 홍장황식(紅粧黃飾)한 산야(山野), 기고광한(氣高光寒)한 천일(天日)에 과극(課隙)을 승(乘)하여 쾌유창서(快遊暢敘)함 또한 묘(妙)하니라(『소년』 창간호, 1쪽)

양 옆과 아래에 새겨진 문구는 다음과 같다.

우: 백학(百學의) 묘리(妙理)는 부문(部門)마다 혜보(慧寶)를 개(開)하고 지O(智O)을 만(滿)케 하는데  
좌: 사시(四時)의 가흥(佳興)은 절후(節侯)대로 조안(眺眼)을 포(飽)케 하고 가흥(佳興)을 조(助)하누나  
하: 제가 저를 믿고 제가 저를 도우라 제가 할 일은 남에게 미루지 말아라 (『소년』 창간호, 1쪽.)



<『소년』 창간호 11월력, 『소년』 2호 12월력, 『소년』 13호 1월력, 『자조론』>

『소년』 11월력에 의하면 『소년』 지가 창간된 11월부터는 계절적으로 겨울에 접어든다. 월력은 우선 자연적 시간의 흐름과 계절 변화를 언급한다. 하지만 월력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계절 변화가 아니다. 계절 변화는 학습의 조건 변화로서 다루어진다. 해가 점차 짧아지는 사정을 ‘주간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야간에 집에서 복습하기 좋은 시간이 되는’ 변화로 지적하는 대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니와, 단풍이 물드는 경치의 변화를 언급하는 대목을 보아도 다르지 않다. 자연의 변화 포착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른 아닌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쾌활한 기상이다. 월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소년』 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 흐름으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재구축되는 시간이자 학습과 수양을 위한 수련의 시간인 것이다.

월력의 표를 채운 문구들 가운데 특히 ‘자신의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를 도우

라’는 문구는 이후 『소년』지와 신문관에서 본격적으로 번역, 소개되었던 사무엘 스마일즈의 『자조론Self-Help』의 일면을 앞서서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적 시간 의식을 내면화한 규율적 주체의 출현을 독려하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소년』지를 통해 수양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이들로 언급된 위인 중에 자기계발론의 거두라 할 수 있는 프랭클린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데, 당겨 말하자면 『소년』지가 호명하고자 한 ‘청년’은 점차 자본주의형 인간형이 되어갔다. 프랭클린에 의해 개발된 다이어리가 잡지의 부록으로 유통되는 사이에 하루로부터 일생에 이르는 시간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론의가 점차 불려온 것은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의 우월성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노력의 가치를 고광하는 동시에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밤벌레’로 비난하고 규율하는 원리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근대 초기에 등장한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건전성이나 계량화되고 합리화된 근대적 세계의 건강성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대화가 이끈 삶의 진전의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의 긍정적이고 부정적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근대적 주체가 등장하고 백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주체가 어떤 세계를 이끌게 되었는지, 그 세계 안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의 근대적 주체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차분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5. 침몰하는 국가를 구하라

근대적 시간관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야만-반개(화)-개화(/문명)’이라는 발전 도식을 승인하는 것이자 서구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아직 근대적 시간 인식에 친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대적 인식을 내면화하지도 못한 조선/대한제국은 야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의 야만을 승인하는 시간관과 문명관을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일까. 최남선은 왜 『소년』지를 통해 근대적 시간 인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권유했는가. 서구의 이러한 시간관과 근대인식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근대적 시간관이 갖는 역설의 면모와 무관하지 않다. 몰락해가는 조선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서구의 시간관이 갖는 역설 속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관 속에서 과거의 시간을 살고 있는 조선이 근대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시간의 흐름을 압축한다면 미래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

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서구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근대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한 정신사적 기초가 되었다.

서구의 시간관을 수용하면서 역설적 발전 단계를 상상했던 것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거나 한국의 식민성을 강화시킨 계기로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준비 없이 급작스러운 세계변화 속에 내던져진 조선이 외부의 힘에 의해 대한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로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동일한 시간의 발전도상에 놓인다는 인식은 우리가 현재 앞선 문명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발전의 속도에 따라 그 순서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낙관적 이상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사실 최남선이 만든 잡지들 다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대적 인쇄 매체가 담고 있던 내용들이 그저 국가를 잃은 민족의 슬픔만을 읊조리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 근대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응원했다. 실제 현실을 둘러보더라도 근대 문명/문화의 적극적 수용이 이끌어줄지도 모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도 꽤 팽배해 있었다. 역사적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 없지 않지만 가령 1919년의 삼일 만세운동을 통해 드러났듯이 당시 조선민족이 할 수 있던 최선의 선택들이 실행되거나 시도되었다. 청년에 대한 열광의 분위기는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란 어떻게 가시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세계의 창출은 제도 변혁과 그로부터 야기된 일상 차원의 변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선후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개인은 급작스럽게 외부로부터 부여된 낯선 제도에 순응하거나 적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실제로 그런 과정에 놓인다고 해도 제도가 상상했던 방식과 방향으로 개인의 일상이 순조롭게 변화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근대 이전에도 영토와 국경이 만들어내는 일상적 긴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국제적 관계망에 대한 상상력으로, 하나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만국적 단위의 상상을 벗어나서 존재하기는 쉽지 않아졌다는 점이다. 국경 바깥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혹은 법률과 정치를 요청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 민족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독립을 위해 무력투쟁도 불사하려는 노력이 한켠에서 필요하다면, 최남선과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이 주목한 것은 정신의 변혁이자 때가 되었을 때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주체를 생산해야 한다는 ‘준비론’이었다. 물론 이 준비론이 갖는 한계로서의 체제 순응적 태도는 1920년대 초중반 사회주의에 대한 소개가 본

격화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의 와중에도 근대적 인식의 내면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소년』지는 따지자면 새로운 세계를 수립하기 위해 무엇을 파괴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가에 관해서보다는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활용가능한가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보는 방식을 선택했다. 근대 이전의 신분제나 양반의 폐해를 따지는 일은 『청춘』지에 이르러서나, 그것도 소략하게 이루어질 뿐이었다. 『소년』지는 자체로 새로운 세계의 수립을 위한 ‘지식’의 총집합체가 되는 일에 집중했던 편이다.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친구 문물의 공존이 『소년』지 곳곳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근대적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관철되고 있었기에 근대적 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 과학과 역사지리적 지식이 다양하게 소개되었고, 바로 이런 이유로 과거의 문화적 유산 가운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무관하게 한 자리에 불러나올 수 있었다. 『소년』지가 근대적 인식의 도입으로 과거 전부를 폐기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중국이 ‘지나’로 호명되면서 세계사적 역사발전 도상에서 뒤처지게 된 원인이 분석되기도 했지만, 과거의 유산 전부가 폐기의 대상으로 치부된 것은 아니었다.

한문(漢文)은 태동문화(泰東文化)를 산출(產出)한 중요(重要)한 사상(思想)과 사건(事件)을 기록(記錄)한 것이오 또 장래(將來)에도 다대(多大)히 인문(人文)에 공헌(貢獻)할 사명(司命)을 가진 것인데 더욱 우리나라와는 밀접(密接)한 관계(關契)가 있어 가(可)히 제이(第二)의 국어(國語)라 할만하고 또 가(可)히 귀화(歸化)한 文字라고도 할 것이니我國의 신문화(新文化)도 또한 차(此)에 가수(假手)할 자(者)-다(多)한지라 (『소년한문교실』, 『소년』 창간호, 39쪽)

가령, 태동문화를 산출한 중요한 사상과 사건을 기록한 것인 한문은 장래에도 인문에 공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혁신적 형식 실험과 함께 시, 시화를 포함한 근대 이전의 작품들에 대한 근대적 개작 또한 시도되었으며, 국가를 구한 영웅들이 동서양이나 국가의 차이를 막론하고 대거 소개되었다. ‘신대한은 소년의 것이므로, 이를 흥성케할 존재도 소년시오 이를 쇠망케할 존재도 소년’이라는 정언명제는 『소년』지가 동서양의 모든 지식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근거이자 동력이었다.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소년』지는 세계 모든 지식을 불러 모았으며, 그 지식에 덧붙여있는 이념들을 삭제했다.



## 6. 교과서, 혹은 백과사전식 세계구상

최남선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식 교육을 받고자 했던 영역이 역사지리 분야였음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소년』 지를 통해 전파하고자 한 근대 지식 가운데 단연 압도적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역사지리 분야이며, 『소년』 지에는 지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의 과학적 지식이 다수 소개되었다. 「갑동이와 을남이의 상종」(1, 12호)<sup>(2)</sup>나 「봉길이의 지리」(1, 2, 3, 5, 6, 13호) 등을 통해 달이 뜨고 지는 것과 같은 일상을 과학의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조선의 반도적 성격과 세계사적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쾌소년세계주유시보」(1, 2, 3, 4, 5, 12호)나 「북극탐색사적」(3, 4, 5, 6호) 등을 통해 사회진화와 우승열패를 가르치고, 「해상대환사」(1, 2, 3, 4, 5, 8, 9, 10, 11, 12, 15호) 등을 통해 조선반도를 둘러싼 문화지리적 지식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청년 군(群)을 호명하는 한편 청년 개인의 수양을 강조했다.

‘갑동이와 을남이’로 예를 들며 과학, 지리, 문화에 기초한 근대의 원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소년』 지가 독자로 상정하는 이는 학생-청년이다. 가령, 「갑동이와 을남이의 상종(1)」에서 그들은 ‘대성학교생도-9세에서 15세에 이르는’ 동무로, 서로 대화를 통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사이로 상정된다. ‘처음에는 양인의 교분이 그다지 좋다고도 못하겠더니 갑은 견문으로 을을 이기고 을은 의사로 갑을 이겨 항상 둘이 묻고 대답하고 이르고 듣는 사이에 독특한 재주를 사랑하여 사이가 점점 친근히 되어가는’(『소년』 창간호, 13쪽) 그런 관계로 상정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우는 학생 사이에도 9세와 15세 사이의 ‘가르치고-배우는’ 구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한데, 사실상 이 ‘가르치고-배우는’ 구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년』 지에 실린 글들이 대체로 계몽의 대상을 각성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이야기는 우화가(寓話家)로 고금(古今)에 그 짝이 없는 이솝의 술(述)한 것이라 세계상(世界上)에 이와 같이 애독자(愛讀者)를 많이 가진 책(책)은 성서(聖書)밖에는 또 없다하는 바-이 을미년경(乙未年頃)에 우리 학부(學部)에서 편행(編行)한 「심상소학(尋常小學)」에도 이 글을 인

---

(2) 이하 연재된 꼭지는 잡지의 총 호수로 명기한다.



용(引用)한 곳이 많거니와 세계각국소학교육서(世界各國小學教育書)에 차서(此書)의 혜택(惠澤)을 입지 아니한 자(者)없는 바라- 신문관편집국(新文館編輯局)에서 기일부(其一部)를 번역(翻譯)하여 「재남이공부책(再男伊工夫冊)」 중 일권(一卷)으로 불원(不遠)에 발행(發行)도 하거니와 차(此)에는 매권(每卷) 사오절식(四五節式) 초역(抄譯)하고 끝에 유명(有名)한 내외교육가(內外教育家)의 해설(解說)을 부쳐놓으니 읽는 사람은 그 묘(妙)한 구상(構想)도 보려니와神通(神通)한 우의(寓意)도 완미(玩味)하였고 쉬운 말 가운데 깊고 어려운 이치(理致)가 있음을 찾아 처신행사(處身行事)에 유조(有助)하도록 하기를 바라노라. (『이솜의 이약 제일차』, 『소년』 창간호, 24쪽)

이솜 이야기나 톨스토이의 민화를 소개하면서 종종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하는 바, 이야기에 숨겨진 뜻도 흥미롭지만 그것을 통해 ‘처신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솜 이야기 간행의 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소년』 지가 언어나 자연과학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솜 이야기나 속담, 격언을 소개하는 것은 거기에 수양에 도움이 될 교훈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수양이 몰락해가는 국가를 구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럼에도 앞서 언급했듯이 『소년』 지에 실린 글들의 의미가 ‘교훈’으로 수렴되는 사이에 지식이 담고 있는 원리적 기원이나 이데올로기가 탈각되어버린다는 점을 환기해둘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소년』 지가 가진 교과서적 성격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계몽적 입장을 취하고 ‘가르치고-배우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에 『소년』 지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적 성격을 띠게 된다면, 일본의 정치사상가인 마루야마 마사오가 일본의 근대가 갖는 특징을 지적하면서 언급한 바 있듯이, 바로 그 교과서적 성격으로 인해 『소년』 지에는 연결부위가 전부 삭제된 채로 분화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근대적 지식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버리게 된다. 말하자면 청년을 위한 적절한 교과서가 되기 위해 『소년』 지는 동시에 가치와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지식의 창고가 되면서 백과사전식 구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 백과사전식 구성은 『소년』 지가 현실 정치의 실제적 국면들과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알리바이가 된다. 가령, 러시아를 중흥시킨 페터대제에 관한 지식을 ‘세계독본’에서 『소년』 지로 옮기는 대목- 갑오년 이후 우리와 가까워진 나라라는 소개와 함께 지리적 특색, 땅의 크기나 인종 등 지리적 특색을 중심으로 한 소개-「소년사전」 1, 『소년』 창간호)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년』 지는 ‘신국가

건설'이나 '신문화건설'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서 지식의 소개에 주력하는 동시에 바로 그 목적을 앞세움으로써 점차 현실 정치적 맥락을 삭제한 백과사전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만들어진 『청춘』지를 통해 보다 뚜렷하게 확인된다.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진 경화된 지식의 집적이 청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야기하는지에 관해 『소년』에서 『청춘』으로 나아간 이 경향은 적지 않은 통찰의 지점을 시사한다.



<『청춘』 표지>

# ‘취미’와 ‘계몽’, 여성 대중을 불러내다<sup>1)</sup>

김수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04

### 1. ‘신여성’/『新女性』, 괴담 혹은 부활

1920년대 이후 식민지조선에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상식이다. 나혜석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선각자로 재조명하여 기념사업을 만들고, 모던걸, 모던보이라는 말이 영화 제목에도 등장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여성은 과거 일본군위안부 문제만큼이나 망각과 부인(否認)의 지대에 있었다. 신여성은 유별난 여성 몇몇의 스캔들, 또는 스산한 삶과 불행한 죽음으로 기억되는 괴담에 불과했다. 신여성현상은 한국의 공식적 집합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사건이다.

한 때 역사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당대 잡지 몇 권만 들춰보면 도처에서 발견되었던, 단지 한 두 여성의 스캔들로 축소할 수 없는 사건이다. 신여(자)성이라는 말, 신여성을 지시하는 사진과 만화, 길거리를 활보하는 통치마와 양화(洋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실려있는 『新女性』은 느닷없이 나타나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존속했다. 이런 말들, 이미지들, 소문들, 감론을박, 질투와 비난, 유행의 강도와 지속성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이 현상은 1920~30년대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얼핏 보면 이는 조선이라는 땅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것으로

(1) 이 글은 줄재 『신여성, 근대의 과잉』(2009)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사용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그리고 멀리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식민지와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관계와 전지구적인 규모에서 벌어지는 문화 교류가 얹히며 나타난 현상이었다. 많은 설명과 해설이 있어야 할 논제이나, 여기서는 잡지를 매개로, 그 중에서도 『新女性』이라는 잡지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며 우리 사회가 겪은 근대 경험의 복잡다단함을 엿보고자 한다.

## 2. 잡지의 시대, 열정의 시대 : 『新女性』의 출원

19세기 말 개항과 더불어 조선의 지식층은 식민지사회를 야만과 암흑으로 규정하는 문명개화(文明開化)의 에피스테메를 수용하였다. 일본의 무력과 폭력에 의해 식민지로 병합됨으로써 조선사회는 현실적, 상징적 거세를 경험한다. 1910년대 말 일본유학을 통해 형성된 신지식층은 조선을 부정하고 문명화시킴으로써 이 거세의 족쇄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제한적으로 열리게된 담론장을 문명개화의 대중적 계몽의 공간으로 삼고자 했다. ‘잡지의 시대’라고 일컫는 1920-30년대의 물결은 잡지를 문명개화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신지식층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이러한 잡지를 구독하는 독자층과 필자층의 확대가 맞물려 일어났다.

하지만 잡지의 물결은 식민지의 것이었다. 출판산업 기술과 자본을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필자층과 독자층의 규모가 클 만큼 교육제도를 확대하지 않았으며, 잡지를 출간하는 한국 자본은 대개 유통업을 겸해야 할 정도로 영세했다. 그리고 원고 사전검열과 납본 검열의 이중검열을 거쳐야 하는 식민지의 억압적 검열제도가 버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년 이후 잡지, 그 중에서도 여성잡지의 창간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1920년대에 창간된 잡지가 18개이고, 1930년대에 창간된 잡지가 15개였다. 이 잡지들 중 세 번 발간하고 중단되는 이른바 ‘삼호(三號)잡지’의 신세를 면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1920년대에는 동경 여자유학생 친목단체의 후원으로 간행된 동인지인 『女子界』(1917-1921; 1926-1927, 통권 11호), 이화학당 관련자들의 지원을 받은 『新女子』(1920, 5호), 개벽사가 간행한 『부인』(1922~1923, 14호)과 『新女性』(1923~1926; 1931~1934, 통권 71호)를 꼽을 정도다. 1930년대에는 속간된 『新女性』과 여성조선사가 창간한 『여성조선』(1930~1932, 통권 27호), 그리고 신문 자본이 뛰어들어 출간한 이른바 신문잡지들로 동아일보사가 낸 『신가정』(1933~1936, 통권 45호)과 조선일보사가 낸 『여성』(1936~1940, 통권 57호)을 들 수 있다.

사실 여성을 독자로 하여 여성들이 읽을 기사를 특화한 ‘여성잡지’가 등장한 것은 1900년대 계몽기 때부터이다. 여자교육회와 자선부인회의 회지인 『여자기남』과 『자선부인회잡지』, 조선여자교육협회 기관지인 『女子時論』, 근우회 기관지인 『근우』가 있었고, 특별히 기생과 여급 잡지를 표방한 『장한』, 『女聲』같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1,000부 이상을 발행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 여성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는 상품으로서의 잡지 시장이 형성된 것은 1920년대의 물결 속에서였다.

여성을 지목하는 여성잡지의 등장은 당시 일본 잡지 출판의 전문화와 분화 그리고 대중화를 그 주요한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900년부터 여성잡지와 종합잡지가 속속 창간되어, 1920년대 『主婦ノ友』, 『婦人俱樂部』, 『婦人公論』 등 주요 여성지 전체의 발행부수가 수십만 부였고, 1925년 대중지 『キング』 하나 만으로도 독자 수 1백만 부를 상회하였다. 이 일본 잡지들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조선인 식자층들이 구독하는 대상이었다. 특히 조선인이 구독한 일본 여성지는 1926년 150여부였다가 1935년에는 3천9백여 부가 되었다. 조선의 식자층이 잡지와 신문을 비롯한 일본어 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근대지식과 사상 및 신문화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일차적으로는 조선 출판물의 내용과 다양성이 현저히 낮아서 식자층이 얻고자 하는 근대 지식과 학문의 다양한 분야를 충족 못시킨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근본적으로 식민지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무정부주의나 극우친황주의를 제외하고 좌우를 막론한 정치사상의 서적이 출간되었다.

이에 비해 식민지 조선의 출판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제국주의 본국과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엄격한 검열제도, 그리고 열악한 자본, 그리고 적은 식자층으로 인해 출판 분야의 독자적 발전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 조선의 영세한 출판 자본과 신지식층이 출판 시장에 뛰어들어 우리말로 된 잡지를, 그것도 월간지를 간행하겠다는 출사표를 내는 것은, 사명감이 깃든 열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헌신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결국 지속적인 잡지 출간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자본의 힘이였다. 개벽사 처럼 종교 조직에 기반을 둔 문화운동 자본이라던가, 신문자본이 만든 잡지들이 오래 지속되었고,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新女性』이 창간되고 개벽사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발간을 이어나가며 조선의 사회문화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1910년대가 길러낸 사람들과 잡지 출간의 경험이 중요한 힘이 되었음을 강조해야 한다.

1910년대 일본에 고등교육을 받으러 유학한 조선인 남녀 학생들은 일본 다이쇼기의 다양

한 자유주의 이념들과 인권론을 열성적으로 흡수하였고, 그 결과물을 잡지 출간에 담고자 했다. 1914년 도쿄 조선인 유학생 잡지인『學之光』이 창간된 이후 이 잡지에는 여성문제나 가족문제가 종종 다루어져서 나혜석 등이 여성해방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수필을 기고하기도 했다. 이후 1917년 창간된『女子界』는 도쿄에서 발행, 인쇄하여 경성에 이입되어 광익서관과 광명서관 등에서 판매되었다. 70면 내외의 지면에 15전에서 40전 가격으로 약 1,000부 정도 발행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1910년대 말 여성잡지가 발행되지 않던 조선 여성들에게『女子界』는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하는 계몽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재정과 편집, 그리고 필진까지 모두 여성들이 만든 것은 1920년 3월 창간한『新女子』가 최초이자 유일했다. 이화학당의 선교사 뽀링스 부인이 발행인이고, 편집인은 일엽 김원주였다. 이 잡지의 창간을 위해 일본 ‘청담회(靑潭會)’를 본따 만든 모임에 나혜석, 박인덕, 신줄리아, 김활란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월간지로서 시작한 이 잡지는 5호로 마감하고 만다. 이렇듯, 재정적 뒷받침과 필진의 부족 때문에 여성잡지 발간은 오래 존속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부터 新女性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지속시키고 증폭시킨 것은 개벽사에서 발행한 여성잡지『新女性』과 삼천리사의『삼천리』, 개벽사의『別乾坤』<sup>2)</sup> 같은 종합대중지가 맡게 되었다.<sup>3)</sup> 1910년대 일본유학을 간 여성 및 남성 지식층이 조선에 돌아와 학교와 문화계 등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러한 잡지들의 필진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보면, 개벽사가 만든『新女性』은 한편으로는 1910년대 후반 신지식층이 출간하였던 잡지들의 이념을 이어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여성해방사상을 표방하는 성격 보다는 더 광범위한 의미의 계몽지로서 성격을 펼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벽사는 1923년 9월『新女性』을 창간하여 1926년 정간할 때까지 31호, 그리고 속간된 1931년 1월부터 1934년 8월까지 30호, 통권 71호를 출간하였다.(정간 시기에『別乾坤』의 ‘여성란’에 잠시 셋방을 내고 있었다). 1920년대『新女性』은 국배판 80여면 분량의 월간지로 가격이 30전이였다.『開闢』이 평균 190면에 50전,『어린이』가 50면에 10전인 것을 생각하면 지면 수에 비해 약간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속간호를 내면서는 발행부수를 늘여 100~150여 면에 20전으로 가격을 내렸다.

『新女性』의 발행부수는 최저 2천부에서 최고 4,5천부 사이에 있었으리라고 추정되고, 발

(2) 『삼천리』는 1929. 6- 1941. 11. 150호 발간, 『別乾坤』은 1926. 11 - 1934. 8. 74호 발간.

(3) 1930년대 중반 신문잡지로 나온 여성잡지들은 신여성담론의 양상이 이미 성립되고 난 뒤였고, 이전만큼의 과급력을 가지진 않았다.



행한 책은 많은 경우 완판되었던 걸로 보인다. 발행한 책이 완판 되었다는 이야기가 편집 후기에서 종종 눈에 띄기 때문이다. 1930년 『어린이』의 평균발행부수가 3만부 이상이고, 『別乾坤』이 3만부, 『학생』이 1만부를 발행한다는 사고(社告) 내용에 비춰볼 때, 신여성의 발행부수는 비교적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문맹률과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인구수, 그리고 잡지를 구독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가진 계층의 범위를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1920년대 초중반까지 전체 조선인구의 9할 정도가 문맹상태였고, 사회적 문식률은 1930년대 이후에야 높아졌다. 중등교육을 받는 조선인 여학생의 수는 1920년대 이후 꾸준히 증대하여 1920년대 중반부터 2천-4천명 수준에 이르렀고, 1938년에 약 8천명이 되었다가 1942년에는 1만2천여 명까지 늘어났다. 1944년을 기준으로 교육경험자는 여성의 경우 11%였고, 이중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약 3만7천여 명으로 여성인구의 0.3%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는 3천6백여명(대학 졸업자는 102명)으로 0.02%였다. 1930년에도 일본어와 한글 모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6.78%(여성 1.9%)에 불과했다. 따라서 신문과 잡지의 구독부수는 조선내일본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었다. 이는 당시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는 층이 조선에서는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층이었음을 의미한다. 소수의 지식인과 학생층이 구성하는 제한적인 공간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대중잡지를 표방한 잡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적어도 1930년대 초반까지 종합잡지이건 여성잡지이건 실제적인 구독층은 그리 두텁지 않았다. 따라서 잡지의 지향성은 그것이 오락적 기능을 표방하는 대중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계몽성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 3. ‘부인’에서 ‘여성’으로: 여성잡지와 계몽

『新女性』은 ‘부인’ 대신 새로운 신조어인 ‘여성’이라는 말의 등장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성’은 남성에 대비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로 여겨지지만, 이 용어는 없던 말의 생겨남이요, 새롭게 부과된 역할과 정체성의 출현을 알려준다.

개벽사는 『新女性』 창간호에서 자신들이 이 잡지를 1922년 창간한 『부인』의 후신으로 개제하여 창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표지 여성의 모습은 이전의 『부인』에 실리던 그 ‘부인’이 아니다. 쪽진 머리에 고운 한복을 입고 다소곳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런



<『신여성』 창간호 표지>

부인이 아니다. ‘新女性 創刊號’라는 두툼한 활자가 박힌 잡지 표지에는 양화(洋靴)를 신고 긴 셔츠의 흰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은 채 머리를 뒤로 묶은 여성이 꽃을 들고 서있다. 김기전은 이 창간호에서 “신여자란 칭호에 포괄된 신여성”이 “적어도 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 정도 이상의 학급에 재학하는 여자며 또는 보통학교를 위시하여 각종의 학교에나 강습소이나 또 혹은 유치원에 교편을 잡은 여러 여자”로, “직접으로 전문으로 사회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기로 작정하고 국내국외에서 분투, 진취하는 여자”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발행인 박달성은 여성잡지의 제호를 바꾼 이유를 “옛적에 보지 못하든”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고, 새로운 여성을 창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신여성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한다.

---

사람성 원리에 의하여 새로 새여성을 짓자. 새로 새여성이 아니라 본래의 사람성 곧 본래의 여성 자유요 평등이요 존귀요 독립이요 무한히 발달, 영원히 존재하는 그- 성(性), 그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여성(新女性)은 나왔다.

---

개벽사의 발행인들이 부인이라는 말과 여성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부인’을 새 시대에 발맞춰 “의당히 보낼 것”, “시대

지(時代遲)의 그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불과 1년 전 창간했던 『부인』과 새로 맞이할 『新女性』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부인』은 1900년대 식계몽론 속에 배치된 여성이다.

19세기말부터 1920년대 초까지 문명개화의 열정적 에토스가 전개한, 구질서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의 중심에는 가족제도가 있었다. 가족적 질서의 재편은 ‘문명개화’한 민족 또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서구적 근대 이념을 수용함에 있어서 개화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의 나라를 건설함을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천부인권론이나 자유와 평등의 관념, 남녀평등론, 진화론과 우생학 등 다종다양하고 상호갈등적이기도 한 여러 이념들은 우생열패와 부국강병의 논리를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또는 강조점을 달리하여 수용되었다. 이 선택과 변형의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바로 가족-여성이었다. 따라서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덕목에 대한 논의는 가족-국가의 질서라는 틀 안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되었고, 여성계몽과 교육의 필요성 또한 문명국 건설과 국민의 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주창되었다.

그리하여 1900년대에 출간된 대부분의 여성지는 유교적 덕목과 근대적 규범의 공존과 선택적 접합을 제시하였다. 최초의 여성잡지인 『가정잡지』의 어떤 논설기사에서는 자식을 부모만을 위해 봉사하는 소유물로 보지 말고 사회의 일군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시부모 봉양과 희생적인 어머니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고 계보를 달리하는 주장이 이렇게 병존하는 것은 이시기 펼쳐진 여성계몽과 여성교육론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 가족개량론은 종래의 가문-신분-젠더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이를 새로운 국가적 원리 속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어머니와 부인으로서의 여성이 이 가족-국가적 재편과 접합의 담당자로 위치지워진다. 또한 『녀자지남』이 제시한 여성론에는 유교적 덕목과 일본의 양치현모 이념이 충돌없이 섞여있다.

---

가정이 화목함과 녀자를 선량하게 인도함이 다 주부의 책임이라(...)이 지남을 보실진대 여러 가지 리(利)함이 있을지라 첫재는 조흔 학문을 배아 지식이 발달할 것이오 둘째난 학문이 잇스면 고명한 부인이 되어 명예가 잇을 것이오, 셋재는 치가하는 법을 알아 능히 일가와 친척간에 화목할 것이오 넷재난 자녀를 잘 교육하야 규규무부와 현현장부와 요도숙녀를 잘 양성할지라. 남아가 되면 곳 국가간성지재될 것이오 여자가 되면 문명의 현모가 될지라(...)그 자손의 어진 불초함이 그 모친에 잘하고 잘못함에 있는지.(...) (리괴영, 「축사」, 『녀자지남』 1호, 1908, 24쪽)

---

일가친척을 화목하게 다스리는 ‘치가’는 유교적 덕목이라면, 국가의 재목인 남자와 미래의 현모를 기르는 ‘현모’와 ‘가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주부’는 일본의 양처현모이념과 용어이다. ‘가정’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었으나 부부중심적 단가형태나 애정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개벽사의 『부인』은 이러한 계몽기의 여성교육론을 잇고 있었다.

부인잡지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달에 한번씩 발행하여 (중략) 신구의 사상충돌을 조화하며 로소의 분쟁을 화해하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연락하여 부모된 이로 하여금 자녀 가르키는 길을 알게하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시킴을 바들줄 알게하며 시부모로 하여금 며느리 거나리는 법도가 있고 며느리로 하여금 시부모섬기는 도리를 알며 남편이 안해를 사랑하는 길수를 알고 안해가 남편따르는 본정을 알아 시모로써는 자애로 그 며느리를 거나리고 안해로써는 그 남편을 절조있게 따르며 며느리로써는 그 시부모를 효도로써 섬기고 주부로써는 그 가명을 규모 있게 다스리며 남의 부모로써는 그 자녀를 뜻있게 길러서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는 효성과 자애가 가득하고 안해와 남편사이에는 부창부수의 노래가 높으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의 우습이 끈어질 때가 업서 사시로 봄바람이 가득한 가명에 화락한 우습소리가 네 이웃을 울니며 건전한 가명을 우리 이천만이 다가지게 되면 우리 민족적 처지가 어떠한 지경에 있더라도 우리의 압길을 희망의 빛이 찬란할 것이요. (『창간사』, 『부인』 창간호, 1922년 6월)

박달성과 김기전은 『부인』에서와 달리 1920년대 초 여학교 출신을 지칭하는 칭호로 쓰던 ‘신여자’라는 용어에 사회적 책무를 더 강조하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천도교식으로 표현한 ‘사람성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여자’라는 말이 ‘新女性’에 앞서 자리잡은 용어를 대체하지는 못했고, 신여성과 신여자는 호환될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어쨌건, 개벽사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상 독자층과 그 지향점을 상당히 조정한 것은, 1910년대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지식층과 그들의 영향력이 확산되어간 사정을 반영한다. 이들은 다이쇼데모크라시의 이념과 생활양식, 미감, 정서를 흡수했고, 이를 조선사회의 계몽활동에 연결하고자 했다. 특히 자유연애와 남녀평등 같은 인권론, 그리고 신문물의 향유였다. 『新女性』의 편집은 곧 새로운 세대, 즉 방정환과 차상찬에게 넘어갔고, 1926년부터는 여성 기사를 뽑아 기사를 작성하고 논설을 기고하기도 했다.

『新女性』의 편집방침은 계몽성과 대중성을 결합하는 데 있었다. 일본의 여성잡지계는 정론지와 대중지로서 성격과 독자층을 확연히 구분하여 성장하였던 데 비해, 『新女性』은 두 가지의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고자 했다. 요컨대 『新女性』은 계몽이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원칙 하에 여러 사상적 조류를 끌어들였고, 보통학교를 나온 정도의 학력부터 여학교출신에 이르기까지, 또한 농촌과 도시, 여학생과 결혼한 부인을 함께 아우르는 독자층을 겨냥하였다.

『新女性』의 독자층과 독자들의 반응은 단편적으로나마 독자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新女性』이 독자란을 만든 것은 1926년 6월이다. 10월 정간 때까지 「회화실」이라는 제목으로 실었고, 속간된 뒤에는 1931년 6월호부터 1933년 2월호까지 「여인사론」[살롱의 표기-필자]이라는 제목으로 일반 독자들의 감상과 문의 내용을 편집부의 답변과 함께 실었다. 독자란에 소개된 독자들의 지역적 분포는 전국에 걸쳐있고 나아가 해외를 아우르고 있다.

---

고국의 여러분 언니들! 내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다운 고국을 떠나 외로히 만주별판 한구석에 와서 외로히 지냅니다. 다달이 우리 『신녀성』을 통하여 고국의 소식을 듣고 고국의 사정을 알게될 때 눈물나게 본지가 반갑고 감사합니다. 외로운 곳에서 고국의 잡지를 보는 맛! 과연 정신에 위로를 줌이, 여간이 아닙니다. 만히 사랑하여 주십시오. 저도 잇다금은 이 회화실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내내 근강하소서. (만주 윤정신, 「회화실」, 『新女性』 1926년 10월)

여기는 미국 상항(桑港)입니다. 이곳에도 신녀성을 읽는 독자가 펍이나 만습니다. 나도 그중에 한사람입니다. 신문도 넘지만 잡지 그중에도 녀성잡지는 비교적 적은데다 신녀성만한 잡지는 전혀 업드군요. 체제로보나 내용으로 보나 참말이지 꼭 끼고 단이고 심힐만치 어엿브고도 고흔 잡지입니다. (미국 상항 이 마리아, 「여인사론」, 『新女性』 1932년 9월)

---

여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서 시골로 내려가 사는 여성들에게 『新女性』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높았다.

---

나는 이태전에 서울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도라와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스나 적막한 시골에서는 다만 친동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가요. 말할 것도

업시 이 ‘신녀성’ 잡지인데 언제나 고적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기는 사람보다 이 잡지입니다.(순천, KY생, 1926년 8월)

저는 원래가 농가의 생장임으로 소위 XX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역시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본지를 손에 쥐고 동무삼습니다. 모기만튼 녀름 밤에도 위로를 만히 바뒀지만, 쓸쓸한 가을밤에도 위안을 바듬이 여간이 아니나 눈싸인 겨울이 되면 그야말로 저의 동무는 『신녀성』밖에 되야 줄이가 업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섭섭한 것은 향촌부인에게, 적당한 기사가 업슴이올시다. 다만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실 수는 업스시겠습닛가.(남원, PC생, 1926년 10월)

간호부, 여직공처럼 도시에 나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젊은 여성들, 보통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가정부인인 여성들도 『新女性』의 독자였다. 이들에게 『新女性』은 읽기에 약간은 어렵지만 세상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고 근대지식을 접하게 해주는 통로였다.

기자 선생님! 저는 시내 어느 병원의 간호부로서 매일매일 더웁고 피로한 속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로의 근무를 끝내고 나와서 빈약한 책상머리에 향하여 신녀성 잡지를 대할 제 꺾이는 즐거움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만일 이 신여성이 우리 조선에 업다면 참말 우리 여자들은 무엇으로 눈과 마음의 위로를 줄가요. (원남동 일 간호부, 1926년 8월)

가난한 실직자이던 나는 나의 유일의 위안물이던 신녀성을 읽을 특권조차 일허버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이곳 제사공장에 취직하고 하로에 삼십전식 받게 되었습니다. 내손으로 버는 돈 그 돈으로 이번부터 다시 나의 제일 사랑하는 동무 신녀성을 힘안드리고 사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가튼 학식업고 돈업는 열심한 애독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둡니다.(대전 박순오, 1932년 8월)

저는 시골 구석에 있는 참으로 이름업는 일여성이올시다. 다달이 신여성 한권으로 요새의 새 호흡을 맛보고 지내는 형편입니다. 다달이 책을 정기에 내여주셔서 너무 책나오기 기다리에 속태우지 안게 하여주십시오. 제발 특청입니다.(안악 일소녀, 1931년 7월)



자신을 ‘무식쟁이 부인’, ‘참으로 이름없는 일여성’, ‘교양없는 시골처녀’, ‘천진덕이 여자’, ‘무식한 구녀성’이라고 일컫는 이 여성들은 『新女性』을 ‘요새의 새 호흡’을 맞볼 수 있고 여고보에 가야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매체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잡지가 도시의 유한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다. 한자나 생경한 단어들은 이들의 글읽기를 낙심하게 만들었고, 잡지가 다루는 기사の内容은 그들의 생활과 관련이 없고 또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다.

저는 10월호부터 신여성 애독자인 무식한 구녀성이외다. 그런데 신여성에 기재되는 기사는 다 -조코 유익하오나 우리가타 국문이나 아는 무식한 여자는 좀 낙심이 듭니다. 구식가정에 시집 사리하는 경로며 그악한 시누이들을 지도할 만한 기사를 좀 써주십시오. 구식가정에서 지나는 며누리의 남몰으는 서름을 신녀성에서 써주서요. 서어머니가 며누리를 사랑하고 시누이가 올 케의 흥을 싸주는 가정을 신여성에서 만들어주서요.”(강원 김화 전명자, 1932년 12월)

편집자가 선별하여 실은 기사임을 감안해야겠지만, 만주와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경성에서 남원에 이르는 지역과 여러 직업 계층을 망라한 독자들이 직접 쓴 글들은 당대 글을 깨우친 정도의 여성들이 경성에서 벌어지고 있던 새로운 문물과 생활양식을 둘러싼 논란과 소식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이해를 심화하고 판단을 정립하고자 하는 열망을 엿보게 해준다.

#### 4. ‘취미기사’, 계몽적 대중화의 기치

『新女性』이 추구한 계몽적 대중화의 지향은 기사의 종류에서 표현된다. 눈길을 끄는 기사종류는 단연 ‘취미기사’이다. 『新女性』에서 ‘취미기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4년 12월호 사고(社告)에서이다. 하지만 이 사고에서 취미기사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별다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취미’라는 용어가 당시의 출판문화계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익숙하게 알려진 용어임을 시사한다. ‘취미’는 당시 일본에서 불고 있던 ‘취미’ 증진, 교양의 대중화 운동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취미와 상식’을 표방하는 대중적 교양잡지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개벽사가 『개벽』이 강제 폐간 되자 서둘러 창간한 『別乾坤』

은 무용, 음악, 활동사진관, 박물관, 동물원, 극장에 이르기까지 서구에서 들어온 신문물과 신문화활동이 ‘일부인사의 독점적 향락 기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무산대중을 위한 문화운동의 가치를 창간의 정신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경향에 서있는 사람들은 대중적 교양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취미’ 잡지를 ‘저급취미, 오락, 열정’에 중심 안목을 둔 ‘잡색잡지’라고 폄하하고 비판하였다. 이들의 눈에 『別乾坤』은 ‘저급취미잡지’의 일등이며, 『삼천리』는 『別乾坤』의 위세가 누그러들면서 뒤미처 나와 오르막을 달리는 취미경향의 잡지이고, 『新女性』, 『여인』, 『만국부인』 같은 잡지도 마찬가지로 계급적으로 “뿌르의 미인계 또는 낭자군”에 불과한 잡색잡지이다.

취미기사는 『新女性』 전체 기사 25%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실상 취미기사는 新女性 담론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여성과 관련된 이야기와 주제에 관심을 증대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 거리 자체를 새롭게 창출하고 증폭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취미기사란 무엇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읽을거리들로 이뤄져있었나. 이경돈은 당시 일반적인 글쓰기의 장르로 정의하기 힘든 읽을거리들, ‘수기’, ‘실화’, ‘애화’, ‘비화’, ‘사실담’, ‘만문’, ‘한담’, ‘정탐기’, ‘탐사기’, ‘암행기’, ‘야담’, ‘전설’, ‘일화’, ‘괴담’, ‘기담’, ‘사화’, ‘설화’ 등의 표지를 앞세운 ‘관습적 양식군’을 ‘취미독물’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sup>4)</sup> 『개벽』에서 일부 나타났고 『新女性』에서 주요한 장르로 존재했으며 『別乾坤』에서 본격적으로 정착한 취미기사의 주요 필자들은 개벽사의 핵심 편집진이자 주요 필진이기도 했다. 이 글들은 대개 필명으로 저자를 밝히고 있지만, 그 중 많은 글들이 박달성, 이돈화, 방정환, 차상찬 등의 것이었다.

취미기사는 그 관습적 양식과 발화형식에 따라 기록서사, 야담류, 콩트류, 격언류로 구분할 수 있다. 기록서사란 단적으로 경험과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허구)를 일컫는다. 이것은 허구(소설)와 사실(수필)이 뒤섞여 공존하는 1920년대의 서사양식을 일컫는 것으로 실제의 경험을 이야기하되 기록자에 따라 허구적 관계를 가감하는 특징을 보인다.<sup>5)</sup>

야담류는 전설과 설화, 역사적 사건에 얽힌 이야기인 사화(史話) 등을 소재로 한 읽을거리이다. 대표적인 필자는 『別乾坤』의 발행인이자 방정환 사후 『新女性』의 발행인인 차상찬이다. 그는 『新女性』 초간호에 「역대명부인열전」과 「천하괴미인 도화랑의 연어」를, 이후에는 역사속 인물에서 당대 인물까지 ‘열전’ 시리즈 등을 실었다.

콩트류는 콩트와 만화로, 초간호보다는 속간호에서 더 빈번하게 또 많이 게재되었다. 콩

(4) 이경돈, 「『別乾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46호, 2004.

(5) 최수일, 「『개벽』 소재 ‘기록서사’의 양식적 기원과 분화」, 『반교어문학회』제14집, 2002.

트류는 대부분 무서명이거나 편집부, 또는 팔면경, 월견초, 한강, 논개, 오이생, XYZ, 관상자 같은 필명의 작품들이다.

격언류는 세태에 대한 풍자적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록서사와 비슷하나 ‘읽기 계약’에 있어 실화나 실재에 기초한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격언류는 격언과 처세담으로 나눌 수 있다. 격언은 속담이나 외국유명인사의 말, 성경이나 책의 경구 등을 모아서 낸 것으로 창작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책을 인용하고 발췌한 것들도 많다. 처세담은 행동의 매뉴얼을 제공하는 짧은 글이다.

## 5. 번역과 변안의 근대/‘모던’을 담다

문물과 제도 그리고 이념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언어의 변환과 수입을 동반한다. 서구적 근대화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외래어의 범위와 가짓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서양의 사상과 이념을 동아시아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일본에 의해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이뤄졌었다. 구한말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를 받아들였고 따라서 19세기말에 이르면 이미 국가, 가족, 개인, 연애, 자유, 등과 같은 번역어들은 신문과 학회지에서 흔히 쓰일 만큼 익숙한 것이었다. 1920년대 들어 생겨난 대중적 활자 매체들이 벌인 주요한 일의 하나는 이 다양한 범위의 수많은 외국 어휘들을 해설해주는 것이었다. 서구의 과학, 정치, 역사, 기술 분야에 사용된 어휘들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여성의 중등교육과정은 인문, 철학이나 시사, 정치를 다루지 않았기에 지식의 폭이 작았다. 더욱이 사회주의 사상처럼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용어들이나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을 지시하는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잡지는 세간에서 유행하는 폭넓은 인문, 정치 및 시사 어휘들의 교재이기도 했다.

1920년대 후반 잡지들에는 ‘모던’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등장했다. 『別乾坤』 1930년 1월 호에 실린 임인생의 「모던이즘」은 당시 대중문화적 유행현상이 서구에서 발원하여 일본을 거쳐 조선 등으로 퍼져갔음을 지적한다.

모던? 모든 것이 모던이다.

모던결 모던뽀이 모던대신 모던왕자 모던철학 모던과학 모던종교 모던예술 모던자살 모던극장

모던스타일 모던순사 모던도적놈 모던잡지 모던연애 모던건축 모던상점 모던기생 (...) 무제한이다.(임인생, 『別乾坤』 1930년 1월호)

윗글의 필자에 따르면 이렇게 ‘모던’이란 말이 모든 곳에 다 쓰임에도 불구하고 “모던이 무엇이나? 하면 대답을 못한다.” 모던이란 말의 자구적 의미는 ‘현대’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모던이 당대라는 의미의 ‘현대’와 동일한 의미와 정서로 이해되지 않았음을 이 필자는 날카롭게 인식했다. “모던결이란 말이 현대양 혹은 신여성이라는 말과 동일한 정조를 가지고 동일한 리듬으로 울리는가? 아니다.” 이 필자는 ‘모던’을 현대를 말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20세기 초 당시를 일컫는 고유명사라고 단언한다.

하나의 잡지 안에서 비평가들의 논설은 당시 동경의 신문물과 서양풍의 유행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설파하였다면, 에세이에서는 오히려 그에 대한 동경을 표현해준다.

“‘캘피스’는 초연의 맛이라-고 말하나 ‘아이스크림’이야말로(...)햇바닥을 짜릿하게 하는 순간으로부터 점차로 된 입속의 미각신경을 사르르 감돌고 고희시키며 사라져가는 그 신비로운 맛! 그것은 인간에게 허여된 최선의 쾌락의 하나이다!” (이석훈, 『新女性』 1933년 6월호)

또한 다른 한권에서는 신문물과 서양풍을 담은 외래어에 대한 친절한 소개가 있다. 『新女性』에는 ‘모름말 사전’ 이나 ‘유행신어사전’ 처럼 외래어 및 한자어의 뜻을 풀이해준 사전이 꾸준히 실리는 편이었는데, 1931년부터는 ‘모던신어사전’, ‘모던유행어사전’, ‘모던어사전’, ‘유행어사전’, ‘신어사전’, ‘모던딕슈나리’ 등의 이름이 번갈아 나오고 있다. ‘모던어사전’류는 당대에 구미와 일본에서 쓰이는 외래어라든지 조선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나 은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5년 『新女性』에 몇 회에 걸쳐 연재된 「모름말 사전」은 한자어, 영어외래어를 함께 풀이하였다.

鑑賞, 카부, 카-드, 까운, 카쉬미야, 카메라, 간이생활, 카렌다, 感情教育, 컨닝, 戲曲, 脚本, 씨-타, 氣分, 캐피테리스트, 쿨피드, 近代思想, 近代人, 쿼(Queen), 쿡, 크라스, 코세트

(Corset), 코코아, 國家主義, 쏘십, 코스모포리텐, 個人主義, 컴뮤시온(Commission), 코닥, 國民性, 概觀, 코러스, 세임, 그룹, 카롤(Carol), 具體的, 空中郵便, 古典的, 禁慾主義, 기네마(Kinematograph)[활동사진] 기네토폰[발성활동사진], 機關紙, 紀行文, 感想文 (1925년 1월호)

內的, 내튜래리즘(Naturalism), 내슈내리즘(Nationalism), 냅킨, 니코틴, 뉴스, 네오 로 맨티시즘, 노트, 노벨 賞金, 能率(Efficiency), 넷트 프라이스-정가, 니히리즘, 년쎄쓰, 니코 중독, 內觀(Introspection)(1925년 2월호)

라인, 러브, 러브 레터, 樂天的, 陸上巡洋艦, 解釋, 利己主義, 리듬, 理性, 理想, 리본, 루나 파-크, 루비, 으레인 코트, 靈, 靈感, 으레코드, 으레스토렌트(Restaurant), 戀愛生活, 連鎖劇, 론 테니스, 로얄 야기데미, 勞動運動, 露天學校, 로맨스, 레슨, 으레브(Review), 歷史小說, 루네쌍스, 라켓트(1925년 5월호)[아르(r) 발음 앞에 ‘으’를 붙여 표기한 것-필자]

이 단어들의 종류는 대략 세 가지이다. 하나는 ‘근대, 근대사상, 국가주의 개인주의, 이성, 노동운동, 연애생활, 연쇄극’ 처럼 서양의 사상과 제도 및 생활상을 번역한 한자어로 거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들이다. 다음으로는 서양의 문물을 가리키는 외래어로, ‘카드, 기네마, 코닥, 레인코트, 루비, 리본, 러브레터, 로맨스, 리뷰’ 등 보다 직접적으로 서양에서 당대에 유행하여 일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한 문물과 세태이다. 그리고 ‘감상, 이상, 내적(內的)’처럼 해설이 필요한 한자어로 그 수는 많지 않다. 1930년 『別乾坤』에 연재된 「신어(新語)대사전」도 역시 『新女性』의 「모를말 사전」과 비슷한 취지에서 외래어를 사전적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보다 전문적인 철학, 경제, 시사용어나 사회주의 용어를 번역한 한자어나 외래어를 대폭 소개하고 있다.

‘모를말 사전’이 신문이나 번역서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게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면, 이 ‘모던어 사전’은 세간의 유행어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유행어를 적극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응용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조선에서 나타난 사회현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미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이 말들을 퍼뜨리는 효과를 가졌으리라고 짐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던’이란 말은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일본에서 나타난 문화현상을 거의 동시대적으로 상징하는 용어였다. 1920년대 중반까지 철학과 과학 및 정치사상을 한자어로 번역하

여 소개하던 데에서 이제는 일상적 대중문화와 도시의 생활양식을 포착하는 수많은 외래 어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외래어들은 채 번역이 될 틈도 없이 그대로 직수입되었다는 점에서 동시대적이다. 그것은 일상적 대중문화와 도시의 생활양식을 새로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였다.

## 6. 은파리, 단발미인을 미행하다

방정환은 조선의 신여성현상, 잡지『新女性』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방정환은 어린이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로만 알려져 있을 뿐 그의 열정적인 문화운동의 이력에서『新女性』및 신여성과 관련된 작품활동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방정환은 1931년 9월 서른셋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新女性』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했고,『新女性』과『別乾坤』에 주로 여러 개의 필명을 사용하여 신여성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총 67편에 이르는 많은 양의 글을 남겼고 몇몇 연재물은 당대에 매우 인기를 끌었으며 서사양식 면에서도 독창적 경지를 보여주었다. 천도교계를 기반으로 청년 그룹을 만들어 문화운동과 작품활동을 넘나들면서 정력적으로 활동하던 방정환은 1920년 김일엽의 요청으로 유광렬과 함께『新女子』의 창간동인이자 고문 역할을 맡았다. 천도교청년회 일을 맡아 각지에서 강연하던 그는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았고, 그해 9월 일본으로 건너가 토요대학 철학과 청강생이 되었고 다음해인 1921년에는 전문학부 문화학과에 입학하여 이듬해인 1922년 3월까지 다녔다. 방정환이『신여성』의 발행인을 맡은 것은 그가 1924년 일본에서 완전히 귀국하면서부터이다. 1924년『신여성』통권4호부터 발행을 맡은 방정환은 첫 일 년 동안은 전담 기자가 없는 상태에서『新女性』의 편집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였고, 기사도 매호 작게는 두 개에서 네 개까지 담당하였다. 기자인력을 확충한 뒤에도 그는 정기적인 필진으로 한 두 개의 기사를 냈으며, 1923년 창간한『어린이』의 편집을 책임지면서,『新女性』정간 뒤 나온『別乾坤』에도 매호 두 편 여씩을 기고하였다.

이러한 정력적인 활동과 작품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연구에서 방정환이 주목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쓴 필명과 글의 종류 때문이다. 방정환은 여러 개의 필명을 썼다. 1918년부터 소파를 쓰기 시작했고, 1920년부터는 잔물, 1921년부터 목성(牧星)을 사용했다. 그 외 파영(波影), 몽견초(夢見草), 노덧물, 은파리(銀巴里), CWP, CW생, S생, 쌍S, 삼산인, 성서인, 북극성 등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의 필명이다. 그는 이 필명들을 사용하여 개벽사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잡지에 글을 실었는데, 글의 수로 보면 『別乾坤』과 『新女性』에 많이 집중되어있다. 그런데, 방정환이 이 두 잡지에 게재한 글 중에 자신의 이름을 쓴 논설은 거의 없다. 콩트와 ‘풍자만필’, 가십, 실화, 설화, 탐방기사, 창작동화와 번역동화 같은 종류가 많다. 그가 쓴 작품은 논설과 논문만큼이나 신여성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차적으로는 읽을거리의 소재와 형식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초창기 여학교 탐방기사(백합사, 정신여학교, 동덕여학교)를 직접 담당했고, 외국의 재밌는 소식을 소개하였으며 「처녀독본」처럼 당시 출판계에서 쓰이던 ‘독본’이라는 말을 응용하여 근대적인 살림살이의 지식을 계몽하는 란을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방정환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 것은 은파리와 쌍S의 연재물과 콩트물이다. 은파리 연작시리즈의 저자가 방정환임을 처음 주목한 최수일에 따르면, 은파리는 원래 「사회풍자-은파리」라는 제목으로 ‘목성’이라는 필자에 의해, 『개벽』 7호(1921년 1월호)부터 18호(1922년 12월호)까지 7회에 걸쳐 연재된 연작물로 나중에는 제목과 필자가 다 함께 은파리로 불리웠다. 은파리 연작물의 주인공은 ‘불령(不逞) 파리’인 은파리(銀巴里)이다. 이 은파리는 처음 등장할 때에는 ‘보호순사’를 대동한 특수한 파리로 규정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보호순사 없이도 사회 곳곳을 날아다니며 인간사회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 고발하는 존재로 나온다. 『개벽』지면을 통해 유명해진 은파리는 1924년 6월호부터 『新女性』에 다시 등장하였다. 『新女性』에서 내건 제목은 ‘여학생풍자 은파리’, ‘풍자만필 은파리’ 또는 ‘은파리’ 등이었다. 필자명은 1924년까지는 목성이었고, 1925-6년에는 목성과 은파리를 번갈아 썼으며, 1927년부터는 은파리로 통일되었다. 은파리가 『개벽』 연재가 끝난 뒤 『新女性』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은파리 시리즈를 다시 실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은데 힘입어 방정환이 『新女性』의 주간을 맡으면서 독자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던 듯하다.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등장할 때면 『은파리』의 부활 여부를 묻는 독자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이 은파리는 『新女性』 지면에서 소재로 삼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뒷소문이 돌 정도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新女性』에 등장할 때의 호기로움과 달리 꾸준히 연재되지는 않았고 1924년부터 1933년까지 『新女性』과 『別乾坤』에 간헐적으로 몇 회 씩 연재되어 총 13회가 게재되었다. 쌍S는 『新女性』에서 처음 등장하여 『別乾坤』에 많이 등장한다. 미행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해학만문, 또는 풍자만문이라는 표제 하에 쌍S라는 기사를 화자로 하여 콩트적인 구성을 하였기에, 1926년 『新女性』이 휴간하면서 은파리가 사라지고 난 뒤 은파리를 대체하여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잡지 측에서도 정탐기와 콩트의 이 두 기사는 ‘취미기사’의 간판격이었다. “취미기사: 『新女性』의 독특한 편집법에 의하여 매호 광대한 인기를 끄는 취미기

사 은파리 쌍S 일류의 만문도 신년부터 배전(倍前)하야 지상활약할 것입니다.”(「社告」, 『新女性』, 1924년 12월호).

은파리는 도덕적 우위를 선점한 ‘사회적 심판자’의 역할로 설정되어있다. 은파리가 풍자하는 대상은 단발한 여자들, 여교사와 여학생이다. 그들의 연애와 몸치장이 도덕적으로 단죄된다. 1924년 6월에 실린 은파리는 여성들의 단발과 복식의 변화를 남녀평등의식과 무관한 것, 유명세를 타고 길거리의 시선을 받으려는 허영심의 발로라고 비판한다.

옛날에는 (...) 남녀지간은 분명히 머리로 유별한 시대였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였다. 젓가슴이 허-엿케 보이던 짧은 저고리가 뺨뺨에까지 내려오고 그 대신 신발 뒤축을 덮던 치마가 부릅위로 올라가게까지 세상은 변해졌다. 무슨말인지 모르겠스나 남녀평등 남녀평등하고 하나가 소리를 내닛가 모두들 속도 모르고 움겨부르더니 그래 그랬는지 저래 그랬는지 몰라도 녀편네가 머리를 귀밧까지 잘러버리기 시작을 하였다. 엇갠던지 머리로 유별이든 것이 머리로 평등은 된 세음인 모양이다. (『은파리』, 『新女性』 1924년 6월호)

창간호에서 ‘단발미인’은 『新女性』이 보증하는 여학생의 모습이었다.

- (1) 나는 머리를 깎아도 신문잡지에서 단발미인이라는 말이 없어. 그 주리를 기생년들은 온세상이 떠들어도!
- (2) 이 『신여성』에 났는데 왜 그래 응?
- (3) 정말 나더러 단발미인이라고 그랬네. 애고 조아라. (千里駒, 「만화 여학생백태」, 『新女性』 창간호)

하지만 실제로, 1920년대에 보브식으로 머리를 자른 여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발을 하고 나아가 양장 옷까지 입을 수 있는 조선 여성은 1920년대에 매우 드물었다. 은파리의 양장과 단발 비판은 1930년대 찾아올 유행을 한참 앞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은파리의 이야기는 소수의 여성이 시도한 외모를 미리 단속하려는 도덕적 교화의 입장을 나타낸다.

여자는 머리만 깎으면 유명해진다. 단발량이니 단발미인이니 하고 눈지근 신문기자들이 자조 쫓쳐단기는 까닭이다(...) 머리 깎근 멋쟁이의 맵시를 주의해보아라. 귀밑까지 보기 좋게 잘른 머리를 불로 지져서 곱슬곱슬하게 하고 비단 모자에 꽃을 다려쓰고 허리가는 양복을 입고 곱슬흔 구두를 신고나서서 청국녀편네 불질을 거름거리로 아장아장 아장거리면 익크 단발미인이다 단발미인이다하고 길거리의 인기가 원뿔에 물너든다. 여기서 단발미인의 허영심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만족한 미소를 살짝 띠운다. (『은파리』, 『新女性』 1924년 6월호)

은파리는 서구에서 들어온 머리모양과 그것의 유행에 대해 심각히 조소를 보낸다. 이런 논의에서 서양여성의 머리모양이나 복식의 수용이 남성 또는 다른 서양문물과 비교해서 왜 문제인지를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된다. 논의에 앞서 도덕적 단죄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성적 토론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 있다. 이 희화화와 감정적 비난에 흐르는 논리는 서양 여성의 복식을 따라하는 것은 주체적인 사고의 발로가 아니라 단순한 허영심의 발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본질적인 비주체성 또는 의식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암시한다.

은파리로 대표되는 취미기사 중에서 정탐기 형식은 엿보기의 시선과 허구적 가공성을 사실의 차원으로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이 기사들은 그 재현의 방식과 수사학적 전략이 필자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시선을 담고 있음에도 사실적 묘사라는 정당화의 논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논리적 언술형태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논설이 아니면서도 필자가 가지는 계몽의 의도를 구현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러한 엿보기의 시선을 양식화한 풍자글은 ‘신여성’을 허영과 타락의 진원지로 지정함으로써 고정관념 또는 전형적인 상(stereotype)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만들어진 고정관념은 ‘신여성 또는 모던걸은 위선적이고 허영에 들떠있거나 머리가 비어있으며 조선을 우습게 여기고 방종한다’는 것이다. 은파리는 필자인 방정환이 죽은 뒤에도 당분간 그 이름을 유지해야 할만큼 인기있었다. 『新女性』의 대중화를 가능케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이 기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이 계몽하고자 하는 대상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국의 공식 역사 속에서 ‘신여성’이라는 말을 괴담의 진원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 7. 틈새에서 피어난 수다스러움 그리고...

『新女性』의 마지막 호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1934년『別乾坤』광고에 5월호와 6월호의 목차가 실려있지만, 실물로 남아있는 것은 1934년 4월호가 마지막이다. 광고에 나온 바로는 5월호 특집 주제가 ‘양장ABC’이고, 6월호의 생활 정보기사에서는 ‘개성미와 화장’을 다루고 있다. 이제 통치마와 단발은 문명개화의 새로운 주체로서 신여성을 상징하는 기호의 지위를 내어주고 시집가지 않은 처녀의 복장으로 그 외연을 넓혔다. 그리고 양장 만들기과 파마 같은 본격적인 서양식 옷 만들기 방법인 양재 기술이 도입되는 마당이 되었다. 자유연애를 비롯하여 신가정, 남녀평등, 교육과 직업, 성과 육체, 외모와 신문물, 과학과 위생 같이 서양/일본의 근대성과 관련된 사회적 의제들이 다 불려나와 조선의 나아갈 바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그 중심 주체의 지위를 부여받았던 신여성이라는 말은 『新女性』이 종간을 향해 갈 무렵부터 그 힘을 상실해갔다. 자유연애가 단순한 육욕의 연애로 변화하고 통치마가 깡통치마로 놀림거리가 되어가면서, 식민지 조선인이 일상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목격한 신문물과 서양 이념이 절충되고 접합되는 복잡한 과정은 역사의 기억 저편으로 서둘러 묻혀가기 시작했다.

기미년의 봉기가 열어준 거대한 문화통치의 틈새에서 피어난 활기, 열정, 사명감, 흥분, 솔직함, 수다스러움, 개성의 향연을 구가하려던 주체의 짝은, 그 성장을 채 이루기도 전에 다가오는 전시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항하고 모멸을 견디며 만들어질 딱딱한 주체에 게 곁을 내어줄 것이었다.

# 잡지의 표지, 안면성의 정치학

서 유리  
충남대학교 강사

## 05

### 머리말

현대는 이미지 생산과 재생산이 자유롭고 쉬운 시대이다. 이미지 생산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며 몇 가지 기술만 익힌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이미지가 적절하다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어 반복해서 보여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간 단식한 유족 김영오씨의 얼굴을 담은 인상적인 사진은 SNS에서 널리 보여 졌으며 그의 주장을 전파하는 힘을 발휘했다. 페이스북 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서 1인 잡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시대, 이미지는 메시지를 담고 세상을 넘나들고 있다.

근대기 잡지는 오늘날의 SNS와 같은 이미지 생산과 복제의 핵심적인 매체였다. 물론 그 확산의 속도와 생산의 자유로움에 있어서 오늘날의 디지털 인터넷 매체에 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TV가 없고 영화관도 드물었던 때에 신문과 잡지는 최신의 이미지들이 실려서 산포될 수 있었던 중요한 통로였다. 더구나 신문과 비교한다면 잡지는 질 좋은 채색 이미지들이 잡지의 언어와 결합되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었다. 시의적절하게 메시지와 결합된 하나의 이미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행동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잡지의 표지는 당대 지식인의 주장이 이미지와 결합하여 독자와 만나는 역동적인 이미지-담론 기획의 공간이었다. 이 글에서는 잡지의 표지 이미지들을 살펴보면서 근대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인간의 얼굴, 새로운 주체의 이미지 양상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sup>(1)</sup>

## 1. 잡지의 표지, 안면성의 정치학

조선시대 책의 표지는 오늘날의 표지와 그 역할이 다르다. 책의 제목이 쓰여있을 뿐 그 어떤 이미지도 사용되지 않았다. 치자 빛으로 기름 먹여 두툼한 조선시대 책표지는 책의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일차적인 기능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근대의 책 표지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한다. 출판사에서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표지에 세련된 디자인을 얹어 시선을 끌고 메시지를 집약해 전달하는데 더하여 책 자체에 대한 추천문이나 광고문을 써넣기도 한다. 책이 ‘상품’이 되면서 표지는 구매자에게 말을 걸고 자신을 보여주는 전시의 공간이 되었다. 표지가 책을 압축해 드러내는 전시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책의 맨 앞이라는 특권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가장 앞머리, 표지라는 공간은 책에 대한 구매자의 인상을 결정 짓는 ‘얼굴’이다.

근대기 잡지 역시 일차적으로는 상품이었고, 구매자를 기다리는 책으로서 ‘얼굴’을 갖게되었다. 그러나 잡지의 표지는 분장한 채 손님을 기다리는 것에 머무르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서 있다. 강하고 명료한 어조로 되어야할 주체를 제시하는 정치적인 발화를 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이는 잡지가 독서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도 근대화를 수행해나가는 계몽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소년』, 『신여성』, 『어린이』, 『대중』 등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잡지는 특정한 주체화의 기획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한 주체화 기획이 독자들의 시각작용을 통해서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잡지의 표지 이미지는 어떻게 잡지의 주체화 기획을 수행하고, 독자들은 어떻게 표지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을 ‘주체’로 상상하게 되는 것일까. 잡지 표지가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선작용’이다. 즉, 시각을 통한 ‘보기’ 행위를 통해 독자들은 잡지 발행자가 제시한 이미지를 수용하게 된다.

여기서 단순한 바라보기와 시각작용으로서의 보기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눈으로 모든 형상과 이미지를 망막에 받아들이지만, 보여지는 이미지 모두가 보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바라보는 자가 봤다고 생각한 것은 의미(언어)로 조직할 수 있는 이미

(1)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근대의 잡지 표지 이미지 연구」(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013)을 상당부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잡지 표지 이미지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과 이외에 언급되지 않는 잡지 표지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지이며, 이것은 망막에 보여지는 세계의 이미지 전체로부터 걸러내어 구성된 것들이다. 이렇게 의미화된 이미지의 총체, 더 나아가 의미화하는 시각작용을, 전혀 매개되지 않은 ‘시각(vision)’과 구분하여 ‘시각성(visibility)’으로 명명할 수 있다.<sup>(2)</sup> 이때에 ‘시각성’은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 각종의 담론이 개입하는 영역이자 일종의 문화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시각작용의 체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정한 ‘시각성’의 장에 들어가 그 장이 제시하는 주체화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가 조직하는 장이 마련한 주체화의 체계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다시 말해서, 보기의 관습을 익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정한 주체의 관습을 익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소한 이미지 하나를 바라볼 때조차도 시각작용은 이미지 안에 예견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이미지가 기획한 주체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잡지 표지의 이미지는 근대기의 ‘시각성’을 해명하는 대표적인 ‘문화적 구성물’로서, 이를 바라보는 독자들을 특정한 주체 기획이 마련한 관람자의 자리로 착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미지라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주체의 자리를 마련하는 시각작용 속에서 독해된다면, 잡지 표지 위의 이미지는 대단히 강도 높은 주체화의 시각작용을 하게 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기 잡지가 가지는 계몽적인 역할은 새로운 주체를 기획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잡지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잡지를 본다는 것은 잡지의 지식 내용을 습득하고 이용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어떠한 잡지를 본다는 것은 자기 선언과도 같았다. 예를 들어서 『소년』, 『신여성』, 『신소년』 등의 잡지를 읽는다는 것은 독서를 통한 내용의 습득 그 자체보다도, 잡지가 내건 주체의 명명-‘소년’, ‘신여성’, ‘신소년’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이 그것임을 선언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선언은 잡지 발행인이 기획한 주체의 호명에 부응하는 것이다. 발행자는 ‘신소년’,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명명하고 임의의 대중에게 바로 그것이 되기를 요청하면서 이에 합당한 지식, 정보, 가치, 담론을 잡지 내부에 집약했다. 그러한 잡지를 집어 드는 것은 계획한 이상적 주체의 호명을 응낙한다는 선언이자 주체화의 계획을 내면에 받아들이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발행인은 잡지에 주체화 기획에 대한 욕망을 담아내며, 독자는 잡지를 집어 들고 보는 행위를 통해서 그 욕망을 자기 안에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2) 시각과 시각성의 개념을 가지고 서양의 미술에 대해 논구한 저서로는 헬 포스터 엮음,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원저는 Hal Foster(ed.), *Vision and Visuality*, Dia Art Foundation, 1988.

표지위의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가 가지는 시선작용에 더하여 잡지라는 미디어가 행하는 독자에 대한 계몽의 기획 속에서 강도 높은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름 아닌 ‘표지’ 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지’는 잡지라는 체재(體裁)의 충지면 가운데서 특권적인 공간으로 잡지의 얼굴에 해당한다. 모든 책의 표지는 그 책의 얼굴이라 할 수 있지만, 근대 잡지의 표지는 자신의 표지공간을 시선을 통한 의미작용의 공간으로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책의 얼굴에 그치지 않는다. 표지에 시선을 둘 독자를 상상하고 그 시선 속에 적극적으로 ‘안면성’을 구성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이 근대 잡지 체재의 중요한 전략이었다.

‘안면성(visagété)’은 특정한 시각적 이미지가 대상을 주체로서 인식시키도록 만드는 역할을 가리키는 말이다.<sup>(3)</sup>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때, 특히 사람의 경우 그의 ‘얼굴’이 그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시각이미지가 된다. 우리는 그의 손이나 발, 엉덩이의 생김새를 그의 사람됨과 인상을 기억하는 중요한 시각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에 찍히는 것은 다름 아닌 ‘얼굴’ 사진인 것이다. 얼굴은 이름처럼 그를 구별하는 지표가 되는 것을 넘어서 그의 개성과 인격을 집약하여 재현한다고 믿어진다. 우리는 손과 발이 없는 것보다 얼굴이 없는 경우 당황하며 그를 온전한 주체로 인식하기 어려워한다. 요컨대, ‘얼굴’은 그를 하나의 주체로 모아내는 최종적인 봉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안면성’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주체구성에 있어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양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안면성은 단지 얼굴만이 담지 하는 것은 아니다. 얼굴에서 더 나아가 머리모양과 의복의 스타일, 자세, 그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연상시키는 이미지까지도 종합하면 ‘안면성’을 구성하여, 그의 신분, 직업, 직위, 부, 개성 등을 표상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의 집합체가 되는 것이다. 이때에 이 기호들은 같은 문화적 구성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시선작용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모든 책은 표지를 갖고 있지만, 모든 표지가 ‘안면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몸을 관통하는 소리로 문자를 읽고 그것을 말함으로써 군자(君子)가 되었던 조선시대, 서책의 표지는 그 어떤 시각작용도 의도하지 않았다. 책은 그 소유여부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신분을 확증해줄 뿐 새로운 주체의 형상화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근대기, 개인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듯 책은 선택을 받기위해 이미지를 입기 시작했으며, 잡지는 기획된 학습을

(3) 안면성의 개념은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저,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새물결, 2001), 321-363쪽과 이를 해설한 이진경,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2, 495-587쪽 참조.

통해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에 합당한 얼굴을 조직했던 것이다. 역명의 거리에 나서는 개인들이 몸에 안면성을 입혀 저마다 치장하듯이, 물건도 이름과 이미지를 상표로 달고 자신을 특정한 개성으로 분장시키는 시대에는, 책도 얼굴을 만들며 잡지는 자신을 기획된 주체로 분장하여 독자를 견인했던 것이다. 인간과 사물이 이미지로 자기 안면성을 구성하기 시작한 시대가 근대이다.

근대 잡지의 표지 이미지를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주체화 기획과 연관시킬 수 있다. 첫째는 잡지가 스스로를 하나의 기획된 주체로 분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잡지 자신의 주체화 전략이다. 잡지는 표지를 얼굴로 삼아 자신을 특정한 주체로 형성하려 했다. 이때 잡지의 제호를 명기하는 문자와 이미지가 하나의 종합체로서 잡지의 얼굴을 구성한다. 표지는 잡지의 얼굴이며 그 내면을 구성하는 것은 잡지의 온갖 지식과 정보, 내용물이 된다. 둘째, 잡지를 집어 들고 ‘보는’ 독자의 시선작용 속에서 표지 위의 이미지는 독자를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즉, 독자의 주체화 작용이 표지를 바라보는 시선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의 시선작용이 개입된다. 동일시와 대상화이다. 먼저 표지가 제시하는 이미지는 그에 대한 독자의 동일시를 통해서 독자의 자기 표상에 관여한다. 반면 어떤 표지의 이미지는 그를 바라보는 관람자의 자리에 독자를 위치시키는데 이것은 동일시와 반대되는 대상화의 시선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바라보는 대상이 갖는 가치와 의미로 인해서 관람자의 교양, 품위, 욕망 등이 규정된다.

이렇게 잡지가 이미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하나의 얼굴을 갖춘 주체로 분장하고, 이와 동일시나 대상화의 시선작용을 통해서 독자를 의도하는 주체로 이끌어어나가는 활동은 다름 아닌 미디어의 ‘이미지 정치’이다. 잡지 매체는 이미지를 가져와 그와의 동일시를 요구하거나 혹은 특정한 관람자로 독자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원하는 주체로 규율 하고 싶어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는 잡지 매체가 이미 지니고 있는 권위의 힘을 등에 업고 독자의 시선을 끌어들었으며, 역으로 잡지 매체는 이미지가 가지는 특유의 실재화(實在化)의 효과를 동원하여 자신을 매력적 주체로 분장할 수 있었다. 잡지 표지 위의 이미지는 잡지가 독자에게 행하는 계몽의 정치에 있어서 시각적 중핵이었다. 따라서 표지 이미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근대기 시각작용을 가능케 한 문화적 구성체를 분석하는 작업이며 더 나아가 잡지가 구사한 표지 이미지-‘안면성’의 정치학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소년』의 얼굴, 근대의 함정

수많은 이미지가 생산, 재생산되고 있는 현재,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 것일까. 많은 광고들, 보도사진들, 사건과 정치가의 이미지들이 넘실대는 가운데, 정작 올바른 판단을 위해 보고 싶은 그 순간을 볼 수는 없고, 꼭 봐야만 하는 것들은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지가 범람하는 오늘날과 달랐던 근대 초기, 잡지는 어떤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권유했을까. 발행되는 대중잡지란 없고, 몇 백부로 회원들에게 돌려 읽혔던 학회지의 시기, 높은 문맹률로 인해 대중 독자층이 형성되기 이전, 사진이 들어와 조금씩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때였다. 인쇄매체 자체가 귀했던 1890-190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잡지의 표지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미지는 갓 태어난 미완성의 국가, 대한제국의 국가 상징물과 한반도의 지도 이미지였다. 말 그대로 ‘태극’을 내건 『태극학보』로부터 정교한 신식 아르누보(Art Nouveau) 디자인 문양과 조화를 이루어낸 『공수학보(共修學報)』에 이르기까지, 애국심을 자극하는 태극기의 모티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지 위에 놓였으며, 『대한자강회월보』와 『교육월보』에서 보듯 한반도의 현대식 지도는 근대 한국이 갖춰야 할 지정학적 지식을 함축하며 강렬한 붉은 색으로 채색되었다(도 1-2). 대부분 을사조약 이



도 1) 『태극학보』 6호, 광무 11년(1907) 표지,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도 2) 『대한자강회월보』 1호, 광무 10년(1906)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후 급박해진 정세 속에 앞 다투어 내놓은 학회지, 협회지들은 위기에 놓인 바로 그 순간에 국가를 이미지로 불러내어 강박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부재하는 것도 실재화하는 이미지의 힘이 작동하는 순간이었다.

이 국가 이미지들은 잡지가 내건 가치의 최종심급으로서 표지

에 제시된 것이었다. 더 나아가 표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독자와 잡지 자신을 주체화하려는 시도도 보여주고 있었다. 예컨대 『태극학보』의 경우, “태극기를 등에 지고 국민의 사상을 발달코져 하는 자”인 태극보로 자기를 선언하였으며, “홍중에 끓는 피와 강 같은 눈물로 국

민 된 위무를 다하라”고 명령함으로써 표지의 태극기를 대면할 독자를 ‘국민’으로 호명하여 불러 세우려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잡지들의 계몽의 정치는 한계가 있었다. 지식인들 스스로의 얼굴의 형상도, 국민의 이미지도 없이 오로지 국가만이 국권의 위기 앞에서 지식인들의 머리 속을 사로잡아 반복적으로 되뇌어졌던 것이다. 즉, 규율할 ‘국민’의 구상이 없이 ‘국가’만이 호명되었던 이 시기에 잡지는 지식을 모아놓은 ‘雜知’였을 뿐, 기획하고, 선언하고, 동원하는 언론이자 미디어에 이르는 힘들었다. 따라서 이미지 혹은 이미지 적 요소(활자의 크기나 장식적 이미지들)를 단순한 ‘제시’의 상태를 넘어 독자와의 시각작용의 관계 안에서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양상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少年)』의 표지 이미지와 잡지 내부의 시각적 체제는 주목된다(도 3).



도 3) 『소년』 1년 2권(1908년 12월 발행) 표지,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

『소년』은 표지와 내부 체제에 있어서 『소년한반도』, 『야뢰(夜雷)』 등 동시기 유사 잡지와 뚜렷이 구별될 만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가장 큰 차이는 표지 안면성의 적극적 구성이다. 『소년』은 잡지 자신이 ‘소년’으로 분장하면서 주체화하는 시도를 창간호부터 보여주었다. 유명한 『소년』의 표지는 좌우에 잡지 자신을 언명하는 두 개의 선언을 사각박스 안에 넣고 가운데에는 잡지 제목인 문자 ‘소년’에 초록색의 월계관을 씌웠다. 하단 박스의 태극 문양은 동시기 학회지들의 표지를 뒤덮은 국가상징물 모티프의 연속이다.

이 표지에서 핵심은 상단의 월계관과 문자가 어우러진 영역이다. 월계관 모티프는 멀리서 서양의 신화에서, 가깝게는 일본의 문예잡지 『묘조(明星)』와 러일전쟁 개선문에 등장했던 승리와 문예의 상징물이었다. 특히 월계관은 잡지 ‘소년’을 권

위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는 기호로서, “이 잡지는...활동적 진취적 발명적 대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나타난 명성(明星)”이라는 원편의 자기 선언과 결속된다. 월계관의 기호와 좌우의 선언이 둘러싸는 시각적 효과로 인해서, 잡지의 이름이자 잡지가 호명하고자 하는 독자의 기표인 부드러운 서체의 문자 ‘少年’은 마치 권좌에 앉은 것처럼 존중받는 주제로 거듭난다. 여기에 더하여 잡지 내부의 활자의 배치와 크기의 조절, 각종 시각적 기호와 이



미지의 사용, 도처에서 내용을 이끄는 편집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년』은 표지 위 주체 ‘소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부 체재 속에서 이어나가 독자들의 지성의 방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년』이 표지 위에 문자 ‘소년’과 월계관 기호를 조합하여 기획한 잡지의 주체화 전략의 최종지점은 결국 ‘소년’ 자신을 형상화한 젊은 남성의 이미지를 잡지의 얼굴로 내세움으로서 종결되었다. 정간 이후 판형을 키워 복간한 1910년 12월호와 1911년 5월호에 연이어 등장한 바다위의 젊은 소년은 근대기 잡지 최초로 등장한, 잡지 안면성을 구성하는 인물 이미지이자 이상적 독자 주체의 형상화이다(도 4). 발행인이 기획한 것은 국가가 아닌 이를 구성할 국민, 새로운 주체였으며, 인간의 얼굴을 그린 이미지의 형식은 동일시의 대상으로 적합했다.

이 소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먼 곳과 독자들의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는 소년의 배경으로 펼쳐지는 것은 파도가 너울대는 바다이다. 상체를 벗고 칼을 쥐 소년은 마치 문명의 시원적 공간에 놓인 인간과 같다.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위에 놓인 ‘해상소년’.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 『소년』에 자작시 「해(海)에게서 소년에게」와 논설 「교남홍조(嶠南鴻爪)-바다를 보라」를 쓰고 「해상대한사」를 연재하면서 바다를 중심으로 근대적 주체와 국가의 심상을 주조해나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4)</sup> 이 글들에서 바다는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이자, 드넓게 펼쳐질 새로운 근대문명의 진선미(眞善美)가 합체한 이상적 공간이며, ‘소년’은 삼면환해국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숙지하고 대륙과 해양의 문화를 종합하여 발전시킬 문화의 건설자로 거듭 호명되었다. ‘해상소년’의 얼굴은 ‘현대의 소리, 세상의 빛, 소년의 힘’을 자처하는 잡지의 얼굴이자 동시에 ‘보고, 알고, 행하는’ 주체로 나아가야 할 독자의 미래 얼굴이었다.

『소년』을 발행한 최남선의 신문관은 일본을 거쳐 수입된 서양의 디자인 양식을 수용하여 육전소설과 『청춘』, 『새별』 등의 표지 구성에 사용하였다. 이 양식들은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와 아르누보 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이어지는 유럽



도4 『소년』 4년 2권(1911년 5월 발행) 표지,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





도5) 일본 잡지『時代思潮』明治 37년(1904) 2월 발행의 흑백 표지.

의 근대 디자인 양식으로 분류되며, 이는 동 시대에 간행된 보다 대중적인 딱지본 소설 표지에서 선호되던 조선 전통의 화법과는 구분되는 디자인 감각의 흐름을 보여준다. 구불거리는 해초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해상소년’의 그림은 조선의 화가들이 그린 것이 아니다. 최남선은 1904년도에 발행한 일본 잡지『지다이시쵸(時代思潮)』의 표지를 가져와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신도록 했다.『지다이시쵸』의 표지 그림은 도쿄미술학교를 나오고 아르누보 양식으로 표지화를 그렸던 일본 화가 하시모토 쿠니스케(橋本邦助, 1884-1953)가 그린 것이다(도 5).

이 표지화가『소년』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즉, 미간의 주름을 삭제하여 심각한 인상을 없애어 보다 젊은 소년의 얼굴이 되도록 한 것이다. 즉, 미간의 주름을 삭제하여 심각한 인상을 없애어 보다 젊

은 소년의 얼굴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낯선 형태와 화법(畵法)의 얼굴은 즉각적으로 서구 근대의 감각과 연결되어 독자를 자극할 수 있었다. 언제나 이미 있는 것을 가져오기란 새로운 창조보다 쉬운 일이다. 그러나 빠르지 못해 주권을 잃어버렸다면, 재빠른 수입과 변용이야말로 절대명제가 될 수밖에 없을 터, 그것이 한국 근대의 함정인 것이다.

(4) 최남선이 특별히 바다에 대해서 가졌던 민족주의적 심상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김지녀, 「최남선 시가의 근대성- ‘철도’와 ‘바다’에 나타난 계몽적 공간인식」, 『비교한국학』 14권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권보드래, 「『소년』과 톨스토이 번역」,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2호, 2005.

### 3. 『신여성』의 얼굴, 신여성은 아름답다?

이미지는 부정확하고 감정적인 영역으로서, 지적인 능력이나 이성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미지가 문자보다 하위의 것이며, 지적으로 부족한 학습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전통사회에서나 근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삼강행실도』에 그림이 부기된 것은 문자와 거리가 먼 ‘백성’과 여성을 독자로 고려한 때문이며, 근대기 대중소설인 이른바 ‘딱지본’의 표지에 그림이 들어간 것도 여성과 청소년을 비롯한 교육수준이 낮은 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근대 잡지에서조차 이미지를 선호했던 것은 여성,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잡지들이었다. 특히 여성 잡지는 『가명잡지』(1906)에서 보듯이, 유교 윤리를 담고 전통적 삽도의 양식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표지 전면에 이미지를 제시하여 독자를 계몽하려는 시도를 일찍부터 보여주었다. 여성은 시급히 가르쳐야 할 대상이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한문보다도 한글, 문자보다도 이미지를 우선 이용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잡지 발행인들의 생각이었다. 특정한 기관을 위해 발행했거나 고급의 지식인인 유학생들의 친목을 위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폭넓은 여성대중을 염두에 둔 잡지들은 이미지를 반드시 표지에 실었다.<sup>(5)</sup> 또한 같은 발행소의 잡지도 여성독자와 남성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는 이미지 선호도가 달랐다. 예를 들어 1920년대의 잡지 출판을 주도했던 기관인 천도교의 개벽사에서 발행한 잡지 가운데, 여성잡지에는 좋은 인쇄품질의 이미지가 거의 빠짐없이 실렸지만, 남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잡지 『개벽』의 경우 제호(題號)만으로 표지를 구성한 비율이 약 70퍼센트였다.<sup>(6)</sup> 남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에 이미지가 대거 실리기 시작하는 것은 상업적 대중잡지가 출현하는 1930년대이다.

1920년대의 여성잡지 가운데 발행부수와 영향력 면에서 중요한 잡지는 개벽사 발행의

(5) 1910년대 발행된 잡지 『여자계』는 일본에 유학한 여학생들이 발행했는데, 표지는 문자로만 구성되었다. 1920년대 발행된 여성잡지 가운데 『신여자』는 이화학당 출신들이 발행한 것으로 역시 제호만으로 표지가 구성되었다. 그보다 한해 일찍 발간한 『여자시론(女子時論)』은 조선여자교육협회의 기관지였으며 잡지명을 표지 중심에 배치하고 작은 그림을 상단에 두었다. 1900년대에 발행된 『자선부인회잡지』도 기관지로서 표지에 이미지가 없었다. 1900-1920년대에 발행된 여성잡지 가운데 필자가 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여성잡지는 16종이었고, 이 가운데 이미지가 전혀 없거나 비중이 작은 잡지는 이 네 개의 잡지였다.

(6) 현재 확인되는 72개권 가운데 70퍼센트에 해당하는 51개의 표지가 이미지 없이 제호의 문자만으로 디자인되었다. 이미지가 있는 21개의 표지도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 사용한 경우가 많아서 이미지 종류로 보면 13개이다. 반면 『부인』, 『신여성』과 『어린이』의 표지는 중복되는 이미지가 각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부인』과 이를 개제(改題)하여 뒤이은 『신여성』이다. 이 두 잡지의 표지에서 일관되게 제시한 것은 여성 인물의 이미지였다. 인물 이미지는 새로운 시대의 ‘부인’과 ‘신여성’을 문자의 빈곤함을 넘어서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실체로 제시했다. 아름다운 얼굴의 형상, 패션, 소품, 공간, 독서와 춤의 몸짓, 명상 혹은 몽상의 자세와 표정,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디자인 감각 등은 교육받고 각성한 근대인이자 자유로운 주체라는 ‘신여성’의 기본적 개념에 덧붙여진 시각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과 문자가 종합된 표지 이미지는 특정한 안면성을 구성하여 독자들에게 동일시를 요구했다. 당대 여성들은 매월 반복해서 신여성 ‘되기’를 요청하는 잡지의 표지 이미지에 포위되어 있었고 시각 경험의 지층은 갱신되는 이미지들로 두터워졌다.

『부인』에서 『신여성』으로 이어지는 표지 이미지의 양식과 내용은 단일하지 않았으며 그 편차는 컸다. 한 극단에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구식부인’이 다른 쪽 극단에는 무희, 플래퍼(flapper), 도발적이고 전위적인 ‘모던걸’이 자리했으며, 그 사이에 아름다운 여학생과 책임은 조선부인이 존재했다. 표지는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을 오갔고,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가 빠르고 가팔랐으며, 그 흐름을 겪는 독자들을 고려해서 잡지가 이미지를 결정했던 때문이었다.

이미지의 결정은 발행인들의 일방적인 선정에 따를 수는 없었다. 주요 독자를 어떤 여성층으로 선정할 것인가, 또 그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편집자 측의 결정은 잡지를 손에 쥔 독자와의 가상의 협상 테이블을 거쳐야만 했다. 이미지는 독자들의 상상력과 경험의 한계에 도발하여 자극을 주면서도 거부될 수 있고, 퇴행하여 아무런 자극도 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적절한 타협 속에서 무리 없이 소화될 수도 있다. 이미지와 독자가 호응하는 감도(感度)가 어떠한가는 독자를 잡지의 지식 담론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이에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므로 주의해야 했다. 실제로 잡지에는 표지를 포함하여 내용 전반에 대한 질타나 요구를 담은 편지가 지속적으로 실려서 편집진이 독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부인』의 표지는 근대기 한국화가인 심산 노수현(心汕 盧壽鉉, 1899-1978)이 그린 참한 조선여성의 얼굴로부터 시작한다(도 6). 쪽진 머리와 저고리의 전통적 복장에 작고 아담한 눈코입의 얼굴이지만, 표지의 안면성은 고루하지만은 않다. 일본 여성잡지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동시기 어떤 잡지의 표지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파격적인 클로즈업 구도를 이용하여 여성의 얼굴을 독자의 눈앞에 극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식부인’의 기호를 담지한 이 얼굴은 독자들이 보기에 구태의연했을 것이며, 곧 『부인』의 얼굴은 전형적 신식 여학생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신식여성’과 ‘구식부인’을 오가며 표지와 내용의

수위 조절을 고민했던 발행진은 결국 잡지를 『신여성』으로 개제(改題)하고 주요 독자층을 재설정하면서 잡지의 안면성을 새롭게 구성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운 석영 안석주(夕影 安碩柱, 1901-1950)가 그린 여성은 잡지 『신여성』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다 (도 7). 이 얼굴은 1930년대의 여성잡지와 신



도 6 『부인』 창간호 (1922년 6월 발행) 표지, 그림 노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7 『신여성』 1924년 11월호 표지, 그림 안석주.

문 연재소설의 삽화에도 이어지는 한 전형이다. 흰 피부, 곧은 콧날에 크고 맑은 눈은 ‘서구화된 이목구비’라 할 수 있으며, 트레머리, 흰 저고리, 검정 통치마의 복장기호는 조선의 여학생임을 분명히 하고, 나뭇을 배경으로 어딘가를 물끄러미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있는 표정은 성찰적인 내면과 지적인 분위기를 구성해내고 있다.

잠시 정착한 듯한 『신여성』의 표지 이미지는 다시 변화했다. 조르주 바비에(Georges Barbier, 1882-1932) 풍의 관능적 무희가 신체의 자유로움을 과시하던 1926년을 지나서, 정간 후 속간한 1931년이 되면 『신여성』의 표지에는 도발적이고 퇴폐적인 인상의 모던걸의 얼굴이 등장하고, 아르데코(Art Deco) 디자인 감각이 듬뿍 담긴 부르주아 여성이 세련미를 뽐내고 있었다(도 8). 지적인 조선 여학생에서 무국적의 모던걸로의 도약. 주목되는 점은 1931년의 『신여성』의 표지 및 내부 편집 디자인이 특정한 양식적 계열을 이루며, 이것이 일본의 『쇼세이(女性)』지의 디자인과 시세이도(資生堂)화장품의 디자인을 맡았던 야마나 아야오(山名文夫, 1897-1980) 스타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1931년의 『신여성』은 동시기 잡지 표지 가운데 가장 앞선 디자인 감각 속에서 과감하게 신체를 드러내거나 섹슈얼리티를 발산하는 여성을 제시하여, 언론 일반의 모던걸 비판담론 속에서도 진보적인 여성 이미지를 동일시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편으로, 이 여성 이미지들은 근대 부르주아 여성의 세련되고 고급한 신체와 서양의 디자인 양식이 결합된 동





도 8) 『신여성』 1931년 6월호 표지.



도 9) 아바나 아야요(山名文夫), 시세이도(資生堂) 화장품 용기 디자인.

시기 일본 화장 상품의 안면성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었다(도 9). 1931년의 『신여성』의 표지는 근대 계몽사업과 자본주의가 결합된 결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해방이 상품 소비자로의 포섭과 동시에 이루어지던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련됨과 과감함이 넘쳐났던 1931년의 표지는 1932년이면 보수적인 조선 부인의 이미지로 회귀하면서 다시 한번 변모하게 된다.

『신여성』이 제시한 이미지에 대해 독자들은 과연 어떤 호응의 정도를 보였을까. 모든 이미지에 대한 반응은 알 수 없지만, 독자들의 태도가 이미지만큼이나 변화했고, 그 수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알 수 있었다. 그 예로, 경박스러운 만큼 자유분방한 플래퍼 분위기의 이미지 대해서 1926년의 여성 독자들은 “암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거부감을 느꼈지만, 1931년의 독자들은 “산뜻하고 어여쁘다”며 환영했던 양상을 보면, 불과 5년 만에 여성의 자기 표상의 내용이 변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누드에 가까운 이미지에 대해서는 “너무 추운감이 있드구먼요!”라고 일침을 가하면서도, 1932년의 보수 회귀 경향 속 구식 부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흡족한 감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던 것에서 보듯이, 이미지가 지나치게 과감하거나 보수적일 경우에는 불만스러운 의견을 표현했던 것이다.<sup>(7)</sup> 『부인』과 『신여성』의 표지 안면성은 때로는 수용되고 때로는 비판되면서 여성들의 자기 표상 감각의 변화에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얼굴들이 당대 여성 보편의 현실적 얼굴이었던 것은 아니다. 문맹율이 80퍼센

트 이상이었던 교육수준, 뿌리 깊은 가부장제하에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하며 생애를 보냈던 일반적인 현실의 여성은 잡지의 표지에 등장하지 않았다. 노동과 육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부인』과 『신여성』을 통틀어 각각의 주제 2회씩 제시되었을 뿐이다. 교육받은 도시 신여성과 모던걸 중심의 이미지의 양상은 『신여성』 외에도 1930년대에 발행된 『여성』의 표지에서도 확인된다. 노동하는 농어촌 여성의 모습은 일제말 전쟁동원기 국책 잡지의 표지에서 ‘국민개로 총력증산’의 구호 아래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이때에도 아름다운 얼굴과 건강한 육체를 갖춘 매력적인 조선 여성의 안면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항상 잡지의 표지 이미지는 현실에 발을 두면서도 그곳을 벗어나 도달하고 싶은 욕망의 지점에 다른 한발을 두고 있었다. 그 간극이야말로 이미지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종속되어야 할 가족관계를 떠나서 표지의 프레임 안에 홀로 놓인 지적인 여학생의 모습과 정절의 굴레를 떠나 섹슈얼리티를 발산하는 해방감 넘치는 모던걸의 이미지는, 독자들에게 이곳의 현실을 떠나 신시대에 참여하기를 요청했다. 조선의 여성이 교육받은 ‘신여성’이 되도록 하고 싶었던 잡지의 기획은 오늘날 완전한 성취를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미지를 신체에 새기고 ‘아름다운’ 안면성을 구성하는 습속은 온전히 여성이 것이 되고 말았다.

#### 4.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얼굴, 유토피아의 기획

1930년대에는 잡지 표지에 이미지가 폭넓게 사용되었다. 남성독자를 대상으로 한 시사종합잡지들-개벽사의 『제일선』, 동아일보사의 『신동아』, 속간된 『동광』, 조선일보사의 『조광』 등-의 표지에도 다양한 이미지들이 실렸다. 바야흐로 미디어에 이미지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기였다.

이미지 인쇄의 질이 좋아지고 양이 급증했던 1930년대 초두, 1931년부터 1933년의 사이에 독특하고 강렬한 표지 이미지를 내세워 대중 계몽을 시도했던 잡지들이 있었다. 사회

---

(7) 1926년 4월호의 김규택이 그린 자유분방한 몸짓의 플레퍼 스타일의 여성 이미지에 대해서 독자들은 “표지가 너무 난한 것 같다, 압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평을 내렸지만, 유사한 1931년 11월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산뜻하고 어여쁘다”라며 호평했다. 가르마에 쪽진 머리 여성이 등장한 1932년 8월호에 대해서는 “볼 줄 몰라서일지 모르겠다”면서도 “내용에 비하여 흡족한 감을 주지 못한다”는 독자의 편지가 소개되었다.



주의를 이념으로 삼은 이 잡지들은 독자들을 ‘프로(프롤레타리아) 대중’으로 호명하고 각성시키려 했다. 대중계몽을 목적으로 내건만큼 이들은 반드시 표지에 이미지를 실었다. 대표적으로 『집단(集團)』, 『대중(大衆)』 등 카프(KAPF)와 조선공산당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이 발행한 성인대상의 잡지뿐만 아니라 소년잡지인 『신소년』, 『별나라』에서도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주의 지식을 전파하면서 그 목적을 뚜렷이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표지에 실어냈다. 이 잡지들은 독자들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주체로 불러 세우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잡지는 크게 두 계열의 이미지를 선택했다. 하나는 성공적인 공산주의 국가 소련(USSR)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주체로 각성된 인물의 이미지였다.

사회주의 잡지의 표지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주로 사진이라는 점이다. 이 사진들은 산업설비, 교육제도, 인쇄시설과 노동, 집회, 시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소련의 여러 면모를 담은 사진 자체는 『조선』과 『동아』 등 신문지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신문의 사진이 갓 태어난 공산국가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해외토픽’란의 역할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념적 목적을 내건 계몽의지 속에서 선택된 잡지 표지 사진은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의 현존의 증거를 제시하며 그 상태로 나아갈 것을 요청했다. 즉,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향한 혁명의 요청이 표지의 사진 이미지에 담겨 있었다.



도 10) 『집단』 1932년 2월호 표지.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집단』은 카프 기관지 『군기(群旗)』의 후신이자 “조선 프롤레타리아 대중계몽잡지”라고 자기를 내걸었던 잡지다. 창간호가 모두 압수된 후 1932년 2월에 발행된 2호의 표지는 강렬한 제목의 문자 디자인과 흑백사진으로 구성되었다(도 10). 바로 이곳이라는 듯이 현장을 제시하는 거칠게 인쇄된 사진과 힘이 넘치는 디자인의 문자를 배치하는 방식은 이 시기 사회주의 잡지 표지의 양식적 특징이다. 이 양식만으로도 잡지는 사회주의 잡지의 안면성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잡지의 메세지는 명쾌하다. 먼저 시선을 이끄는 오른편 하단의 붉은 글자 “노동하는 백만 대중의 잡지”라는 문구가 자기를 선언하고 있다. ‘대중’의 잡지라는 자기언명과 ‘집단’이라는 단어, 그리고 군중 이미지가 종합되어 잡지는 독자를

연약한 개인이 아닌 각성한 대중 ‘집단’으로 호명하고 있다. 이 호명은 기존의 잡지 『소년』이나 『신여성』 등이 독자를 근대적 ‘개인’으로 불러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잡지 표지 구성의 핵심에 있는 사진 이미지는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 신문지상의 사진 외에 보다 직접적인 출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프로젝토르(Prozhektor:Прожектор)』와 같은 소련 정부 제작의 홍보용 사진잡지이다. 이 잡지가 경성제대에 소장된 사실에서 보듯, 소련의 이미지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겠으나 표지에 실린 이미지의 출처는 확인하기 힘들다.<sup>(8)</sup> 표지 공간은 어떤 이미지라도 가져와 전용(轉用)하여 새롭게 메시지를 구축하는 공간이었다.

이 사진에서 중요한 기호는 ‘깃발’과 ‘러시아어’ 현수막, 그리고 단상아래 모인 ‘군중집단’이다. 가로로 걸린 현수막의 문장은 해석하면 “...은 우리의 손에 있다”라는 잘린 문장이지만 이미지 발생시키는 2차적 의미는 이 언어의 독해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문자가 소련의 언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것이 시위용 현수막 위에 쓰였으며 그 옆에 깃발과 운집한 군중이 있다는 것이 독자들에게 파악되면, 사진은 소련의 대중 시위의 현장으로 읽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노동하는 백만대중의 잡지”라는 자기선언과 “농민은 왜 가난한가”를 질문하는 잡지 내부의 담론이 이미지의 문맥을 강화하면, 사진은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소련의 노동 대중 집단의 모습으로 읽힐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호는 제목인 문자 ‘집단’과 겹쳐지는 우측의 깃발이다. 깃발은 1920년 발행한 잡지 『공제(共濟)』와 사회주의 문예운동 잡지 『예술운동』의 표지에도 등장했던 시각 기호였다. 깃발은 집단의 구심점이자 그를 이끌고 나갈 각성된 주체를 의미하며, 특히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지어 선포되었던 상징이었다.

소련의 사진은 독자를 ‘프로소년’으로 계몽하려는 소년잡지 표지에도 자주 등장했다. 『신소년』 1933년 5월호는 독특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표지에 실었다(도 11). 밝게 웃고 있는 소년(소녀일지도 모른다)의 얼굴 뒤로 현대적 공장의 설비와 한 노동자가 강한 원근대비 구도 속에 배치되었다. 소년의 얼굴과 배경의 노동자, 공장의 설비는 한 컷에 찍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 조합시킨 ‘포토몽타주’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포토몽타주 기법은 로드첸코(Aleksander Rodchenko, 1891-1956)를 비롯한 러

(8) 『프로젝토르』는 1923년부터 소련의 공산당 출판국에서 발간한 격주간 화보잡지이다. 이 잡지의 1929-1931년간 발행분의 일부분을 경성제대 문고를 소장한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서로 확인할 수 있다.



도11) 『신소년』 1933년 5월호 표지, 이주홍 문학관 소장.

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이 1920년대 초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에는 소비에트 체제의 역동적 기념비성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잡지와 포스터의 사진 이미지에 활용되었다. 이 사진에는 소련이 발달된 산업 국가이자 노동자들의 행복을 구현하는 국가라는 매세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소련의 이미지는 『신소년』의 독자들에게 유토피아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판타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불평등한 현실을 깨닫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표지가 이상에 대한 선망을 불러 일으켰다면, 잡지 내부의 글은 ‘목적의식적’ 투쟁의지를 지닌 주체로 각성시키는 언어, 지식, 사상을 제공했다.

주체의 의지가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때는 고통스런 이곳을 훌쩍 뛰어넘은 희망의 시공간이 눈

앞에서 그를 매혹할 때이다. 사회주의 잡지가 표지에 반복해서 제시한 소련 사회의 모습과 행복한 노동자의 이미지는 독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을까. 소련의 ‘피오네르(pioneer, 공산소년단)’를 이곳에서 실현하기를 희망했던 『신소년』과 『별나라』의 열혈 독자들 중 몇몇은 1931년 11월 함경북도의 ‘북청 피오닐’에 참여했을지도 모른다.<sup>(9)</sup> 또한 해방 이후, 소련을 모델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국가의 실현은 이 시기 뿌리내린 열망의 유토피아 이미지가 작동하여 이루어낸 현실이기도 하다. 이미지의 영향력은 잠재되어 있다가도 뜻밖의 순간 현실 속에 용출한다. 그러나 이미지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9) 함경도 북청(北靑)의 리봉석 등의 소년들은 독서회를 열어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하고 야학을 개설하고 비밀결사 ‘피오닐(소년공당)’을 조직”했다가 검거되었다. 『조선일보』 1933.1.13.

## 맺음말: 이미지의 신화와 공동(空洞)

언제나 이미지는 매체 위에서 정치를 행한다. TV와 신문에 제시되는 현 대통령의 머리 모양과 표정, 그리고 말투는 하나의 정치적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그녀가 부친의 신화와 더불어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부친을 닮은 얼굴은 대통령의 안면성의 정치를 구성하는 중핵에 있다. 그녀의 안면성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신화와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작동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안면성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신화는 그녀가 통치자로서 부친과 같을 것이라는 신화이다. 대중의 믿음이 생산한 통치의 신화는 대통령의 얼굴을 통해서 유지되고 이미지로 각인되어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근대기 잡지 매체의 제작자들은 이미지를 실어 호소하면서 이곳 아닌 저곳으로, 현실 아닌 이상으로 자신과 독자를 끌고 나가려 했다. 잡지를 발행한 계몽지식인들이 표지 이미지로 작동시킨 안면성의 정치는 동시대 사람들의 희망어린 믿음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서구적 국가와 개인이 이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신여성이 가능하리라는 믿음, 소련과 같은 국가를 여기서 구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강제한 것은 거대한 근대화의 물결이었고 그 파생적 상황으로서의 식민지 현실이었다.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는 의지 속에서 근대가 만들어낸 얼굴들은 저마다 신화를 담고 있었다. 이미지는 신화를 조직하는 일차적인 도구였으며 제작자의 욕망과 의지를 담아내며 도처에 산포되었다. 근대는 이미지가 미디어를 타고 흐르며 끊임없이 발화하는 시대였다. 이미지의 수다스러움은 근대의 특징이다. 미디어의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시공간은 존재가 주체가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극장이면서도 동시에 그를 둘러싼 하나의 숲, 제 2의 자연으로 존재했다. 우리는 미디어가 이미지를 통해 마련해둔 바로 그 주체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상상하고 세계를 표상한다. 우리는 얼굴 없는 ‘나’를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신화는 항상 텅 빈 공간, 이미지들이 둘러싸고 덮지만 결코 덮여지지 않는 공동(空洞)을 그 배면에 두고 있다. 거기에는 이미지 없이 해나가야 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있다. 그것에는 어떤 이미지와 신화도 부여되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 삶은 진행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이미지는 비로소 이러한 공동에서 출현하여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다.

## 주요참고문헌

- 권보드래 외, 『「소년」과 「청춘」의 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 김근수,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 국사편찬위원회, 1973.
- 김민환·김문중, 『일제강점기 언론사 연구』, 나남, 2008.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 김영나 외, 『한국 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
-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 김진송, 『서울에 땀스흘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롤랑 바르트,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 맹현정, 「『별건곤』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2.
- 목수현, 「근대국가의 ‘국기’라는 시각문화: 개항과 대한제국기 태극기를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27, 미술사학연구회, 2006.
- 박대현,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 열화당, 1999.
- 이윤희, 「한국 근대 여성 잡지의 표지화를 통해 본 여성 이미지: 『신여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이진경,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2.
- 정진석, 『한국 언론사연구』, 일조각, 1983.
- 조성출, 『한국인쇄출판100년』, 보진재, 1997.
- 천정환 외,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삼천리」와 1930년대 문화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 최덕교, 『한국잡지 100년 (1)-(3)』, 현암사, 2004.
-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 헬 포스터 엮음,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 2014년 도서관 기획대담



# 잡지가 만든 근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2014. 8. 5)

06



사회 : 한기형(성균관대학교 교수)

패널 : 오영식(근대서지학자) / 천정환(성균관대학교 교수) / 박진영(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한기형** 우선 잡지를 주제로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은 근대잡지에 대한 관심이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또 알아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잡지에 일가견이 있는 네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가지고 계신 경험과 지식을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근대 기록물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잡지는 근대와 함께 출발한 셈이지요. 근대지식이 형성되어 자리를 잡은 지 어언 10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근대사의 혼란만큼이나 잡지 매체들의 운명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지난 100여 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난 세월의 잡지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정환** 어릴 때부터 잡지를 보며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깨동무』나 『새소년』을 보고, 좀 자란 뒤엔 아버지께서 사온 『신동아』나 『월간조선』을 곁눈질 하며 자랐지요. 고등학생 시절에는 시험공부 하러 갔다가 도서관 정기 간행물실에서 대중지와 시사지 등을 보면서 ‘교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는 80년대의 사회과학지와 문예지를 읽었지요. 연구자가 된 후에는 문학과 잡지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잡지를 또 다른 각도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형** 저도 대학생이 된 후 학교도서관에서 처음 잡지를 접했습니다. 80년대 당시 외국에서 들어온 잡지들이 많았는데 모든 잡지가 검열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검열된 외국 잡지들의 내용이 무엇이였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문학의 과거를 공부하면서 잡지를 들춰봤을 때 이상하게 목록에는 있지만 빠져 있는 내용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잡지의 역사가 과거 한국의 사회모순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현실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잡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박진영** 저는 대학원생 시절에 옛날 잡지를 접하면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1920~30년대 잡지를 처음 펼쳤을 때 말 그대로 온갖 잡담한 기록이 한데 모여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재미있고 놀라웠습니다. 딱딱한 학술논문부터 생활상식이나 어이없는 비과학적 정보까지 뒤섞여있는 잡지를 보면서 근대 지식과 인문학, 한 시대 문화와 일상의 생생한 기록이 잡지의 기본 성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잡지를 뒤적거리면서 눈여겨본 것은 주로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이지만 삽화, 그림, 만화, 사진까지 하나의 매체에 집약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근대 지식이나 문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오영식

저는 1975년도부터 현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책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이 잡지였지요. 잡지는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비교적 염가로 만들어져 다중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우선 매력적이었으며, 나아가 매스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당시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잡지를 통해 지나간 시대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한기형  
천정환

근대 대중매체의 핵심이 신문과 잡지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잡지는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문해능력이 부족한 사람부터 세밀한 분야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잡지입니다. 신문은 속보성과 함께 대자본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지닌 데 비해서 잡지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수익과 독자, 피드백만 있으면 제작이 가능한 매체이고, 특히 아마추어들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기형  
천정환

대중성과 급진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인성(素人性)이랄까요. 소규모의 사람들과 동인들 사이에서만 유통될 수 있어서 아마추어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잡지의 특징입니다.

박진영

신문이 거대 언론 자본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잡지는 출판자본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거지요.

한기형

식민지 시대 총독부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 강력하게 탄압을 하되 결코 폐간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반면 잡지는 폐간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잡지가 어떤 의미에서 더 다루기 불편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잡지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아야겠는데요, 한국 잡지의 역사는 대체로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식민지화되기 전, 초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각종 학회의 기관지가 잡지의 대세였습니다. 1910년대에는 최남선과 다케우치(竹内錄之助)가 잡지계를 양분했습니다. 1920년대는 ‘잡지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잡지가 한국사회의 대중지식문화를 대변하는 매체로 성장했습니다. 『개벽』과 『조선문단』, 『조선지광』



등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잡지들입니다. 특히 『개벽』의 역할과 파급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천도교의 역사적 역할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에는 20년대와는 또 다른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김동환의 『삼천리』가 대중문화의 새장을 열었고 『조광』, 『신동아』 같은 신문사 잡지들이 등장해서 잡지계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소설가 이태준이 중심이 된 문학전문지 『문장』의 역할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신천지』가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잡지로 등장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채로운 잡지의 역사 속에서 어떤 측면을 중시하고 초점화해야 할까요?

박진영

근대 잡지사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1910년대 최남선의 『소년』, 『청춘』과 다케우치의 『신문계』, 『반도시론』입니다. 종합 교양 월간지로서 잡지가 가진 특징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 준 것은 『소년』과 『청춘』입니다. 인문학부터 사회과학, 자연과학까지 백과지식을 망라한 잡지 체재를 처음 선보였으니까요. 순수 민간자본으로 신문관(新文館)이라는 출판사가 설립되고 최남선이라는 전문 편집자에 의해 창간된 잡지가 일제의 한국강점 전후부터 삼일운동 직전까지의 시대정신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인 다케우치가 발행한 『신문계』와 『반도시론』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신문계』는 학생이나 지식인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어학에 대한 실용적인 학술지식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시론』에서는 시사와 일반교양에 초점을 맞추어 『청춘』과 경쟁하는 쪽을 택했지만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경쟁을 통해 한국 잡지의 지형이 구체화되고 또 성격이 분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기형

초기 학회지의 문제의식은 근대인으로서의 지적인 추구, 한국적 계몽주의 상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주도적이었는데요, 이에 비해 『청춘』과 『신문계』 등

은 상당히 그 내용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식민지화에 의해 근대 계몽주의의 강렬함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정환

1900년대 학회지와 1920년대 『개벽』과 같은 잡지들을 보다가 나중에 『소년』과 『청춘』을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청춘』은 1910년대 중후반에 나온 잡지임에도 일러스트나 레이아웃 등 편집 수준이 앞 시대보다 훨씬 앞서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박진영

선진기술을 도입해 사진, 그림, 일러스트를 본격적으로 활용했다는 편집감각의 새로움이 무엇보다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1900년대에 계몽지식이라 불린 것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문화’나 ‘교양’으로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잡지라는 새로운 매체입니다. 말하자면 계몽성과 대중성을 절묘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소년』과 『청춘』이 남긴 최대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잡지사에서 꼭 기억되어야 할 장면이겠지요.

오영식

최덕교 선생의 『한국잡지 100년』(현암사) 첫 페이지에 ‘서구의 잡지는 실용정신에 의해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애국·계몽정신으로 시작했다’는 말처럼 우리 잡지의 출발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시대의 소명에 충실하면서 문화화의 한 수단으로 잡지를 만들고 글을 쓰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너무 애국이나 계몽, 독립과 같은 국가주의적 속에만 가두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다양한 시각으로 잡지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기형

중요한 지적인데요, 천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남선의 잡지 그림들은 인쇄혁명을 통한 문화적 혁신을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근대기술의 문제만은 아니고 최남선이 잡지의 공간 속에 당대의 문화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잡지가 문화인의 집결지가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는 잡지계의 대폭발이 일어나 한국 근대문의 역사를 만든 잡지들이 쏟아져 나온 시대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표 잡지들 외에 『어린이』 『조선농민』 등 각종 전문잡지들도 등장해 그야말로 잡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대 잡지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천정환 아무래도 191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등 새로운 사상운동과 잡지가 결합하게 된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근대문학이 잡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양하고 전파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잡지와 한국 근대문학의 결코 떼 수 없는 관계가 1920년대에 성립했다는 점, 그리고 종합지, 문예지, 동인지 세 가지 형태의 잡지와 문학이 각각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박진영 192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잡지 『개벽』의 경우를 보면 천도교 계열의 잡지로 출범했지만 성격이 바뀌면서 종합지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후기로 가면서 문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삼일운동 이후의 지성계라든가 문화계의 변동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한기형 1920년대 잡지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오영식 20년대 잡지를 언급할 때 흔히들 사상사적 측면만 강조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는 ‘문화정치’에 편승해 잡지라는 매체를 영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시도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으나 『조선문단』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창간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1만부를 찍었는데 모두 팔려 재판을 찍은 것이지요. 창간호를 재판한 잡지는 『조선문단』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1950년대 들어 학원사의 김익달(金益達) 등을 통해 잡지사가 기업화되는데 그 출발이 어찌 보면 20년대부터 시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한기형 『조선문단』이 많이 팔렸다는 것은 잡지가 지식문화 상품으로 사회적인 유통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인데요, 소수의 지식인들에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한 문학잡지가 그렇게 많이 보급된 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 오영식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1920년대 들어 비로소 문화 각 방면에서 자기들의 매체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 영화, 체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잡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이나 카페 여급들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까지 나오게 되면서 1920년대 잡지는 다양함이란 측면에서는 1960~70년대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조선문단』의 적극적인 영리 추구는 1929년 김동환이 『삼천리』를 창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형**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천리』는 1920년대 ‘무거운’ 잡지의 시대가 변화하는 조짐을 보여주었는데요, 1920년대 흐름이 30년대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정환** 20년대 이후 출판자본주의가 본격화되었고 문단 내에서도 저작권이나 원고료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선문단』과 같은 잡지의 성공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신문화 독자가 형성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30년대에 들어와서는 출판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동아』와 『조광』 같은 잡지에서 드러나듯이 신문사가 우월한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잡지로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이념이나 주의를 초월해 영리 자체를 추구하는 새로운 잡지 문화사의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삼천리』는 굉장히 성공한 잡지였으나 신문사 잡지에 비하면 오히려 재원이나 인력이 약해서 고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형** 제가 보기에는 한국 근대 잡지사에 다섯 명의 기린아가 있습니다. 『청춘』의 최남선, 『삼천리』의 김동환, 『사상계』의 장준하, 『뿌리 깊은 나무』의 한창기, 최근 『녹색평론』의 김종철까지. 그런데 김동환이 고군분투하며 『삼천리』라는 엄청난 분량의 잡지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초인적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천정환** 김동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 네트워크나 사업기적 기질, 특유의 성실함이 복합되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엄청난 다작과 지적 호기심, 호사가적인 인물 및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잡지나 신문을 통한 ‘조선인 사회’나 조선인의 자기 통치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합쳐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기형** 해방 이후 핵심 잡지는 『신천지』입니다. 해방 직후 자연스럽게 분출한 문화적인, 지적인 욕망을 이런 잡지들이 수렴해 나갔습니다. 그 시대 잡지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오영식** 1930년대에는 신문사나 출판사라면 잡지 하나 정도는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도 이와 비슷해서 서울신문사에서 『신천지』를 내게 되었죠. 그런데 『신천지』 말고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민성』입니다. 이 잡지의 영인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그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상은 매우 중요한 매체입니다. 고려문화사라는 당대 가장 튼튼한 회사에서 나왔고 성향 또한 『신천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신천지』를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향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또한 심층적으로 접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잡지들이 극히 열악했던 종이상태 때문에 속칭 ‘똥지’로 만들어져 보관에 문제가 많고 활자가 너무 작아 원본을 보더라도 판독이 쉽지 않은 것이 저로서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한기형** 『민성』과 『신천지』를 보면 한국인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술한 말을 하고 싶지만 짧은 지면 속에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필자들의 문장 속에서 생생히 느껴집니다. 식민지라는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해방을 맞이한 한국인들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잡지들을 보면 해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천정환** 『백민』 창간호는 아주 상징적인 창간사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횡포한 검열의 제재로 맘 놓고 잡지 편집을 할 수 없었으며 찢기우고 꺾어서 병신만을 내놓았든 것입니다.” 그리고 “맘 놓고 쓰시요 자유의 노래를 불으시요”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해방의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잘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형** 몇 개 문장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죠.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열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기 잡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 보급, 정리, 영인, 연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해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정치사적 해석이 아닌 감성의 문제로 해방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와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떤가요?

**천정환** 50년대는 분단과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적, 산업적 인프라가 다 망가진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1954년에서 1958년 사이에 여러 잡지가 다시 창간되고 다양한 대중지가 나옵니다. 1958년부터는 단행본 생산·유통에서도 본격적으로 새로운 전기가 열립니다. 해방기에서 전쟁직후까지 그야말로 원조경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문화였고, 식민지적 상황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면 1954~1958년에는 한국 출판자본주의가 새롭게 독립해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기형** 기억할만한 잡지들을 거론해 주신다면?

- 천정환 1954~55년에 중요한 잡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문학』 같이 대표적인 문학잡지가 나왔고 『사상』과 『사상계』 같은 지성잡지, 『아리랑』·『신태양』 대중지도 이 때 나왔습니다.
- 한기형 교양지·지성지·대중지로 그 흐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30년대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나요?
- 박진영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생지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김익달의 『학원』이 대표적입니다. 1920~30년대에도 학생지 시장이 존재했고 많은 독자층을 형성했지만, 해방 이후 학생지는 연령층을 확대하고 독자를 세분화하면서 대중화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 한기형 학생지가 성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학원사의 잡지활동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오영식 학생 잡지의 출발은 『학생계』(1920, 한성도서)부터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신소년』(1923, 신소년사)과 『어린이』(1924, 개벽사) 등이 창간되었으며, 1929년에는 『학생』(개벽사)이 나왔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세대에 대한 애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직후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어 『학생』(1946), 『학생월보』(1947), 『진학』(1946), 『소학생』(1946) 등 수많은 학생잡지가 출현하였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2세 교육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것이 『학원』(1952.11-1991.7)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기형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잡지들이 많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천정환 가장 간명한 답변을 드리자면 8.15 직후부터 60년대까지 한국의 전체 문화사가 그렇듯이 급격하게 학생 수가 증가합니다. 학생지든 여성지든 독자층이 세분화되고 이에 걸맞는 다양한 잡지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책을 읽고 구입할 수 있는 대중 독자층의 능력이 높아진 것과 연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기형 식민지시대에 비해 해방이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지식인 사회가 성장하고 지식문화의 토대가 확고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50년, 60년대를 상징하는 『사상계』 같은 지식인 잡지가 등장합니다. 그 이외에 기억할만한 당시의 잡지가 있다면?

- 오영식 저는 개인적으로 주요한이 발행한 『새벽』이란 잡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잡지는 1954년부터 60년대 초까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주요한의 정치지향성이란 한계가 있지만, 잡지 『새벽』은 최인훈의 「광장」이 실렸다는 상징성 외에도 50년대 사회의 속살을 엿보는 데에는 소중한 자료가 되는 잡지라 생각합니다.
- 천정환 『신세계』같은 잡지도 특이하던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오영식 『신세계』는 1956년 2월에 조병옥, 신익희, 정일형, 장면 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시사월간지인데 그해 5~6호 정도를 내고는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희망』, 『아리랑』 등의 잡지는 기업화의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잡지들은 작은 자본으로 인해 금방 없어지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단명하고 말았지만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특색 있는 잡지들이 적지 않았는데, 을유문화사에서 내던 『지성』은 60년대 계간지 시대를 선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기형 앞서 언급한 『사상계』의 잡지사적 의의를 이후 간행된 『뿌리 깊은 나무』와 묶어서 말씀해주십시오.
- 천정환 『사상계』의 이념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 잡지가 갖고 있는 지성사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상계』는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4.19와 5.16이라는 정치변동 속에서 민주주의 여론의 버팀목이 돼 주었습니다. 이런 잡지가 60년대 후반이 되면 세대교체나 지성사적 구조변동에 의해 서서히 몰락해가는 것이지요.
- 한기형 저는 『뿌리 깊은 나무』가 한국 잡지의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문화 전반을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할까요? 문화의 구조와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진영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여긴 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계』의 특징 중 하나는 지식인이나 학자가 전면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뿌리 깊은 나무』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지식인이 한발 물러나면서 대중잡지를 선도하는 발상과 기획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한기형 다양한 발화자들을 끌어냈죠.

- 박진영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다양한 문화계 인사를 끌어 모으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얼핏 봐도 『사상계』와는 다른 면모가 아닌가요?
- 오영식 『뿌리 깊은 나무』는 관형부터 특이했으며 화보를 가급적 많이 반영했는데 당시 잡지문화 풍토에서 이런 것이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이 잡지사에서는 LP세트를 내거나 기획 단행본을 내는 등 상당히 종합적인 작업을 펼쳤는데, 당시에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고 한국문화를 선도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 한기형 탁월한 기획력과 유연한 사고를 지녔던 한창기 선생의 역할이 물론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1970년대 와서 비로소 한국의 문화적 독자성, 자기 문화에 대한 기획, 이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 표출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자기역사와 자기문화를 자기의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 말하자면 근대의 자립화랄까 그런 일들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 천정환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 ‘토박이 민중’에 대한 관심을 세련된 일러스트와 잡지 편집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민중’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여서 『씨을의 소리』 같은 잡지도 나오고 다기한 민중론이 나오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민중을 한편 민속적 민중으로 이해하고 ‘한국적인 것’의 뿌리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는 생태주의적 아이디어를 잡지에서 최초로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한기형 『뿌리 깊은 나무』는 확실히 실감나게, 가볍고 환하게, 색채감 있게 민중론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사회를 감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민한 문화인들이 집결했 진보적이지만 무겁지 않은, 독특한 문화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영 가볍다는 인상은 특히 1950년대에 강렬했던 서구이론이나 지식에 대한 경도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실제로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그런 색깔이 거의 포착되지 않거든요. 어쩌면 토착적인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랄까, 문화에 대한 자생력을 갖추게 된 시점이 그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오영식 70년대의 산업화를 통해 그야말로 먹고 살만해지면서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장면에서 지성인들의 장광설보다는 기층민의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방식을 택한 것이 남보다 앞선 안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한기형

한국 잡지의 역사를 주마간산 격으로 일별해 보았는데요,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잡지나 잡지에 대한 평소의 소회가 있다면 한분씩 소개해 주시지요. 먼저 저의 경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청년』과의 만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신청년』이 아니라 한국의 『신청년』입니다. 3.1운동 전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학동인지인데요, 일본에서 간행된 『창조』보다 간행 시기가 앞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무기명 창간사를 만해 한용운이 썼다는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잡지의 소장자가 이 자리에 계신 오영식 선생님이십니다. 국보(?)를 가지고 계신 셈이지요.(일동 웃음)

천정환

저는 우선 한국 문학과 잡지의 관계를 다시 환기하고 싶습니다. 『개벽』 단계에서 뿐 아니라 1980년대까지도 종합지들이 시와 잡지를 자신의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예컨대 1958년 발간된 『신세계』는 농도 짙은 정치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천상병·박연희·선우휘 등 문학가들이 활동을 한 장이 있었어요. 이런 전통, 즉 한국 종합지의 종합성을 시와 소설이 완성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현재 한국 지성계·문학계를 지배하는 『창작과비평』, 『문학동네』, 『문학과지성』 같은 잡지들이 영세하고 비독립적인 잡지로 출발해서 거대한 출판 자본이 되고 문학계 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출판을 지배하는 과정도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근대 잡지를 편집한 주체들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된 최남선과 김동환은 잡지를 창간한 주역인 동시에 1인 편집 체제를 운영한 문인입니다. 1920년대 초반에 김억, 홍난파, 오천석, 방정환, 최영주와 같은 전문 편집자가 등장하죠. 탁월한 기획과 편집 역량을 발휘하면서 잡지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편집자가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이 되었습니다. 1930년에 들어서면서 신문사에서 주도한 『신동아』나 『조광』과 같은 잡지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편집을 맡는 작가 겸 편집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인문평론』의 최재서, 『문장』의 이태준도 편집자로서 조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1950년대 『학원』의 김익달, 『뿌리 깊은 나무』의 한창기가 거대 출판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잡지 문화를 개척해 낸 것도 한국 편집자의 독특한 전통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한기형

소수자들의 잡지도 이야기해주신다면?

오영식

흔히 기생잡지로 알려져 있는 『장한(長恨)』은 1927년 1월에 창간되어 2호로 종간되었죠. 표지 그림부터 새장 속에 여인을 집어넣고는 ‘조롱 속에 이 몸을 동무여 생각하라’고 써놓았습니다. 목차를 보면 소설가 김유정과와 로맨스로 더욱 유명해진 박녹주의 글도 보이고, ‘내가 만일 손님이라면’이라는 특집기사는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찢해집니다. 이 잡지와 약간 성격이 다르겠지만 ‘(피)고용인들의 목소리’라는 뜻의 『용성(傭聲)』이 있습니다. 1931년 8월에 창간된 이 잡지는 창간호 한 책만 나오고 만 것으로 보이는데, 여급이나 ‘뽀이’ 생활의 고달픔을 토로하는 한편 변호사 이인(李仁)의 「고용관계와 법적 고찰」 등의 글도 실려 있어 소수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영

해주의 결핵 요양원에서 발행한 『요양춘』도 흥미롭습니다. 의료 시설에서 낸 기관지다 보니까 질병이나 의학 관련 기사도 있지만 시, 소설, 수필도 의외로 많이 실렸습니다. 이태준이나 박태원 같은 유명 작가가 꾸준히 필진으로 참여하는 장면은 1930년대에 문학이라는 것의 위상이랄까 역할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정환

영화나 미술, 사진 잡지들이 가진 매체로서의 특징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가장 세련된 일러스트와 디자인, 사진, 레이아웃들을 사용하여 문화적 영향을 끼칩니다. 잡지 매체가 보여주는 시각화된 세계가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박진영

맞습니다. 텍스트뿐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지식으로 가공해서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력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기형

끝으로 한국 근대잡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의견들을 정리해 주시지요.

박진영

한국 잡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근대 세계의 인문 지식을 집약하고 사회의 실천 동력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최덕교 선생님의 『한국 잡지 백 년』은 세계의 어느 식민지에서도 한국처럼 700여 종의 잡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낸 사례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백년간에 걸친 잡지 간행의 지극한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과 대중, 학생과 노동자, 아동과 여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잡지가 아닐까, 잡지가 아니었다면 계몽과 운동, 저항과 실천이 이처럼 강렬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오영식** 잡지는 한 마디로 자료의 보고(寶庫)입니다. 잡지를 통해서 근대사의 공백을 재구(再構)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굴곡 많은 우리의 근대사를 엮두에 둘 때, 잡지의 가치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 서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잡지들을 정리하고 연구하여 번듯한 『한국잡지사』(가칭)가 나와야 할 텐데 그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 천정환** 한국 잡지를 시대의 지성이나 정치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문화적 운동에 대한 의지가 잡지를 통해 발현되었고, 잡지를 만들어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지식인들이 20세기 내내 있었지요.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한기형** 잡지는 한국에서 특별한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위축되고 제도가 부족했던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잡지는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OS(운영체제)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잡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담론과 비전을 토론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잡지의 역할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만, 잡지가 해왔던 기능과 역할을 기억하고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낼 바람직한 대중 미디어의 상을 예상해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에 참여한 세분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근대 잡지<sup>1)</sup>

## III

---

(1)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특별전 '한국근대문학을 만나다' 전시도록 중 잡지 부분에서 발췌·수록함

## 소년

최남선, 최창선, 신문관 | 1908. 11.~1911. 5.

《소년》은 1908년 11월 창간되어 통권 22호인 1911년 5월호로 중단되었으며, 근대적 형식을 갖춘 최초의 종합 잡지라고 할 수 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최창선이며 신문관에서 발행하였다. 창간호 속표지에 잡지 간행 취지를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려 하면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여라”라고 밝히고 있다. 최남선이 18세의 나이로 홀로 집필과 편집 등을 맡아 펴내기 시작하여 이후 이광수, 홍명희 등으로 집필진이 확대되었다.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구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조선의 역사, 고전문학, 철학 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러 편의 신시를 게재하는 등 문학사적 공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창간호에 실린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근대시의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신시로,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며 기존 세계에 물들지 않은 소년들에게 연대 의식을 나타내는 등 계몽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조윤정, 「잡지《소년》과 국민문화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21, 2007.



소년 | 창간호(유희2년 11월) | 1908. 11. | 연귀087-92-1

## 학지광

신익희 | 학지광사 | 1914. 4.~1930. 4.

1914년 4월에 창간되어 통권 29호로 1930년 4월에 중단된 《학지광》은 7개 단체의 합동 단체인 재일본 조선유학생 학우회의 기관지였다. 초기 편집 겸 발행인은 신익희, 인쇄인은 최승구, 발행소는 동경의 학지광 발행소로 되어 있으며, 이후 장덕수, 현상윤, 최팔용 등으로 편집 겸 발행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학우회의 소식을 전하는 한편, 시, 소설, 논설과 수필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렸다. 김여제, 김억, 나혜석, 안확, 이광수 등 젊은 지식인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근대문학 여명기인 1910년대 문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學之光 | 제2권 | 역락 | 051-역288호-2 | 영인본



## 청춘

최남선 | 신문관 | 1914. 10.~1918. 9.

《청춘》은 1914년 10월호로 창간되어 통권 15호인 1918년 9월호로 중단된 월간 종합 잡지로서, 저작 발행자는 최창선, 인쇄소는 신문관으로, 최남선이 주간을 맡았다. “아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배워야 하며 더 배워야 합니다”로 시작하여 “다 같이 배웁시다. 더욱 배우며 더 배웁시다”로 끝나는 창간사에서 교육을 통한 계몽이라는 발간의 취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치·시사를 제외하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문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신시, 한시, 시조 등 여러 가지 양식의 문학작품이 발표되었으며, 국문학 고전과 서구 문학을 소개하는 한편 최남선, 이광수, 현상윤 등의 작품도 실렸다. 특히 ‘현상문예’를 통해 이상춘, 주요한, 김명순, 최서해, 방정환 등의 작가를 발굴하고, 문학 독자층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青春 | 창간호(1914년 10월) | 영해087-8-1-1

## 태서문예신보

윤치호 | 1918. 9.~1919. 2.

1918년 9월 26일 장두철의 주재로 창간된 《태서문예신보》는 순한글로 된 문예 주간지로 1919년 2월 17일 16호로 중간되었다. 발행인 윤치호가 창간호의 권두언에서 “본보는 저 태서의 유명한 소설, 시조, 산문, 가곡, 음악, 미술, 각본 등 일반 문예에 관한 기사를 문학 대가의 붓으로 직접 본문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하여 발행할 목적”이라고 밝힌 발행 취지와 같이 주로 외국 문학의 동향, 작가의 소개, 작품의 번역 등을 게재하였다. 장두철, 백대진, 황석우 등의 글이 실렸으며, 특히 김억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번역과 소개, 창작시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김용직, 「태서문예신보연구」, 《국문학논집》 1,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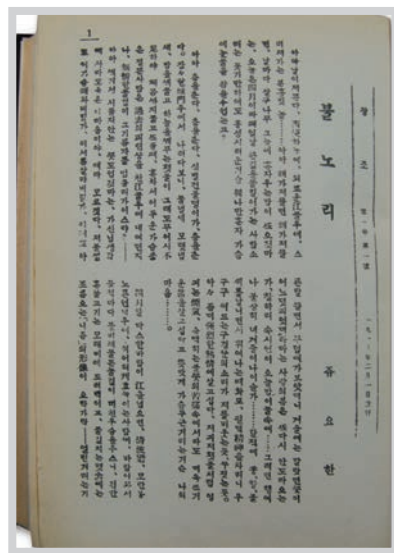
泰西文藝新報 | 제1호~제16호(1918년 9월 26일~1919년 2월 17일) |

태학사 | 1976. 11. | 071.1-태446㉮-1-16 | 영인본

## 창조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 | 1919. 2.~1921. 5.

본격적인 첫 문예지라 할 수 있는 《창조》는 1919년 2월 김동인과 주요한 등 동경 유학생들의 의기투합으로 창간되어 통권 9호인 1921년 5월호로 종간되었다. 창간호부터 7호까지는 동경에서, 8호와 9호는 서울에서 인쇄하여 발행하였으며, 김동인, 주요한, 김환, 전영택, 최승만, 이광수, 김찬영, 임노월 등이 동인으로 참여하였다. 창간호에서 주요한은 “우리는 결코 도덕을 파괴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만은, 우리는 귀한 예술의 장기를 가지고자 언제나 얼굴을 찌푸리고 계신 도학선생의 대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노력을 할 일 없는 자의 소일거리라고 보시는 데도 불복이라 합니다”라고 밝히며 예술의 가치를 옹호했다. 주요한의 「불놀이」 등 본격적인 자유시의 발전,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등 구어체 문장의 개혁, 순수 문학 운동의 전개 등의 공적을 남겼다.



韓國雜誌叢書：創造.開闢.廢墟 | 2卷 | 보림 | 1982. 4. | 051-한494호 1-2 | 영인본

## 개벽

이두성 | 개벽사 | 1920. 6.~1926. 8.

《개벽》은 1920년 6월호로 창간되어 통권 72호인 1926년 8월호가 강제 폐간 당하면서 중단되었다. 그후 두 차례(1934.11~1935.3/1946.1~1949.3) 복간되었다. 편집인은 이돈화, 발행인은 이두성, 발행소는 개벽사였다. 28호의 권두사에서 잡지의 제호인 ‘개벽’은 ‘천지개벽’의 줄임말로 천은 정신적 개벽을, 지는 물질적 개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개벽》에 실린 논설은 크게 천도교론,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당대의 현상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 조선학에 중심을 둔 것, 문학비평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신경향파 김기진과 박영희가 주도한 문학평론, 그리고 프로 시와 프로 소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으며, 김소월, 현진건, 김동인, 이상화, 염상섭, 최학송, 나도향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박영희의 평가와 같이 부분적으로 천도교 기관지이면서 대체로는 대중 계몽지 성격을 확립한 잡지이며, 잡지사와 문예사, 일반문화사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잡지라 할 수 있다.



開闢 | 창간호(대정9년 6월) | 1920. 6. | 087-21-1

## 폐허

고경상 | 폐허사 | 1920. 7.~1921. 1.

퇴폐적 낭만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잡지 《폐허》는 고경상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아 1920년 7월호로 창간되어 통권 2호인 1921년 1월호로 중단되었다. 황석우, 김억, 남궁벽, 염상섭, 나혜석, 김찬영, 오상순, 김원주, 민태원 등이 동인으로 함께 하였다. 창간호에서 남궁벽은 독일 시인 실러의 “옛 것은 멀하고 시대는 변하였다. / 내 생명은 폐허로부터 온다”라는 시구에서 잡지의 제목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폐허》의 창간 정신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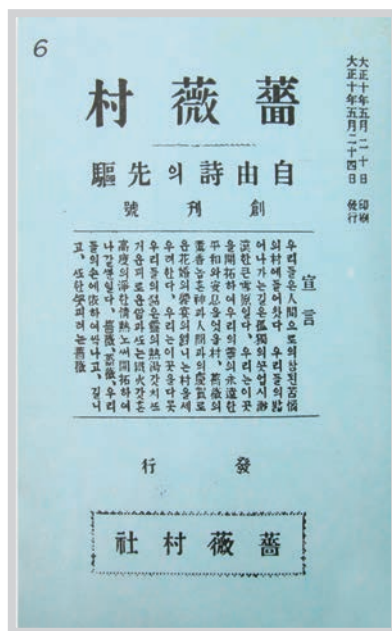
韓國雜誌叢書: 創造. 開闢. 廢墟 | 2卷 | 보림 | 1982. 4. | 051-한494호 ㄱ-2 | 영인본



## 장미촌

황석우 | 장미촌사 | 1921. 5.~1921. 5.

《장미촌》은 1921년 5월에 창간되어 한 호만을 내고 중단되었다. 편집인은 황석우, 발행인은 미국인 변영서(필링스)가 맡았다. 겉표지의 ‘장미촌’이라는 제호 아래 “자유시의 선구”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황석우, 변영로, 노자영, 박종화, 박영희 등이 동인으로 참여하여 낭만주의 성향의 시를 발표하였다. 비록 한 호로 중단 되었으나, 최초의 시 전문지로서 의미를 가진다.



韓國雜誌叢書：薔薇村. 白潮. 金星. 廢墟以後 | 3卷 | 보림 | 1982. 4. | 051-한494ㅎㄱ-3 | 영인본



## 백조

아펜젤러 | 홍사용 | 문화사 | 1922. 1.~1923. 9.

《백조》는 1922년 1월에 창간되어 통권 3호로 1923년 9월에 중단되었다. 창간호와 2호의 편집인은 홍사용, 3호의 편집인은 박종화였으며,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미국인 아펜설라(아펜젤러) 등 외국인 발행인을 택한 점이 눈에 띈다. 창간호에는 김덕기와 홍사중이라는 후원자를 얻어 문예잡지 《백조》와 사상 잡지 《흑조黑潮》를 간행하기로 되어 먼저 《백조》를 발간한다는 사정이 소개되어 있다. 홍사용, 박종화, 나도향, 박영희, 현진건, 안석영 등이 동인으로 참여하였으며 3호부터 방정환, 김기진이 합류하였다. 《장미촌》의 낭만주의 경향을 계승하였으며, 낭만주의 시의 대표작인 박종화의 「밀실로 돌아가다」,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등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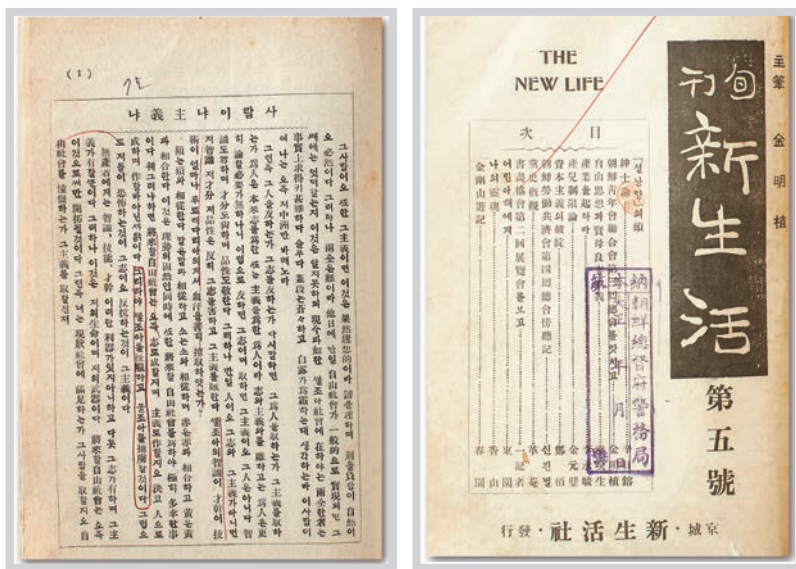


韓國雜誌叢書：薔薇村. 白潮. 金星. 廢墟以後 | 3卷 | 보림 | 1982. 4. | 051-한494호 ㄱ-3 | 영인본

## 신생활

백아덕(베커) | 신생활사 | 1922. 3.~1923. 1.

《신생활》은 1922년 3월에 창간되었다. 1~5호까지는 10일에 한 번 발간되는 순간이었고, 6호부터는 월간으로 바뀌었다. 발행을 맡은 신생활사의 사장은 박희도, 주필은 김명식이었으며, 인쇄인 노기정, 편집 겸 발행인은 미국인 선교사 백아덕(베커)로 되어 있다. 창간호의 김명식이 쓴 창간사를 비롯하여 많은 글이 삭제된 것을 시작으로, 검열에 의한 삭제와 압수 조치가 반복되었다. 1922년 11월 발간 예정이었던 11호를 문제로 삼아 총독부 경무국이 1923년 1월 폐간 처분을 내렸다. 박희도, 강매, 김명식, 신일용, 이성태 등이 주요 필자였으며, 변영로의 시 「논개」, 이후에 ‘만세전’으로 개제된 염상섭의 「묘지」가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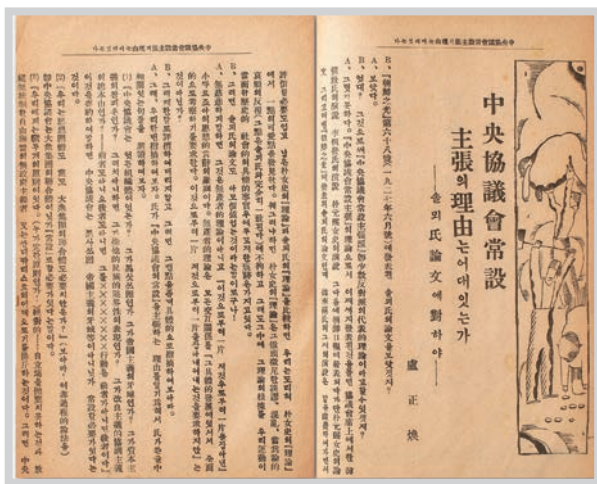


新生活 | 창간호(대정11년 3월) | 1922. 3. | 087-17-1922

## 조선지광

장도빈, 김동혁 | 조선지광사 | 1922. 11.~1932. 1·2월호

1922년 11월 창간된 《조선지광》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장도빈이었으나 4호부터 김동혁으로 바뀌었다. 창간호에서 “조선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정의의 지식과 문명을 선전하고, 조선인의 교육과 식산, 협동을 고취시킴으로써 조선민중의 권리와 행복을 옹호하고 세계 문화에 공헌하겠다는 창간 취지를 밝히고있다. 신문지법에 의해 설립되어 정치, 시사, 경제, 학술, 문예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으며, 점차 사회주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잦은 삭제와 압수를 거듭하면서도 10년 가까이 통권 100호를 발행하고 1932년 1·2월호로 중단되었다. 박영희, 김기진 등의 평론과 동반자 작가로 등장한 유진오, 이효석을 비롯하여 이기영, 한설야, 송영, 조명희 등의 소설, 임화의 단편서사시, 「향수」, 「유리창」등 정지용의 대표작이 다수 실리는 등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임화는 《조선지광》을 《개벽》과 함께 “조선의 사상계와 문예계를 좌우하고 공헌한”잡지로 꼽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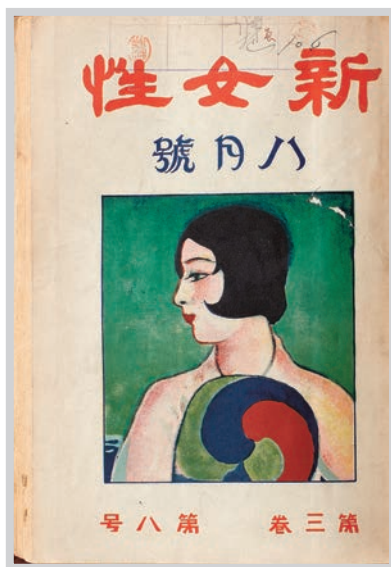


朝鮮之光 | 창간호(대정 11년) | 1922. 1. | 연귀087-1-69

## 신여성

박달성, 방정환, 차상찬 | 개벽사 | 1923. 9.~1934. 4.

개벽사에서 발행한 《신여성》은 1923년 9월에 창간되어 1934년 4월 통권 38호로 중간하였다. 편집 겸 발행인은 박달성에서 4호부터 방정환으로 바뀌었다가 1931년 10월호부터는 차상찬으로 바뀌었다. 김기전, 김윤경, 김기진, 이성환 등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1924년 12월호에 실린 “조선의 일천만 여성에 향하여 축 늘어진 ‘구여성’으로부터 활발달한 ‘신여성’으로 전향하는 기운을 진작하는 동시에 새로운 여성과 더불어 여성 세계에 행복한 새 시대를 맞아오기 위하여 창간 발행되는 본지”라는 회사 광고에서 발행 취지를 짐작할 수 있다. 생활 개선을 위한 신지식이나 계몽을 촉구하는 논설과 평론 등이 실렸으며, 시와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작품과 함께 동요나 동화 등의 아동문학도 실렸다. 백신애의 「꺼래이」를 비롯하여 송계월, 최정희, 김명순, 모운숙 등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발표되었으며, 김동환, 김화산, 김동명 등의 시와 이효석, 김남천, 이태준, 김유정, 이무영 등의 소설이 실렸다.



新女性 | 제3권 8월호(대정14년 8월) | 1925. 8. | 087-14-1924

## 영대

임장화, 고경상 | 영대사 | 1924. 8.~1925. 1.

《영대》는 1924년 8월에 창간되어 이듬해 1월에 통권 5호로 중단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노월 임장화가 맡았으며 마지막 5호에서 편집 겸 발행인이 고경상으로 바뀌었다. 김동인, 김억, 전영택, 이광수, 주요한, 김찬영, 임노월 등 《창조》 동인이 주축이 된 가운데 김소월이 가세하였다. 김동인, 임노월 등이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김소월이 다수의 시를 남겼다. 오스카 와일드, 니체, 보들레르, 입센 등을 소개하고, 프로문학비판론과 예술지상주의론을 신는 등 순문학 지향성이 드러난다.



韓國雜誌叢書：靈臺. 生長. 朝鮮文壇. 東光 | 4卷 | 보림 | 1982. 4. | 051-한494호 7-4 | 영인본



## 조선문단

방인근 | 조선문단사 | 1924. 10.~1927. 3.

《조선문단》은 권위 있는 문예지를 만들어보겠다는 이광수, 주요한, 전영택 등에 동조한 방인근이 사재를 출연하여 1924년 10월에 창간하였다. 편집 겸 발행인은 방인근이 맡았는데 1927년 3월에 통권 20호로 중간되었다. 남진우에 의하여 1935년 2월에 복간되었다가 모두 26호로 1935년 12월에 다시 폐간되었다. 창간호의 표지에는 아나톨 프랑스, 2호에는 타고르의 사진을 싣는 등 잡지의 정신이나 사상을 상징하는 인물을 겉표지에 실은 최초의 잡지이다. 대표적인 순문예지로서 민족주의 입장에서 반 프로 문학의 경향을 견지하였다. 이광수, 주요한, 전영택, 방인근, 김동인, 염상섭, 나도향, 현진건, 김억, 최남선, 양주동 등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창간호에서부터 단편소설, 희곡, 시, 시조, 논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의 투고를 독려하였으며, 최학송, 채만식, 박화성, 계용묵, 안수길, 조운, 이은상 등 많은 작가들이 《조선문단》의 신인 추천제를 통해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朝鮮文壇 | 第1號 | 태학사 | 1980 | 810.8-4-1-1 | 영인본



## 동광

주요한 | 수양동우회 | 1926. 5.~1933. 1.

주요한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은 《동광》은 1926년 5월에 창간되었다. 재정난으로 인해 1927년 8월에 중단 되었으나, 1931년 1월 속간되어 1933년 1월에 종간되었다.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 계열의 단체 수양동우 회 의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한, 안창호, 이광수, 이윤재 등 수양동우회 단원들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여 주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학술, 문예, 역사, 풍속 등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 최서해, 김동인, 주요섭 등의 소설과 최남선, 주요한, 조운, 이병기 등의 시조, 김억, 김동명의 시 등이 발표되었다.



東光 | 4권 1호(소화 7년) | 1932. 1. | 087-70-3

## 별건곤

이을, 차상찬 | 개벽사 | 1926. 11.~1934. 6.

개벽이 폐간된 직후인 1926년 11월에 개벽사는 《별건곤》을 창간하였다. 창간호 편집 겸 발행인은 이을이었으나 1928년 7월부터는 차상찬으로 바뀌었다. 창간호에서는 “취미라고 무책임한 독물만을 늘어놓는다든지 혹은 방탕한 오락물만을 기사로 쓴다든지 등 비열한 정서를 조장해서는 아니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취미는 할 수 있는 대로 박멸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취미 잡지를 시작하였다”고 발간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음악, 활동사진 등 당대의 첨단 주제와 교양을 갖출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독자들의 기호를 맞추려 노력하였기에 1934년 6월호로 종간하기까지 약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이상화, 김동환, 김화산, 김여수 등의 시와 이병기, 이은상 등의 시조, 이기영, 박영희, 최승일, 채만식 등의 소설이 실렸다.



別乾坤 | 창간호(1926년 11월) | 1926. 11. | 087-239-1

## 삼천리

김동환 | 삼천리사 | 1929. 7월호~1942. 1월호

《삼천리》는 김동환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아 1929년 7월호로 창간되어 1942년 1월호로 종간되었다. 창간호에서 편집상 근본 방침을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버릴 기사라고 없는 잡지를 만들자”라고 밝힌 것과 같이 대중적 종합 잡지를 표방하였다. 《삼천리》의 지면은 당대 쟁점이나 국제 정세, 사회 문제 등을 다룬 논설과 기사,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십적인 기사, 문학 분야의 글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민족주의 좌우파의 인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대중적 민족주의를 표방하였으나, 1937년 이후에는 점차 대일협력적 경향으로 변모하여 《대동아》로 개제하여 1942년 3월과 7월 두 호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광수, 임화 등이 집필한 〈문예강좌〉, 김동인의 〈춘원연구 등 문학사에 의미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나혜석, 김일엽, 최정희 등 여성 작가들을 비롯하여 당대 대표적인 작가들의 글이 망라되어 실려 있다.

천정환 외,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삼천리》와 1930년대 문화정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삼천리 | 5권 9월호(소화 8년) | 한빛 | 1995. | 051-한697ㄱ-5 | 영인본

## 시문학

박용철 | 시문학사 | 1930. 3.~1931. 10.

《시문학》은 1930년 3월호로 창간되어 이듬해 10월 통권 3호로 중단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박용철이었으며, 김영랑, 신석정이 《시문학》을 통해 등단하였으며, 그 외에도 정지용, 정인보, 이하운, 변영로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창작시 및 번역시를 발표하였다. 섬세한 언어와 서정성을 추구한 순문예지이자 시 전문지로서 문학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詩文學 | 제1호(소화5년 3월) | 1930. 3. | 연귀3608-83-1

## 신동아

양원모, 김상만 | 동아일보사 | 1931. 11.~1936. 9월호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월간 종합 잡지 《신동아》는 1931년 11월에 창간되었다. 창간 당시의 사장은 송진우, 편집 겸 발행인은 양원모, 주간은 주요섭이었다. 송진우는 창간사에서 “신동아는 조선민족의 전도의 대경륜을 제시하는 전람회요, 토의장이요, 온양소다. 그러므로 신동아는 어느 일당 일파의 선전기관이 아니다”라며 미래지향적이고 대중적인 창간 취지를 밝혔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보였는데, 겉표지 바로 뒷면에 국내외 인물과 사건과 풍경을 담은 화보를 실기도 하였다. 김동명, 김기림, 김억, 김상용 등이 시를 발표하였고 엄홍섭, 이태준, 박화성, 강경애, 한설야, 이효석, 유진오, 박태원 등이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무영과 채만식은 소설뿐만 아니라 다수의 희곡도 발표하였으며, 그 외에도 500여 명의 방대한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통권 59호인 1936년 9월호로 폐간되었다. 1964년 8월에 복간된 후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종합 잡지이기도 하다.



新東亞 | 제5권 제1호(1935년 1월) | 1935. 1. | 연귀087-64-8



## 중앙

김동성, 윤희중 | 조선중앙일보사 | 1933. 11.~1936. 9.

조선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한 월간 종합 잡지인 《중앙》은 1933년 11월호로 창간되었으며, 창간 당시 사장은 여운형이고, 편집 겸 발행인은 김동성이었으나 1936년 2월호부터 윤희중으로 바뀌었다. 창간호에서 “대중 본위의 취미와 실익의 잡지”라는 창간 정신을 밝히고 있으며, 점차 가벼운 독물을 다루고자 하였다. 주필 이관구와 대표작 「달밤」을 발표하기도 한 학예부장 이태준을 중심으로 김기림, 이상, 이기영, 이무영, 안희남, 김유정, 박태원, 이효석, 백신애, 이선희 등이 작품을 남겼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가 자진휴간에 들어가면서 통권 35호인 1936년 9월호로 종간되었다.



中央 | 창간호(소화8년) | 1933. 1. | 087-63-1



## 조광

방응모 | 조선일보사 | 1935. 11.~1944. 12.

《조광》은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발행한 월간 종합 잡지로 1935년 11월에 창간되었다. 저작 겸 발행인은 방응모가, 주간은 이은상, 편집주임은 함대훈이 맡았다. 《개벽》이후의 종합지에서 보기 드문 문학적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천 여 편 이상인 작품의 양적 측면은 물론, 김동명의 「파초」, 김유정의 「동백꽃」,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상의 「날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채만식의 「태평천하」등 수많은 문제작들이 실려있다. 그 외에도 유치환, 김기림, 백석, 윤근강, 임화, 김광균, 김동환, 김내성, 이태준, 박화성, 함대훈, 김남천, 김동인, 최명익, 안화남, 한설야, 이기영, 정비석, 채만식, 백신애, 정인택 등 당대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작품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1940년 5월호부터는 발행소가 조광사로 바뀌었으며, 중일전쟁 이후에는 “상식조선(常識朝鮮)의 ‘아침햇빛’”이 되겠다는 창간사의 기대를 지키기 못하고 대일협력의 경향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1945년 6월 1일 중단되었으며, 통권 113호가 발행되었다. 광복 후 1946년 3월 복간되었다가 1948년 6월 중간(重刊)되었으며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었다.

최수일, 「잡지《조광》의 목차, 독법, 세계관」, 《상허학보》 40,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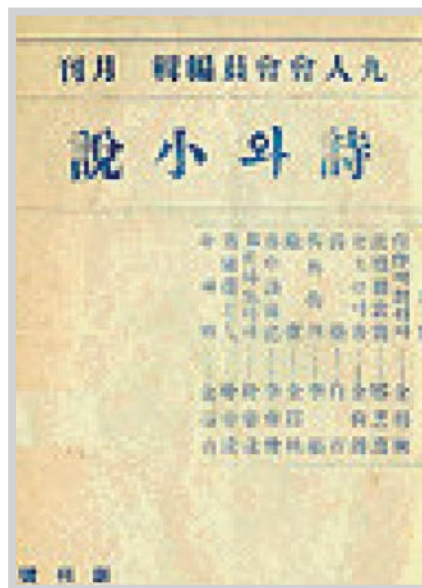


朝光 | 2권 10호(소화11년 10월) | 1936. 10. | 087-62-5

## 시와 소설

구본웅 | 창문사 | 1936. 3.~1936. 3.

《시와 소설》은 1936년 3월에 발행된 40쪽의 구인회 동인지다. 편집 겸 발행인은 구본웅이며, 인쇄소와 발행소는 창문사였다. 구인회는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 친목 단체로서, 속표지 뒷면에 소개된 잡지 발행 당시의 구인회 회원은 박팔양, 정지용, 김상용, 이태준, 김기림, 박태원, 이상, 김유정, 김환태이다. 정지용의 「유선애상」, 이상의 「가외가전」, 백석의 「탕약」 등의 시, 박태원의 「방란장주인」 등의 소설, 이태준, 박태원 등의 수필, 김기림, 이태준, 이상, 정지용의 새로운 예술론 등이 실려 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월간지를 만들려고 한 기획이 실패하고 한 호만 나오는 것으로 끝났지만, 구인회의 문학적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현대문학대사전 | 권영민 | 2001 | WEB DB

## 여성

방응모 | 조선일보사 | 1936. 4.~1940. 12.

《조광》의 자매지인 《여성》은 1936년 4월호로 창간되어 1940년 12월호로 중단되었다. 《조광》과 마찬가지로 저작 겸 발행자는 방응모였고 발행소는 조선일보사 출판부였다. 계용묵, 윤석중, 노천명, 백석 등이 편집진에 참여하였다. 이광수의 「결혼론」 등의 논설과 이상의 「봉별기」,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외에도 김기림, 백석, 모운숙, 노천명, 김유정, 강경애, 이태준, 이효석, 박태원, 채만식, 백신애, 안희남, 이선희등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다. 개벽사가 발행한 《신여성》, 동아일보사에서 《신동아》의 자매지로 1931년 창간한 《신가정》과 함께 광복 이전 3대 여성지로 꼽힌다.



여성 | 2권 3호(소화12년 3월) | 1937. 3. | 087-68-2

## 시인 부락

서정주 | 시인부락사 | 1936. 11.~1936. 12.

《부락》은 1936년 11월과 12월에 발간되어 2호로 끝난 시 전문지다.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서정주였고, 동인은 김달진, 김동리, 여상현, 서정주, 오장환, 함형수 등 12명이었다. 30여 편의 시가 실린 창간호의 후기에서는 시보다 시론을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다는 동인의 의견을 따라 일부러 시론을 빼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서정주의 「문둥이」·「화사」,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 여상현의 「법원과 가마귀」, 오장환의 「성벽」·「해향도」등이 실려 있다. 《시인부락》의 동인들은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시적 개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인간과 생명에 대한 탐구가 주조를 이루어 이후 ‘생명파’로 명명되기도 한다.



韓國詩雜誌全集: 낭만 창간호; 시인부락 1-2호; 자오선 창간호; 시인춘추 1-2호 |  
韓國文化開發社 | 1974 | 3619-16-4 | 영인본

## 문장

김연만 | 문장사 | 1939. 2.~1941. 4.

1939년 2월호로 창간된 《문장》의 편집 겸 발행인은 김연만으로 문장사에서 발행하였다. 이태준과 정지용, 이병기 등이 편집진으로 참여하였으며, 표제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하였고, 장정은 김진섭, 표지의 삽화는 김용준이 그렸다. 매호를 시, 소설, 수필, 평론, 문학 논문으로만 채울 정도로 순문예지의 형태를 취했다. 이광수의 「무명」, 이상의 「실화」, 이육사의 「청포도」, 김동리의 「황토기」등 이 시기 대표적인 작품들을 포함하여 박종화, 김기림, 백석, 유진오, 박태원, 이효석, 김동인, 김남천, 채만식, 최정희, 최명익, 한설야 등 당대 문인들의 수많은 작품이 실려 있다. 신인 추천 제도를 통해 곽하신, 최태웅, 임옥인, 지하련,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호우 등을 발굴한 것도 큰 공적이다. 고전 작품을 소개하는 한편 이태준이 연재한 「문장강화」를 비롯하여 조운제, 이희승, 김용준, 최현배 등의 국문학 분야의 중요한 논문과 자료도 꾸준히 실었다. 일제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1941년 4월호로 자진 폐간하였으며, 광복 후인 1948년 10월 정지용이 속간하였으나 1호로 중단되고 말았다.



文章 | 1권 10호(1939년 11월) | 1939. 10. | 3608-6-3



## 신천지

하경덕 | 서울신문사 | 1946. 1.~1946. 2.

《신천지》는 1946년 2월호로 창간되어 통권 68호인 1954년 9월호로 종간되었다. 발행인은 하경덕이, 1946년 9월호부터 편집인은 정현웅이 맡았다.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전락했던 《매일신보》를 인수한 《서울신문》이 짝을 이루어 월간 종합 잡지를 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천지》 창간호의 편집후기에서는 서울신문사 출판국이 ‘해방의 첫 선물’로 준비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좌우익 논쟁과 정부 수립을 전후한 혼란기와 한국전쟁 및 휴전을 거치면서 만 9년 동안 살아남은 유일한 잡지라고 할 수 있다. 창간호에 임화의 「박헌영론」이 실리는 등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으나,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보수 우익의 대변지로 기능한다. 황순원의 「학」, 염상섭의 「두 파산」등을 비롯하여 모운숙, 박목월, 김기림, 유치환, 김영랑, 김춘수, 김동인, 손소희, 한무숙, 최정희, 안희남, 정비석, 김학철, 채만식, 장용학 등의 작품이 실렸다.



新天地 | 第1卷 創刊號(2月號) | 1946. 1. | 일모805-서814-1



## 학풍

민병도 | 을유문화사 | 1948. 9.~1948. 10.

《학풍》은 1948년 10월호로 창간되어 통권 13호인 1950년 6월호로 중간되었다. 발행인은 민병도가 편집인은 조풍연이 맡았다. 발행소는 을유문화사였다. 2호(1948. 11)부터 종간호(1950. 6.)까지 책표지에 ‘학풍’이란 제호가 나와 있고 그 위에나 아래에 “THE HACK-POONG”이란 영문표기가 나와 있다. 《학풍》은 학술논문의 게재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2호부터 종간호까지 한 호도 빠짐없이 학술논문이 실렸으며 수필과 명저 해제도 거의 매호에 실린 편이다. 편집인은 창간호 후기에서 《학풍》을 논문 중심의 잡지로 만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주요 필자는 이상백, 고승제, 안응렬, 양주동, 김기림, 김병규, 이양하 등이었다. 백석, 신석초, 유진오, 이희승의 시와 염상섭, 김동리, 주요섭, 김성한 등의 해방직후 배경의 세태소설과 풍자소설이 실렸다.



學風 | 창간호(1948년) | 1948. 9. | 087-33-1948

## 문예

모윤숙 | 문예사 | 1949. 8.~1954. 3.

《문예》는 1949년 8월호로 창간하여 1950년 6월호까지는 월간지 형태를 지켰으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 12월호부터 1954년 3월호까지는 겨우 10호를 간행하여 통권 21호로 종간하였다. 발행 겸 인쇄인은 모윤숙이었으며, 편집은 김동리가 맡았다가 조연현으로 바뀌었다. 창간사에서 당파와 정실을 초월한 문학에 충실할 것과 민족 문학 건설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소설, 시, 평론, 수필, 번역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순문예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박종화, 유치환,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김춘수, 김현승, 김광섭, 염상섭, 최정희, 황순원, 이무영, 손소희, 안수길, 최태웅, 한무숙, 김진섭, 이병기, 백철 등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신인 추천제를 통해 강신재, 장용학, 곽학송, 최일남, 손창섭, 이형기, 박재삼, 천상병, 송옥 등 역량 있는 문인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文藝 | 창간호(1949년 8월) | | 1949. 8. | 연귀3608-3-1(1)



2014년도 연구현황

## 도서관정책기획단

###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용상(채움씨엔아이 이사)

상호대차, 회원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 등에 관한 연구 (회원증, RFID 등)

## 국립중앙도서관

### RDA를 기반으로 한 국가서지데이터의 FRBR 모형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정현(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RDA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연구, RDA와 FRBR 모형을 적용한 자료 검색 알고리즘 설계

### 고문서 목록규칙 표준화(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강순애(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국내 주요 고문서 소장기관을 중심으로 고문서 목록기술규칙의 기준과 사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목록규칙의 규정에 준하여 고문서 목록규칙의 표준화된 시안 제안

###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

● 연구책임자 : 방민호(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개인 수집가, 문학관, 사립 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 국내에 소장된 근대문학자료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

##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전략 수립 및 각급 도서관 지원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서혜란(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보존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각급 도서관과의 자료보존 협력 및 지원 방안으로서 국가협력보존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가이드라인 연구

● **연구책임자** : 노영희(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내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양한 문헌 및 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제안과 도서관에서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발

## 사서교육훈련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 민승기(주엑스퍼트컨설팅 리더십솔루션팀 팀장)

사서교육훈련 리더십 교육현황 분석, 리더십 교육 요구조사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계층별(팀원리더, 중간리더, 예비관리자, 최고관리자 등)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향후 리더십 교육의 발전 방안 제안

## 한국문학분야 주제 가이드 개발 및 구축 : 근대문학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홍현진(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내외 문학분야 주제가이드 운영 사례 조사, 근대문학분야 자료 및 연구자료에 대한 자료 유형 조사 및 분석, 근대문학분야 주제 서지 및 참고정보원 콘텐츠 구축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글쓰기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학교-공공도서관 연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변우열(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 간 협력 수준 측정 및 연계 활성화 방안 도출, 글쓰기 프로그램 연계 적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 및 전략 개발

## 국립장애인도서관

### 공공도서관의 독서보조기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배경재(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내외 도서관의 독서보조기기 지원체계 동향 분석, 국내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가차원의 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설치·운영 방안 제안

###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이해 교육교재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 배경재(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예비사서)들이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기본소양 및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내용 개발

## 국립세종도서관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곽승진(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용자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개발 및 기획,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확충 및 고도화, 정책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 개발

### 정책분야별 주제 가이드 개발 및 구축

● 연구책임자 : 노영희(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사례 조사, 정부기능분류(BRM)별 분류체계 보완 콘텐츠 구축 및 가이드 개발을 위한 자료 유형 분석과 메타 필드 설계, 주제별 가이드 서비스 방안 마련 및 내용 개발 등



도서관

통권 제 388호

2014

비매품

기획·편집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인 쇄 | 2014년 12월 17일

발 행 | 2014년 12월 18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 화 | (02)590-0799

팩 스 | (02)590-0502

웹사이트주소 | <http://www.nl.go.kr>

인쇄처 | PWK

## DOSEOGWAN

vol. 388

December 2014

Publishing offic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daero 201, Seocho-gu, Seoul, Korea

Tel | [02]590-0799 Fax | [02]590-0502





